

Korean Society & Immigration

한국사회와 이민

1주차

이혜경 교수

배재대학교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K학술확산연구센터
K-ACADEMIC DIFFUSION RESEARCH CENTER

01

과목소개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이민변천을 성공적으로 겪은 대표적인 국가로 1980년대 말 이후 노동송출국에서 노동유입국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이민 관련 개념, 역사 및 한국사회의 이민변천 양상을 간략히 살펴본 후, 외국인의 국내이주의 대표적인 세 가지 물결인 동포의 귀환이주, 동남아시아인의 노동이주, 결혼이주를 유형별 그리고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나아가 시기별 주요 이민정책의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미친 국내외 주요 요인들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02

강의방식

강의

퀴즈

03

주차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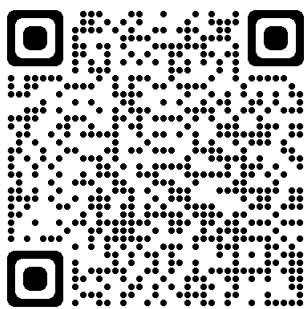
1주차	강의 소개 및 이민의 개념과 역사
2주차	이민변천과 한국
3주차	외국인노동자정책의 모색과 변화 : 산업연수생제도에서 고용허가제로
4주차	동포의 귀환이민과 방문취업제
5주차	중국동포와 돌봄노동
6주차	결혼이민 추이
7주차	한국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의 모색과 한계
8주차	난민공포(위기)를 통해 본 반다문화 현상
9주차	농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현황과 이슈
10주차	한국 이민정책의 미래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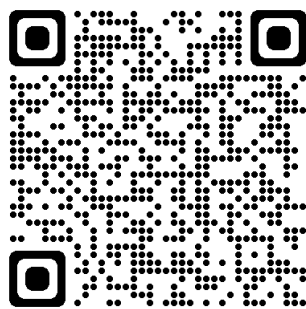
1주차 키워드

- 이민
- 이민자
- 이민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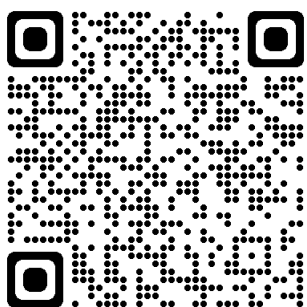
1주차 영상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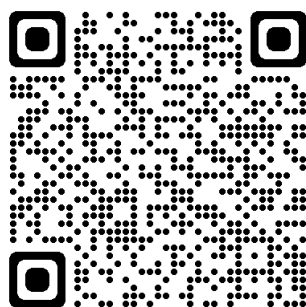
1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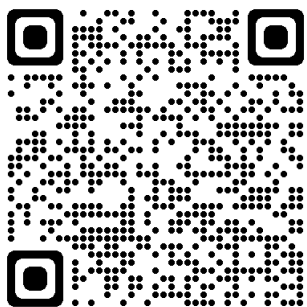
2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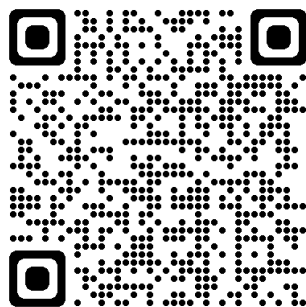
3차시



4차시



5차시



6차시

강의

강의 소개 및 이민의 개념과 역사

1-1 강의소개와 목표

안녕하세요. 한국 사회와 이민 수업을 맡은 이해경 교수입니다.

오늘 1주 차 수업은 한국 사회와 이민이라는 강의 소개와 이민의 개념과 역사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동안 여성가족부라든지 법무부, 고용노동부, 통계청 등 여러 위원회의 활동을 해왔고요. 그동안 제 연구 주제는 세계화와 한국의 이민 현상, 이민 정책, 사회통합 정책, 이주의 여성화, 돌봄 이민과 젠더, 중국 동포의 귀환 이민 등 이민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해왔습니다.

오늘 수업의 목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그 수업의 학습 목표는 한국 사회와 이민이라는 본 과목에 대한 소개 그다음에 본 과목의 목표를 안내하고 한국 사회와 이민이라는 본 과목을 이해하기 위한 오리엔테이션용 기초 수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민과 관계된 개념을 들으실 거고요. 유형과 단계, 전 지구적 이민의 역사, 아시아 지역 이민의 역사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이민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한국 사회와 이민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 수업의 키워드는 이민, 이민의 유형 그리고 단계, 전 지구적 이민의 역사, 아시아 지역에서의 이민의 역사, 아시아 지역에서 이민의 변화 등입니다.

이번 주 수업의 목차는 6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강의 소개와 목표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시간부터 이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다루고자 합니다. 목차는 자막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강의 소개와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과목 한국 사회와 이민 수업의 목표는 한국 사회로 들어오는 이민과 이민 정책 변화를 통해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저는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을 커다랗게 세 가지 흐름으로 나누었는데요. 첫째는 동남아시아인의 노동 이민, 두 번째는 중국 동포로 대표되는 동포의 귀환 이민, 세 번째는 동남아 여성들의 결혼 이민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이민의 흐름에 초점을 맞추어 각각의 역사, 현황 그리고 추이 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동 이민, 동포 이민, 결혼 이민이라는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이민을 우리 한국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기보다는 글로벌한 관점에서 비교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하는 글로벌 관점이란 다시 서양의 관점과 동양의 관점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서양의 관점이란 유럽이라든지 미주로 대표되는 서양을 이야기하고요. 동양이란 아시아는 너무 넓어서 우리가 제 수업에서 이야기하는 아시아는 주로 일본과 대만 등 동아시아 또는 동북아시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유럽 등 서양과 일본과 대만 등 동아시아와 한국의 이민 현상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한국 이민이 이들과 같은 유사한 점, 즉 보편성은 무엇이고 다른 나라와 매우 다른 차이점 또는 특수성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업의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10주 수업에 우리가 교재는 없지만 적어도 두 가지 책은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입니다.

첫 번째 책은 이해경 저와 이진영, 설동훈, 정기선, 이규용, 윤인진, 김현미, 한건수 교수 우리 여러 사람이 같이 쓴 2016년에 출판된 “이민정책론”이라는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은 스티븐 카슬, 마크 J. 밀러가 출판하고 한국이민학회가 2013년에 번역한 “이주의 시대”라는 책입니다.

물론 스티븐 카슬 교수님의 “이주의 시대”라는 책은 지금 여섯 번째 판까지 나와 있는데 저희 한국이민학회에서 번역할 당시에는 제4판을 번역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최근의 제6판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교재 말고 매주 수업과 관련된 참고 문헌과 자료는 자막을 통해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제 수업을 듣다 보면 통계가 조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민자에 대한 어떤 통계들이 나올 경우에 그때 여러분들은 유량 통계인지 또는 그것이 저장 통계인지를 구분해 보자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민자 통계는 기본적으로 유량 통계와 저장 통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유량이라는 말은 flow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것이 유량통계인지, 또는 저장통계인지를 구분해 보시라는 특정 시점과 특정 장소에서의 flow 통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얼마만큼이 들어오고 얼마만큼의 사람이 나갔느냐를 유입과 유출의 양을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예를 든다면 2022년 올해 고용허가제로 한국으로 들어온 외국인의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한 6만 명 정도라고 한다면 이것은 유량 통계이겠죠.

그다음에 저장 통계도 있습니다. 영어로는 stock 통계인데요. Stock이라는 말이 쌓여 있다. 또는 누적되어 있다는 뜻이니까 특정 시점과 특정 장소에서의 stock이 된 통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2022년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규모는 200만 명이 넘었다. 물론 2019년에는 250만 명 정도였거든요. 근데 코로나 영향으로 좀 줄어서 2022년 현재 그래도 한 200만 명 넘는다고 얘기할 때 이것은 저장 통계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20년 전 세계 이민자의 규모는 2억 8천만 명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도 flow, 즉 유량 통계가 아니고 stock, 저장 통계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이주와 관련된 통계들을 찾아보는 것도 매우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국제적인 통계를 찾아보고 싶으시면 UN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UN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안내들이 있는데 International Migration으로 이렇게 탁 누르고 들어가시면 국제이주와 관계된 여러 가지 통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사이트로 들어가서 2020년 전 세계 이민자의 수가 약 2억 8천만 명이라고 찾아왔습니다.

한국에 대한 통계도 매우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 통계청, 여러분들은 그냥 구글이나 또는 네이버 이런 데에 들어가서 KOSIS라고 치시면 돼요. 그러면 KOSIS 국가 통계 포털이라고 사이트가 뜨는데요. 그리 들어가시면 국내 통계, 국제 통계 여러 가지 안내가 떠요. 그러면 국내 통계로 들어가서 주제별로 들어가서도 찾을 수 있고 또는 국내 통계로 들어가서 기관별로 들어가시면 중앙행정기관 통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행정기관 중에 법무부를 누르면 출입국 관련 통계를 찾으실 수 있고요. 고용노동부를 누르면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통계를 찾으실 수 있고 여성가족부를 누르면 결혼 이민자 또는 다문화 가족의 규모 또는 현황 등에 대한 통계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 KOSIS 국가 통계 포탈에도 국제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통계가 아니고 이번에 국제 통계를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또 주제별 해서 여러 뜨는데요. 그중에서 국제기구별 통계를 누르시면 또 그 안에 들어가면 OECD 등 여러 가지가 떠요. 그런데 그중에서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을 누르면 여러 나라의 국제 이주에 대한 자세한 통계들이 뜹니다. 이 사안과 같은 방법으로 국제 통계 또는 한국과 관련된 이민자 통계들을 마음껏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강의 소개 및 이민의 개념과 역사

1-2 이민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의 제목은 이민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민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죠. 아래에서 화살표들이 나갈 건데요. 이 중에서 이주가 어떤 화살표인 것 같으세요? 영어로는 migration이라고 하면 한국어로 이주라고 하기도 하고 이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분간 여기에서는 이주라는 말을 쓸게요.

지금 여러 개의 화살표가 보이고 있는데 화살표가 굉장히 긴 거는 거리가 멀다는 뜻이겠죠. 거리가 멀어도 그 하나의 셀 안에서 선을 넘지 않는 화살표도 보일 거고요. 어떤 화살표는 길이는 굉장히 짧은데, 즉 거리는 짧아도 경계선을 넘는, 선을 넘는 화살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긴 화살표가 이주일까요? 아니면 짧지만, 선을 넘은 화살표가 이주일까요?

정답은 선의 길이와 상관없이 선이 짧더라도 경계를 넘은 것이 이주입니다. 그러므로 이주, 즉 migration의 기준은 특정 시점과 특정 장소에서 지역적 경계를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경계를 넘어서 거주지를 바꾸는 것을 우리가 migration이라고 하고요. 경계를 넘지 않은 이동, 즉 선을 넘지 않은 이동은 그냥 이동 또는 이사라고 부릅니다.

한국 센서스의 정의에 의하면 동일한 시 또는 군 내부에서의 그 이동은 이동이고요. 시 또는 군의 행정 경계를 넘은 이동은 이주라고 불러요. 그런데 한국 안에서 서울시의 경계를 넘어서 경기도로 갔다고 할 때는 이주지만 그 이주는 국내 이주지요. 그러면 국제 이주가 되려면 국가의 경계선, 즉 국경을 넘었을 때 국제 이주가 되겠죠. 그래서 UN은 통상적인 거주 국가를 변경한 경우를 이민, 즉 migr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migration 하나인데 한국어로는 이주라고 말할 때도 있고 이민이라고 말할 때도 있어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주하고 이민이라는 개념도 구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주란 국내 이주, 국제 이주를 다 포괄하는 용어이고요. 이민이라고 할 때는 국내이주가 아닌 국제 이주만 우리가 이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한국어로 국내 이주라는 말은 영어로는 internal migration이고요. 한국어로 국제 이주, 즉 이민이란 international migration이 되겠죠. 그러므로 한국어로 이주라는 말과 이민이라는 말의 차이를 느끼셨나요? 맞습니다. 이주라는 말이 훨씬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주라는 용어 안에는 국내 이주, 국제 이주가 다 포함되는 말이고요. 이주 안에서 이민이란 국제 이주, international migration만 우리가 이민이라고 부르죠. 다시 우리가 migration이라는 영어 앞에 in을 붙여서 in-migration 또는 migration이라는 영어 앞에 out을 붙여서 out-migration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국내 이동인 경우에는 in-migration 그러면 전입, out-migration 그러면 전출.

경기도 사람이 서울로 이사를 갔다고 쳐요. 그러면 전입한 거죠. 그러면 경기도에 예전에는 전출 신고도 하고요 다시 또 서울시에 가서 전입신고도 했는데 요새는 세상이 편해져서 인터넷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져 어느 한 군데에서만 신고를 하면 전입/전출이 다 그냥 해결이 되더라고요. 국제적으로는 in-migration, 이입 그다음에 out-migration, 이출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국내 이동일 경우에는 전입/전출이라는 말을 주로 쓰고요. 국제 이동에서는 이입/이출이라는 말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이주의 흐름, 즉 migration stream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이주의 흐름은 두 가지 장소를 이제 머릿속에 한 번 그려보세요. Origin이 있어요. 발원지, 시작하는 곳. 그다음에 목적지가 있겠죠, destination.

우리가 지금 이민에 대해서 하려고 하니까 한국에서 미국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origin country-한국, destination country-미국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A에서 B로, 즉 한국에서 미국으로 200명이 갔다. 그런데 미국에서 한국으로 50명이 들어왔다고 가정해보자고요. 그러면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총이주는 gross migration 또는 total migration이거든요.

그러면 총이주는 양이 얼마나 될까요? 맞습니다. 어쨌건 200명이 나가고 50명이 들어왔지만, 전체 이동한 사람은 250명이잖아요. 그러므로 총이주는 250명이예요. 그러면 순이주는 얼마나 될까요? 순이주는 net migration이죠. 우리가 net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Net income, 순소득 그건 뭐죠? 다 받은 것에서 세금 빼고 이것저것 빼고 나한테 뚝 떨어지는 소득이죠. 마찬가지로 순이주는 나가고 들어왔으니깐 그래서 얼마가 들어왔다는 거냐는 거죠.

그런데 이때 200명이 미국을 가고 미국에서 50명이 한국을 왔는데 그 차이를 빼면 어느 한쪽으로는 150명이 간 거고 어느 한쪽에서는 150명이 나간 거예요. 어느 한쪽은 150명이 들어오고 그러므로 누구의 입장이냐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한국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입장이라면 -150, 150명을 나갔다고 생각하고요. 미국의 입장이라면, B의 입장이라면 +150, 150명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A냐, B냐에 따라서 이게 out이 되느냐, in이 되느냐. 즉, 이출이 되느냐, 이입이 되느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 이주의 흐름에서 보면 한 국가 내에서 움직이는 경우 국내 이주였죠. International migration은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서울로 가기도 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많은 나라에서의 그 현상은 농촌에서 도시로 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농촌에서 도시로 가는 그 이동을 우리가 도시화 현상이라고 하나의 개념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국제 이주에서도 흐름이 보여요. 가장 흔한 흐름이 뭐냐면 LDC(Least Developed Country)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후진국이라고 불렀는데 그 어감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개발도상국에서 MDC(More Developed Country) 선진국,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흐름이 많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UN 데이터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남북 이주, 남남 이주 이런 표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남북 이주가 뭐고 남남 이주가 뭔가라는 생각이 드시지요. 그러면 지구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동그란 지구본이 있는데 지구본의 적도를 기준으로 남쪽은 주로 Least Developed Country가 많고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은, 즉 North는 More Developed Country, 선진국이 많다 해서 남북 이주라고 부르는 것은 저개발국 또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이주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남남 이주란 개발도상국 간에서 이주가 많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UN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지도 같은 걸로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남북 이주의 양이 제일 많고 그런데 놀랍게도 남북 이주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최근에는 남남 이주도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남에서 북으로 가는 이주가 그렇게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즉 선진국에서 못 들어오게 막는 것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난민이 이동한다 그래도 아프리카 난민 또는 아시아의 난민이 다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프리카 내에서의 이웃 국가로 피난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북 이주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남남 이주도 최근에 굉장히 많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물론 선진국 안에서 이동하는 북북 이주도 좀 있고 선진국에서 개발도상으로 가는 북남 이주도 좀 있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인 추세로 제일 많은 거는 남북 이주 그리고 남남 이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UN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체류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으로 간주되는 최소한의 체류 기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민으로 간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체류 기간이 몇 년 또는 몇 개월이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UN에서 이미 얘기를 다 해놨어요.

UN은 굉장히 일찍부터 이민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개념도 밝히고, 통계도 모으고 있는 기관인데요. UN에서는 1년 이상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1년 이상을 물론 장기 이민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3개월 이상에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단기 이민이라고 부르지만 UN은 기본적으로 이민은 통상적 거주 국가를 1년 이상 변경한 경우 그러니까 UN을 우리가 본다면 이민으로 간주하는 최소한의 체류 기간을 1년으로 본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면 각 국가마다 이민으로 간주하는 체류 기간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UN의 개념처럼 1년으로 보는 국가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그러는데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은 1년을 기준으로 해요. 하지만 유럽에서도 독일은 거주 비자로 일주일 이상 독일에 체류하면 이민으로 통계를 내요. 그러므로 1년 이상 있으면 프랑스에서는 이민자인데 독일에서는 거주 비자로 일주일 이상만 있어도 이민자인 거예요. 이 둘을 어떻게 똑같이 비교하나 고민스럽죠.

아시아로 눈을 돌려보시면 한국과 일본 등에서는 3개월이 최소 체류 기간이에요. 그래서 3개월 이상 한국에 계시려면 법무부 관련 출입국 관련 사무소에 가서 외국인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3개월이라는 기준이 있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각 국가마다 이민으로 간주하는 이 체류 기간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2006년경부터는 이런 고민들이 더 아주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OECD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게 돼요. 저는 이 기간이 왜 2006년부터인가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당시 유럽의 국가들의 통계를 서로 비교하려고 했는데 체류 기간이 너무 달라서 이민 통계를 국가 간에 비교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OECD는 국제 비교가 가능하도록 이민 통계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돼요.

또 예를 들면 체류 기간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나라 예를 들면 영국의 이민자 통계에서는 유학생 또는 워킹홀리데이 이를 다 넣어서 이민자라고 하고요.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통계에서는 이민자에 유학생이라든지 워킹홀리데이가 빠져요. 그러므로 영국 통계하고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통계를 직접 비교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OECD는 이민자의 통계를 표준화하자. 그래서 UN처럼 1년 이상이다. 이런 거 체류 기간은 안 되겠다. 그러므로 체류 권리로 이민자를 define하자, 개념 짓자. 그다음에 모든 이민자 통계에서 유학생이라든지 워킹홀리데이는 빠져. 이런 표준화의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다음 넘어가기 전에 왜 2006년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2006년 그때부터 유럽에서 EU, 하나의 유럽이라는 그 노력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2006년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이탈리아는 이탈리아어로 이민자 통계를 내고 자기네 나라의 홈페이지에 밝히기는 했지만 자기네 나라 그냥 통계를 자기네 사람들만 주로 이용했어요.

그런데 2006년부터 EU 안에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자유로워진 이후부터 유럽 내, EU 내에 각 국가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과 이탈리아와 스페인 이런 여러 나라들의 통계를 표준화해야 되겠다는 그 심각성이 아주 겹으로 드러난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UN이 이야기하는 장기 이민이냐, 단기 이민이냐는 체류 기간보다 OECD는 다른 말을 쓰게 돼요. 그래서 영주 이민 또는 준영주 이민과 일시 이민을 구분하게 돼요. 그래서 영주 permanent migration이죠. 일시 이민은 temporary migration이죠. 그래서 체류 기간으로 이민자를 나누지 말고 그 사람이 들어올 때부터 받게 된 체류 권리로 이 사람이 이민자냐 또는 이 사람이 영주 이민자냐, 일시 이민자냐 이거를 나누자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OECD에서는 영주 이민 또는 준영주 이민까지 포함한 그 영주 이민의 개념은 뭐냐면 이민 트랙으로 들어오는 거 또는 처음부터 영주권을 받고 들어오는 경우 또는 한시적 체류 허가자이지만 계속 갱신이 가능한 사람 또는 EU 시민권자들은 EU 내에서 자유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EU 시민권자들, EU 내에서 자유 이동이 가능한 사람들을 영주 이민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들어올 때 그 사람의 체류 자격이 이민 트랙이나 영주 트랙이라고 하면 permanent migrant 또는 permanent migration이라는 개념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OECD 개념의 영주라든지 준영주 이민자의 예를 든다면 전문직, 취업 이민자는 또 가족을 동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직, 취업 이민자와 그 동반 가족들 또는 가족 재결합이나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이민 가는 사람들 또는 인도주의적 이민, 우리 인도주의적 이민이 뭐죠? 난민 신청자 또는 난민 신청에서 허가를 받은 사람, 그 사람들과 그 동반 가족, 기타 해외 동포 이민이라든지 또는 해외 동포들이 다시 은퇴해서 들어오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를 영주 트랙이라고 볼 수 있겠죠. OECD가 이야기하는 temporary migrants 또는 일시적, 한시적 이민자란 유학생, 연수생, 워킹홀리데이로 들어오는 사람들, 계절적 노동자 그다음에 주재원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과 기업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교환 교수로 잠깐 가는 사람, 교환 교수 보통 가면 6개월이나 1년 정도 있다가 돌아오시잖아요. 그니까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사람들 또는 기타 한시적 근로자인데 그 기타 한시적 근로자들도 갱신될 수 없거나 제한된 조건에서만 갱신이 가능한 이민자들을 일시 이민자 또는 한시적 이민자라고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민자의 개념을 보시면요. UN의 개념은 통상적인 거주국을 바꾼 사람, 1년 이상 거주국을 바꾼 사람을 의미한다면 OECD에서의 이민자는 외국인 인구, 즉 그러니까 외국인이에요.

국적이 어디냐. 우리나라 국적이냐, 외국 국적이냐. 그다음에 또 거기에 해외 출생인구 국내에서 출생했느냐, 해외에서 출생했느냐. 그럼 해외에서 출생한 사람도 이민자로 들어가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주 배경 인구라는 말을 또 많이 쓰는데요. 이주 배경 인구라는 건 뭐냐면 본인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부모가 이민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민의 배경을 가진 부모를 둔 사람 그래서 우리 이주 배경 인구를 할 때 여러분들 이민 1세냐, 이민 1. 5세냐, 이민 2세냐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이민 1세가 뭐죠? 그 사람이 성인일 때 이주한 거 이민 1세예요. 그럼 이민 2세는 또 알겠죠. 미국에 부모님이 이민을 가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민 2세예요.

그럼 이민 1. 5세는 뭐예요? 왜 소수점이 붙죠? 성인이 아니고 미성년이었을 때 이민을 간 사람.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박정현 씨가 있는데요. 노래를 너무 아주 그냥 파워풀하게 하시는 분이죠. 그분이 6살인가 7살 때 아버님을 따라서 온 가족이 다 미국으로 이민을 갔죠. 그 경우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1. 5세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이민 1세 이민 1. 5세 또는 이민 2세까지를 다 이주 배경 인구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러므로 OECD의 이민자 개념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국적이 외국인이나, 외국인 인구. 외국에서 출생했느냐, 해외 출생 인구. 이주 배경이나, 이주 배경 인구를 다 합한 개념을 이민자라고 불러요. 그러므로 UN의 개념보다 OECD의 이민자 개념이 굉장히 넓죠. Broad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자료를 보실 때 이게 UN의 기준으로 이민자라고 했는지, OECD 통계여서 이민자라고 했는지에 따라서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강의 소개 및 이민의 개념과 역사

1-3 이민(자)의 유형과 단계

한국 사회와 이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은 이민자의 유형과 단계 또는 이민의 유형과 단계입니다. 이민자의 유형은 원인과 동기를 기준으로 나눌 수 있겠죠. 원인을 기준으로 나눈다면 강제 이민과 자발적 이민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강제 이민자 또는 자발적 이민자라고 하면 어떤 예가 떠오르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기를 기준으로 나눌 때는 경제적 이민, 정치적 이민, 종교적 이민, 사회적 이민, 문화적 이민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으로 우리가 나누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원인으로 나눴을 때 강제 이민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노예가 떠오르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붙잡혀서 미국이라든지 중남미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있죠. 오늘날은 강제 이민이라고 하면 강압적으로 이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 즉 전쟁 난민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럼 자발적 이민자란 강제 이민과 아주 반대되는 개념으로 자신들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이민을 간 걸 얘기해요. 그러므로 똑같은 19세기라고 해도 유럽인들은 자발적으로 미국으로 대규모 이민을 간 것에 비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노예로 미국으로 끌려간 거죠.

동기를 기준으로 나눴을 경우에 경제적 이민, 당연히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경우. 정치적 이민, 정치적 탄압을 피해서 가는 경우. 종교적 이민, 그 나라에서는 종교적인 자유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인이라든지 또는 기독교 국가에서의 이슬람 종교라든지 그래서 자신이 믿는 그 종교를 자유롭게 믿기 위해서 종교 때문에 이민을 가는 경우도 있고요.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가는 경우를 우리가 사회적 이민이라고 불러요. 최근에는 한국으로 K-POP이 좋아서 한국으로 이민을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문화적 이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경제적 이민, 정치적 이민, 사회적 이민, 문화적 이민, 이렇게 나누었을 때 이렇게 나누는 것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경제적 이민 한 가지만이 아니고 경제적 동기도 있어요. 그런데 자녀의 교육도 중요하고, 종교적 자유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딱 하나 이 사람은 경제적 이민자지 사회적 이민자가 아니다. 이렇게 딱딱 끊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가 매우 모호하다는 것이 문제죠.

이민의 유형을 이민의 기간에 따라 특정 계절에만 이민하는 경우는 계절 이민자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통상 1년보다 짧거나 또는 5년보다 짧은 경우를 단기 이민이라고 부르고요. 장기 이민은 영주 이민이거나 영주 트랙으로 들어오는 경우를 permanent migration, 장기 이민이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가 이민의 동기에서는 이게 경제 이민인지, 문화적 이민인지, 종교적 이민인지 점점 모호해진다고 하는데 이민의 기간은 굉장히 짧거나 특정 계절이거나 이런데 이것도 모호해지느냐. 네, 이민의 기간도 모호해져요. 단기 이민으로 들어왔는데 장기 이민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장기 이민으로 들어왔는데 다시 돌아가서 단기 이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민자의 유형을 이민의 주체이나 아니냐로 나눕니다. 즉 아버지가 직업을 얻어서 이민을 간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이민의 주체입니다. 그러므로 main migration이예요. 이 경우에는 그 아버지의 배우자 그다음에 그 아버지의 자녀들은 따라가는 사람이므로 따라가는 자 또는 영어로는 tide mover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런 이민의 주체가 누구냐는 개념과 관련해서 이민의 선별성, 즉 selectivity 개념이 또 나오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랜덤하게 이민을 가나요? 만약 모든 사람이 랜덤하게 이민을 간다면 이민의 선별성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Selectivity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민에는 어느 정도의 선별성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한국에서 주로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하면 예전에는 주로 남자들이 먼저 가요. 그러므로 성별의 selectivity가 있는 거죠, 여자보다는 남자. 연령에도 selectivity가 있어요. 주로 이주를 간다 그러면 젊은 나이의, 일할 수 있는 나이의 사람들이 먼저 가겠죠. 그러니까 노인이나 애는 나중에 뒤따라가겠죠. 계층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경을 넘어가는 문제이므로, 즉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 때문에 아주 가난한 경우에는 이민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즉 중류층이 먼저 이민을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류층은 나중에 가거나 상류층은 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계층도 이민의 선별성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거의 이민의 선별성이 오늘날로 오면서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예전에는 주로 남자가 이민을 갔는데 최근에는 여자가 먼저 이민을 가는 경우도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연령도 예전에는 주로 젊은 층이 즉 생산연령의 인구가 일하기 위해서 이민을 갔는데, 은퇴이민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자가 자기의 연금을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민을 가는 거죠. 계층에 있어서도 약간의 변화가 생기고요. (전반적으로 이민의 선별성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변화 가운데, 남자가 먼저 이민가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주체적으로 먼저 이민을 가는 경우를 특히 '이주의 여성화'라고 부릅니다. 법적인 체류권리에 따라서 이민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는 합법이민자와 불법이민자라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합법 이민자는 문제가 없지만, 불법이민자라는 용어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불법이민자'라고 부르면 이 사람이 "불법"이라니, 무슨 살인을 했나? 이렇게 큰 불법, 즉 법을 크게 어긴 것처럼 용어가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불법이민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즉 예전에는 Illegal migrants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illegal migrants라는 말보다는 'Undocumented migrants' 한국어로는 '미등록 이민자'라고 부르자는 것입니다. 또는 Irregular migrants, Non-compliant migrants 이렇게 미등록 이민자를 지칭하는 용어들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어 사용에 있어서도 예민한(감수성이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민과 관련된 개념 중에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냐는 개념 또는 이민자나 국민이라는 개념도 그냥 외국인, 내국인, 이민자, 국민 이렇게 심플하지는 않아요. 최근에는 영주권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어느 정도 가진 이후에 귀화 시험을 봐서 귀화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국에는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국인입니다. 주변에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베트남 이민자가 있어요.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또 그사이에 베트남 사람과 중국 사람이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았어요. 그러면 영주권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귀화시험을 통과하여 한국 귀화자가 되었다면, 이제 이들은 우리 국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자 그 다음 단계는 귀화자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한국 사람이 미국으로 간 경우를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해외 한인, 즉 재미한인이 있습니다. 이때, 해외 한인이란 재외국민과 외국적 동포, 이 둘을 합한 개념입니다. 재외국민은 미국에 갔지만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외국적 동포는 미국 국적을 가진 동포를 의미합니다. 즉 한국계 미국 국적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우리나라에 중국인-영주권자와 베트남인-영주권자가 있듯이 한국 국민이 미국에 가서 영주권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 시민권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Ethnizen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자. 즉 영어로는 Denizen이라는 개념과 짝을 이루는 용어가 Ethnizen입니다. 즉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국적이지만 그 나라의 영주권을 가진 자는 Ethnizen입니다. 이민의 단계에 따라 여러 구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센서스에서 출생한 곳, 5년 전의 거주지, 1년 전의 거주지, 그리고 현재의 거주지 등을 묻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센서스를 할 때 태어난 곳 몇 년 전의 거주지, 1년 전의 거주지, 현재의 거주지 등을 조사합니다. 이렇게 묻는 이유는 이민의 단계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 일본, 미국에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5년 전에도 한국에 있었고, 1년 전에도 한국에 있었고 지금도 한국에 있다면, 이 사람은 평생 비이민, 즉 한 번도 이민을 나간 적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출생 및 거주하다가, 1년 전에 (예를 들면) 미국으로 갔고, 현재도 미국에 있다면, 평생 한 번만 한국에서 미국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는 일차 이민이라고 불러요. 이때 1년 전에 미국으로 갔는지, 5년 전에 갔는지, 그 시기는 중요하지 않고, 한 번만 간 경우를 우리가 '일차이민'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다가, 일본을 갔다가 그다음에 미국을 갔다면 두 번 장소를 옮겼으니, '이차이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미국을 갔다가, 미국에서 한 몇 년, 10년 또는 20년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 왔다면, 만약 은퇴 하신 후에 돌아오셨다면 은퇴 이민입니다. 그러나 아직 은퇴할 나이가 아닌데 한국으로 돌아온 경우에는 귀환이민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동포들이 호주로 사업이민을 갔다가 호주에서의 사업 기회보다는 한국에서의 사업기회가 더 좋아서, 그래서 이민을 갔다가 되돌아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귀환 이민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동포들이 호주로 사업이민을 갔다가 호주에서의 사업 기회보다는 한국에서의 사업기회가 더 좋아서, 그래서 이민을 갔다가 되돌아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귀환 이민이라고 부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부인과 아이들은 호주에 계속 거주하고있고 한국인 남편이 한국과 호주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또는 가족 전체가 한국과 호주를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나라를 왔다 갔다 할 경우에는 순환이민 (즉 Circular migr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2차 이민, 3차 이민이 됐을 때 단계 이민이라고 부르려면 (단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는 국내 이주에서 더 많이 쓰이는 개념인데. 굉장히 강촌에서, 굉장히 먼 거기에서 있다가 읍으로 나왔다가 다시 조금 더 큰 도시로 갑니다. 큰 도시에서도 살 만하다라고 느끼어 (나중에) 서울까지 왔다면, 점점 더 큰 도시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단계 이민이라고 합니다.

이제 국제 이민에서 단계 이민이 되려면 (예를 들어) 한국인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다가, 그런데 뉴질랜드에서의 사업 기회가 별로 없고, 인구가 적어서. 그래서 결국 호주로 옮기셨다면, 그런 경우를 즉 점점 더 복잡한 국가나 더 큰 국가로 가는 경우를 단계이민이라고 부릅니다. (단계이민과) 연관된 개념으로 chain migration, 연쇄 이민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면 연쇄 이민은 무엇일까요? Chain이 뭔가요? 동그런 고리입니다. 동그런 고리가 고리와 고리로 연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있어서 (연결되어)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Chain migration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이 미국으로 가는데 미국에서도 어디로 가느냐고요? 시카고로 갈지, 애틀랜타로 갈지, LA로 갈지? 내 친척이 지금 애틀랜타에 많이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내 친척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친척이 있어서 그 친척한테 처음 정착 시의 도움을 좀 받고자, 또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친척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경우를 연쇄이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한국인이건 또는 많은 사람들이 낯선 다른 나라로 이민갈 때에는 단계이민이거나, 연쇄이민이 많습니다.

이민 관련 최근 (여러)변화들이 있는데요. 유형별 또는 단계별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단기이민과 장기이민의 구분이 모호해 졌습니다. 독일에 터키 출신 이민자가 많은 것은 이들 터키 출신 이민자들이 독일이 Guestworker Program (초청 노동자제도)을 사용했던 1960년대부터 1973년까지 많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독일은 1973년부터 Guest Worker Program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1973년부터는 guest worker로 온 터키 사람들이 터키로 돌아가는 것을 장려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1973년 이후 일자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독일에 남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들 독일에 남은 사람들이 1980년대와 1990년대를 지나면서, 이미 독일에 산 지 10년, 20년이 넘으니, 가족과 떨어져서 계속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독일은 인권국가이므로 당시 독일의 법원에서 독일에 세금을 내고 이렇게 오랫동안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터키인의) 경우에는 가족들을 초청할 권리가 있다. 즉 이들의 가족재결합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터키에 있는 이 사람의 가족들과 또는 자녀들이 다 독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내에 터키계 이민자 커뮤니티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에서 가장 많은 이민자 집단 중의 하나가 터키계 이민자인 거죠.

그렇다면, 시작은 단기 이민이었지만 결국은 장기 이민 또는 영주 이민이 된 경우잖아요. 그러므로 이는 단기이민과 장기이민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좋은 예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1차 이민이냐, 2차 이민이냐, 또는 단기냐, 장기냐. 이런 거에 구분이 모호해지는 이유는 최근에 순환 이민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순환 이민이 무엇일까요? Circular migration, 즉 이민이 돌고 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민이 왜 어떤 장소로 가서 그 장소에 계속 있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도는 현상이 왜 생길까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이때 옛날이 어느 정도의 옛날이냐?, 적어도 60년대, 80년대와 오늘날의 2000년대를 비교해볼까요?) 예전에는 한국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하면 집도 다 팔고 갔어요. 다시는 한국에 못 돌아올 것처럼 가족들하고 헤어지고 또는 친척들하고 헤어지고 미국으로 갔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2020년 또는 2010년 때에 한국 사람이 미국으로 간다. 또는 호주로 간다고 하면 미국에 도착했어요. 또는 호주에 지금 도착했어요. 80년대, 또는 60년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80년대와 2000년대 한국과 미국 사이에 비행기 값을 한번 생각해볼까요?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에는 저희 때에는 미국에서 공부가 끝날 때까지 우리 보통 사회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으려면 한 6년, 7년 걸렸거든요. 그 6, 7년 사이에 한국을 잠깐 방문한다?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왜? 그 당시 한국인의 소득 수준으로는 한국과 미국 사이를 왕복하는 비행기 값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80년대에 미국에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통신도 여러분, 스마트폰을 언제부터 쓰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손에 꼭 쥐고 계시는 그 스마트폰, 언제부터 쓰셨나요? 제가 80년대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스마트폰 당연히 없었죠. 그때 인터넷도 없었어요. 처음에 공부할 때 부모님께 편지를 보냈어요. 이메일도 당연히 없었죠. 그래서 어머님께 편지를 보내요. 가는데 일주일, 어머님이 보시고 그 편지에 답장을 써서 저한테 오는데 일주일. 굉장히 멀어요. 그런데 2000년대 지금 우리의 아이들, 미국에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죠. 많은 분이 미국에 자녀가 있는 경우, 방학 때마다 아이들이 들어온다고 해요. 왜? 지금 현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소득에 비해서 한국하고 미국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비행기 값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플러스, 요새는 저가 항공기도 많이 생겼어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으로 막 두들기면 굉장히 싼 저가 항공으로도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고요. 예전에 미국에 가신 분들 편지, 국제 전화도 있었어요. 그런데 가격이 엄청 비싸서 저도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면 부모님 받자마자 전화 요금 비싸다. 빨리 끊어라, 이 말씀밖에 안 하셨거든요. 지금 우리 국제 전화 어떤가요? 그냥 무료로 쓰잖아요. 전화만 무료로 하나요? 화면으로 화상 통화도 거의 무료로 하잖아요. 이런 교통, 통신의 변화, 저렴화, 그다음에 전 지구적인 어떤 세계화. 이런 걸로 미국에 계신 분들이 계속 한국 뉴스를 볼 수 있어요. 한국에 계신 가족과 화상 통화를 계속할 수 있어요. 미국에 계시지만 한국의 사정에 휩해요. 그러므로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구분이 모호해진 이유는 교통과 통신기술의 발달 영향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것이 다시 유입국, 송출국 그리고 이민자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단기 이민, 장기 이민의 구분이 오늘날 점차 모호해진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현상이 유입국, 송출국 그리고 이민자한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그 대답은) 초국가주의와 (탈국가주의)의 대두입니다. 사회과학에서는 초국가주의라는 말하고 탈국가주의라는 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초국가주의는 영어로 transnationalism이고, 탈국가주의는 (영어로) postnationalism입니다. 이때 탈국가주의란 국가를 넘어섰다는 것이고, 초국가주의는 trans-이니까 양다리를 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입국, 송출국,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이라면,) 한국과 미국에 양다리를 다 걸치고 있는 상태를 초국가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탈국가주의란 한국도 관계가 없고 미국도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EU 내에서는 독일 사람이 프랑스로 가서 일할 수 있고, 영국에 가서도 일할 수 있고 (이렇게 EU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므로 탈국가주의란 개념이 가능하지만, EU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아직 탈국가주의 개념까지 간 상황은 아니고, 미국과 영국에 또는 미국과 한국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초국가주의적 이민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것으로 본다면 디아스포라라는 개념 자체도 느낌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단기 이민과 장기 이민의 구분이 확실했던 옛날에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면 대표적인 예가 유대인인데요. 독일에서 추방을 당했다. 또는 옛날 스페인에서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해서 옛날에 러시아로 가게 돼요. 그 경우 이들은 다시는 자기가 살았던 스페인이라든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옛날의) 디아스포라는 슬픈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디아스포라, (예를 들어)중국 발전이, 중국이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동남아 화교들이 중국의 해안 도시에 공장을 많이 세우고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해서 그렇다고 들어보셨죠? 즉 화교는 중국의 경제 발전을 이끈 영웅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과거의 디아스포라, 즉 슬픈 존재로부터, 오늘날 굉장히 그 나라의 중요한 (긍정적인)존재로 디아스포라의 의미(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죠.

강의 소개 및 이민의 개념과 역사

1-4 전 지구적 이민의 역사

한국 사회와 이민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에서는 전 지구적 이민의 역사를 다루고자 합니다.

이민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답은 인류의 시작과 함께입니다. 지금 여기에 유튜브 사이트가 몇 개 뜨고 있을 텐데요. 이 사이트에 나와 있는 유튜브를 몇 개 보시고 여러분들이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이 유튜브들은 호모 사피엔스의 이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유튜브들에 의하면, 이들은 아프리카의 동쪽에서 출발하여 아프리카 대륙을 이동하다가 아주 옛날 (지구의) 해수면이 굉장히 낮아져서 아프리카에서 중동으로 가는 길이 즉 육로가 살짝 열렸을 때 아프리카에서 중동 쪽으로 호모 사피엔스의 집단이 나가게 되죠. 그래서 중동을 거쳐서 한 무리는 아시아 쪽으로 계속 이주하다가 오늘날의 인도네시아까지 열렸을 때 해수면이 매우 낮으니까 계속 육로로 그리고 뗏목을 타고 호주까지 갔다는 거죠. 또 한 무리의 호모 사피엔스들은 아시아 쪽에서 계속 (동북쪽으로) 올라가서 (해수면이 매우 낮았을 때) 육로로 미국(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들은 아메리카 원주민이 돼서 북아메리카의 서쪽의 해안을 따라 내려가서 남아메리카까지 내려갔다고 하지요. 결국 이러한 유튜브들이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은 뭐죠? 인류의 기원은 한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고 있는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등, 우리 이런 인종이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하기는 하지만 우리 이런 인종이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러므로 인류의 기원은 한 뿌리인데 우리가 이 fact 자체를 잊고 인종간 또는 종족간 우열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The Global Prehistory of human migration"이예요. 이 책은 2015년에 Peter Bellwood 박사님이 편집한 책인데요. 원래 이 책의 출발은 Immanuel Ness 박사님이 전 세계 여러 학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참여를 부탁하여 편집한 [The Encyclopedia of Human Migration] 책을 기반으로 출판한 것이예요. Immanuel Ness 박사님의 부탁으로 한국과 관계되는 몇 쪽지를 써서 참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Encyclopedia 가 다시 "The Global Prehistory of human migration"으로 나와 있어서, 이민의 전 지구적인 역사를 보시고 싶은 분들에게는 2015년 판을 추천합니다. 1991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알프스 지역에서 등산하던 한 등산객이 오래된 유해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은 무슨 살인 사건인가 또는 실종 사건인가 하면서, 그 유해를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국가에서 검사하는 기관으로 보냈죠. 그런데 추후 이 유해는 BC3300년 또는 3150년경, 지금으로 치면 거의 5000년 전의 사람임이 밝혀져요. 그 유해는 현재 이탈리아 볼차노의 고고학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유해 물론 주변에 있던 도구라든지 또는 씨앗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물학적, 고고학적 분석을 통해서 이 유해는 구석기 시대의 사람이 알프스 지역의 어느 지역으로 이주했는지를 분석한 결과들도 함께 전시되어 있다고 해요. 그렇게 밝혀진 사실은 이 사람은 당시 알프스의 여러 지역을 다니다가 그 산맥을 넘다가 사망했고 그런데 빙하 속에 묻혀 있어서 5000년이 보존이 된 거죠. 그러다가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1991년에 발견된 것이죠. 즉 이렇게 고고학이나 (유해)관련 자료분석을 통해서 예전부터의 이주에 대한 것들이 밝혀지고 있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주가 이민으로 바뀐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이주가 이민으로 바뀌었다, 무슨 말이죠? 이주는 국내 이주, 국제 이주를 다 포함하는 용어이고요. 이민은 국경을 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질문을 다른 말로 바꾸면 국경이나 국가가 언제 생겼느냐는 질문인 거죠.

국가 또는 국경이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서양에서는 근대국가의 시작을 미국 혁명 또는 프랑스 혁명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이때 서양에서는, 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즉, 서양과 동양은 근대라는 개념이 매우 달라요. 우선 근대라는 말은 영어로는 'modern'입니다.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근대는 현대보다는 조금 전인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근대와 현대를 다 함께 'modern'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양에서는 근대 국가 또는 근대라는 개념이 미국 혁명 1775년에 시작해서 1783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사건이니까 18세기 후반, 프랑스 혁명 1789년 이 역시 18세기 후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적으로는 신분 제도가 무너지고 계급 제도로 바뀐 시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프랑스 혁명이죠. 프랑스 혁명은 왕정을 끝내고 공화정으로 넘어갔던 시기니까요. 경제적으로는 봉건제도가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탄생하는 시점, 물론 영국으로 보면 17세기, 유럽 본토로 넘어오면 18세기, 독일로 가면 19세기로, 국가에 따라 (자본주의 탄생) 시점이 달라질 수는 있죠. 가장 빠른 영국이 17세기라고 본다면 말이죠. 철학과 문화적으로는 종교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으로 변한 르네상스 또는 종교 개혁 시기를 얘기하기도 하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16세기 루터의 종교 개혁 시기로 보기도 해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유럽의 모든 근대와 아시아 즉 중국과 한국의 근대가 시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서양에서는 이러한 시기구분이 잘돼요. 물론 서양에서 이러한 분류를 먼저 했기 때문이겠죠. 즉 고대란-그리스·로마 시대, 중세란-장원이 있었던 시대 모던이란-프랑스혁명 이후로, 명확하게 잘 구분돼요.

그런데 아시아에서는 고대는 명확해요. 그런데 언제부터를 아시아를 모던이라고 볼까요? 이게 조금 모호해요.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전 지구적 이민의 변화란, 첫째는 즉 가장 먼저는 대륙 간 이주죠. 이는 아프리카로부터 나와서 중동으로 해서 아시아 유럽으로 가는 대륙 간 이주 그다음 신대륙으로의 이민, 즉 유럽 사람들이 대규모로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남아메리카로 갔던 이민. 최근에는 제3세계 사람들이 미국, 호주, 뉴질랜드 또는 유럽 등 선진국으로 가는 이민 (전 지구적 이민이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대륙 간 이주는 당시는 아직 국가가 생기기 전이었으니, 우리가 이민이라는 말을 좀 쓰기 어렵죠. 대륙 간 이주란 고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즉 아프리카에서 나와서 아시아로 또는 호주로 간다든지, 아프리카에서 나와서 유라시아, 즉 유럽으로 간다든지. 그러므로 대륙 간 이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Out of Africa 사건이겠죠. 어떤 계기로 “아프리카 대륙을 벗어나게 되었다”는 자체가 중요한 사건이에요.

신대륙으로의 이민이란 신대륙 발견 이후 식민주의가 생기게 되고 제국주의가 생기게 되면서 유럽인이 대량으로 이민하게 되고 노예 이민이 또 대량으로 이민하게 되고 노예이민도 대량으로 이루어진 거죠. 최근에는 제3세계 사람들이 선진국으로 가는 이민.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또는 1960년대 이후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유럽으로 간다든지, 아시아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는 현상을 남북 이민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까 대륙간 이주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Out of Africa 사건이라고 했죠. 그 이후의 전세계적인 이민의 역사나 전지구적 이민에 있어서 ‘이민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사람마다 여러 가지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 이민의 역사에 또는 이민의 역사를 변화시킨 가장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콜럼버스란 이름을 다 들어보셨죠?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은 몇 년의 사건이죠? 1492년 15세기 말의 사건이네요. 콜럼버스가 서쪽으로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콜럼버스는 왜 서쪽으로 갔을까요?

잠깐 여기서 콜럼버스 어느 나라의 사람인가요? 맞아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탈리아가 아니라) 스페인의 지원을 받아서 스페인에서 출발했겠죠. 어디로 가요? 서쪽으로 가요. 스페인에서 서쪽으로 가면 어디예요? 대서양을 건넜다는 얘기에요. 여러분들 혹시 콜럼버스가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과 굉장히 좋아했던 책이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이라는 거 아시나요?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은 13세기~14세기 초반까지의 사람이에요. 1254년부터 1324년까지의 사람이거든요.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은 어떤 책이지요? 마르코 폴로가 아버지와 삼촌, 즉 아버지의 형제와 함께 어디에서 출발해요? (마르코 폴로는) 이탈리아 베네치아 사람이에요. 오늘날의 베니스에서 출발해서 중국의 원나라까지 갔어요. 중국의 원나라에서 거의 20년 동안 살다가 다시 베네치아로 돌아왔죠.

그 당시 마르코 폴로 일행이 갔던 길은 어느 쪽인가요? 이탈리아에서부터 동쪽으로, 즉 이탈리아에서 어디로 갔어요? 오늘날의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건너서 인도 위를 해서 중국의 원나라까지 동쪽으로 가는 육로가 있었어요. 육로는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왜 콜럼버스는 그 있는 말을 타고, 낙타를 타고 가는 육로가 있음에도, 이러한 동쪽으로 가는 길을 포기하고 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서쪽으로 갔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은 무엇이죠? 혹시 (정답을) 맞춘 사람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엇을 떠올리면 정답인가요? 오스만 제국, 오스만 제국이 어디를 무너뜨려요? 동로마를 무너뜨리죠. 당시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어디였나요? 콘스탄티노플, 즉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함락당하면서 콘스탄티노플이 이름도 사라져요. 콘스탄티노플의 오늘의 (도시) 이름은 무엇인가요? 이스탄불(입니다), 이스탄불은 (현재)어디의 나라인가요? 터키죠. 터키도 최근에 이름을 바꿨어요, 터키라는 말이 싫어서. 우리는 그걸 존중해 줘야죠.

그럼 콘스탄티노플 또는 이스탄불이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점령당했다. 그럼 이슬람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을 차지했다는 건 뭐죠? 지중해에 있는 나라들 소위 이탈리아와 유럽에서 그동안 중국으로부터 또는 인도로부터 물건을 가져갔던 (육로의) 길이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막혔다는 것을 얘기하죠. 즉 그러므로 길이 막혔어요. 그쪽으로는 물건이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가 방금 얘기한 콜럼버스는 상인이예요. 콜럼버스는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고 나서 거의 40년, (정확히는 39년) 후에 여기저기 왕들을 찾아가면서 내가 동쪽 길이 막혔으니깐 서쪽 길을 낼 수 있다, 찾을 수 있다, 나를 지원해 달라. 나한테 배와 사람들을 주면 내가 서쪽으로 가서 중국, (물론 원래의 목적지는 인도였다고 합니다.) 인도의 향료라든지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오겠다"며 여러 왕들을 찾아가겠다고 그래요.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이탈리아의 왕을 제일 먼저 찾아갔을 거고요.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이탈리아의 왕을 제일 먼저 찾아갔을 거고요. 육지로는 갈 수 있지만 바다로는 갈 수 없다.

즉 바다로 멀리 나가면 절벽이 돼서 결국은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콜럼버스는 지구가 둥글다, 바다로도 길이 있을 거라고 믿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 왕도 안 된다, 독일의 왕도 안 된다, 프랑스의 왕도 안 된다, 스페인의 왕도 처음에는 안 된다 했대요. 그런데 몇 번씩 찾아가니까 스페인의 여왕이 승낙을 하죠.

그래서 콜럼버스한테 배하고 그 선원들을 지원해주고 인도로부터 가져오는 물건을 50% (반 반), 나누기로 했죠. 콜럼버스는 1492년에 어디에 도착했나요? 미국과 쿠바 사이에 있는 바하마 제도에 도착했어요. 도착했을 때 콜럼버스는 이 지역이 인도에 있는 섬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원주민과), 쿠바와 나중 몇 차 원정 시에 발견한 남쪽의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원주민과), 쿠바와 나중 몇 차 원정 시에 발견한 남쪽의 왜냐하면 콜럼버스 일행은 거기가 인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날 남아메리카 원주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인디언이라고 부른 거죠.

어쨌건 저는 전 지구적 이민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은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마르코 폴로가 간 경로하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갔던 경로하고 비교해 보시면 매우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므로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과 관련된 유튜브, 영화 등 동영상과 또는 마르코 폴로와 관계된 영화라든지 동영상을 찾아서 보시면 신대륙 발견과 동양과 서양의 육로와 해로(바닷길)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보시면 마르코 폴로 일행의 여행 경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서 출발해서 중동을 거쳐서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원나라까지 갔죠. 당시 중국의 원나라의 베이징에서 (마르코 폴로 일행은) 매우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마르코 폴로가 원나라 황제로부터 굉장히 사랑을 받아서 미얀마까지 현지조사를 다녀왔다는 (남겨진)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마르코 폴로 일행은) 원나라의 베이징에서 출발하여 오늘날의 미얀마까지 갔다가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20년 가까이 중국 원나라에 있다가 (베네치아로) 돌아올 때에는 미얀마에서 중국의 원나라의 베이징으로 왔다가 항저우를 거쳐서 중국의 바닷길로 동남아시아, 인도 밑을 지나서 다시 중동과 콘스탄티노플을 거쳐서 베네치아로 오게 되죠.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 이민의 전 지구적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 미친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미친 영향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그 사실 이후로 제국주의가 시작되고 식민주의가 시작이 돼요. 콜럼버스한테 배를 대고 선원을 댄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스페인의 여왕이라 그랬죠.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인데요. 여러분들 이사벨라 여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인터넷 찾아보세요. 이사벨라 여왕은 스페인 역사에서 매우 유명한 여왕이에요.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후 스페인이 (콜롬버스 원정) 투자를 했기 때문에 남아메리카로부터 은 등 광산에서 나오는 자원들을 다 스페인으로 가져갈 수 있어서 이후 ‘스페인의 시대’가 열리게 돼요. 즉 ‘스페인 제국주의’의 시작입니다. 나중에는 네덜란드와 영국도 뛰어들고, 결국 영국과 스페인의 싸움에서 스페인이 졌죠. 그 이후에는 영국의 제국주의 시대가 열리게 되죠. 그러한 제국주의 또는 식민주의와 더불어 유럽인의 신대륙 이민도 열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중·고등학교에서 배울 때는 1620년 즉 17세기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의 뉴잉글랜드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민 갔다. 고 얘기도 하고요. 영국,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등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도 하고, 남아메리카에 있는 브라질, 아르헨티나로 가기도 하고 우리 호주라고 부르는 오스트레일리아로도 가고 뉴질랜드 등으로 대량으로 아주 이민을 가게 되죠. 이는 그 당시 유럽의 인구증가 때문이기도 합니다. 남아메리카로부터 매우 많은 자원이 유럽으로 가면서 제국주의와 함께 자본주의가 시작되면서, 생산이 매우 증가하자, 유럽이 갑자기 너무 잘살게 되는 (산업혁명)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세기, 19세기를 거치면서 식민주의와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대규모 이민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신대륙 발견 이후 전 지구적 이민의 증가를 통계로 보여준 학자가 있는데요. Yaukey라는 사람이 쓴 책의 264~267쪽까지의 내용을 보면 16세기에서 19세기 말까지 유럽에서 북미로 4,500만이 갔다고 해요. (현재) 한국 인구보다 약간 작은 규모입니다. 유럽에서 남아메리카와 중앙아메리카로는 약 2,000만명이 이민 가서 현재 약 5,000만명에 해당하는 커뮤니티의 시작이 됐다고 하고요. (유럽에서) 호주로 1,700만이 이주했다고 해요. 16세기에서 19세기 사이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끌려)간 노예들의 수는 1,5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당시는 아시아 내에서도 인구 이동이 있었는데 중국에서 해외로, 약 1,000만 명의 중국인들이 동남아시아로 이민을 갔고요. 인도에서 스리랑카, 말레이시아로 약 400만 명 정도의 해외 인도인이 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드디어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이민의 시기도 다시 열리게 되는 거죠.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특히 1960년대에 전 세계적인 호황기에 유럽으로 가는 사람들 또는 1970년대와 80년대에 중동의 건설 현장으로 가는 사람들, 1965년 이후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은 전통 이민국으로 가는 그 이민자들, 1985년 이후는 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변화들이 보이게 되죠.

여러분들에게 이민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영화를 하나 소개하자면 The Immigrants, 이민자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2013년에 제작되고 한국에서는 2015년에 개봉된 영화예요. 이 영화를 보시면 유럽인들이 당시 미국으로 이민 가는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강의 소개 및 이민의 개념과 역사

1-5 아시아 지역 이민의 역사

한국 사회와 이민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시간은 아시아 지역의 이민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근대와 아시아의 근대가 시기가 같으냐 아니냐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죠. 유럽의 시기 구분은 딱딱 명확하게 잘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고대가 있고 언제부터 중세이고 적어도 근대는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근대 국가가 시작한 시기라고 했죠. 그리고 이러한 근대 국가의 시작을 열게 된 중요한 사건이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그리고 (그 이후의) 식민주의, 제국주의라고도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아시아는 중국 그리고 그 주변의 국가들이 오랜 기간 동안 고대와 또는 중세에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아시아의 근대(modern)은 강요된 근대라고 할 수 있죠. 또는 강요된 개항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아요 아시아인의 이주의 역사 또는 아시아 지역의 이민의 역사는 일단 고대는 (서양과) 큰 차이가 없으니까 중세부터만 살펴보자면 두 개의 사건만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해요.

두 개의 사건 중의 첫 번째는 13세기 초 몽골 제국의 시대예요. 몽골 제국 하면 1206년 그러니까 13세기가 막 시작되면서 칭기즈칸 기억나시죠? 그래서 칭기즈칸이 여러 부족들을 통일해서 통일제국을 만들고 중국의 금나라를 위협하게 되고요. 1227년에 칭기즈칸이 사망을 하게 되는데 1227년에서 1241년 사이에 칭기즈칸의 아들들이 금나라를 멸망시키고 발트해, 발트해가 어디에 있죠? 저기 스웨덴, 핀란드 거기까지예요. 발트해까지 진격해 갔다는 거죠. 그래서 칭기즈칸과 그 아들들이,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러시아 남쪽까지 그다음에 폴란드, 헝가리, 즉 오늘날의 동유럽까지를 다 침략해서 점령한 사건이죠. 그래서 몽골제국, 로마제국 다 제국이잖아요. (몽골제국은) 지금까지 있었던 제국 중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제국인 거죠. 나중에는 중국의 금나라도 멸망시키고 해서 드디어 원나라를 건설하게 되죠.

그래서 몽골 제국의 유럽 원정은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요. 몽골의 칭기즈칸이 중부 아시아를 넘어서 서방으로 이동함으로써 유럽 역사에 굉장히 영향을 끼쳤죠. 그리고 금나라를 정복해서 원나라도 세우지만 당시 우리나라는, 한국은 고려 시대였는데 고려도 침입을 해요. 그래서 고려 때 고려의 수도가 개경이었는데, 개경에서 강화도로 (고려의) 수도를 옮기게 돼요. 그런데 개경에서 강화도로 천도한 기간이 1232년에서 1270년까지이므로 거의 40년 가까이 개경을 수도로 못 사용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몽골 제국 말고 아시아의 중세에 해당하는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은 15세기 중국 정화의 원정이에요. 정화의 원정은 1405년부터 1433년이니까 15세기 전반부에 약 7회에 걸쳐서 아주 엄청난 대원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는 명나라 시절이죠. 원나라가 멸망하고 그 후에 세운 나라가 명나라인데 명나라의 영락제 시대 때 환관 정화가 지휘를 해서 남중국해를 넘어서 인도양을 건너서 인도까지는 3차에 걸친 원정에서 갔고요. 4차의 원정에서 페르시아만 중동까지 갔고요. 그다음에 5차, 6차의 원정에서는 오늘날의 아프리카까지 가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소말리아와 케냐의 해안과 아프리카 대륙까지도 가게 돼요. 그래서 당시 바다에 있었던 해적들을 소탕했고요. (이 원정으로) 주위의 국가들, (예를 들어) 동남아 국가라든지, 인도라든지 저 멀리 중동의 국가들한테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도록 해요.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서 정화의 원정로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를 보면) 꽤 멀리까지 가서 난징, 항저우, 동남아시아의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를 거쳐서 아프리카의 오늘날의 모가디슈, 마린디까지 갔던 그런 원정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질문은 정화의 원정도 엄청난 원정이잖아요. 그런데 정화의 원정은 왜 콜럼버스의 원정처럼 세계사를 바꿀 정도의 큰 역사적 사건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즉, 정화의 원정과 콜럼버스의 원정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정화의 원정이 규모가 훨씬 커요. 예를 들면 정화의 원정은 콜럼버스의 원정보다 한 70년, 80년 먼저의 사건이에요. 한 80년 먼저인데 정화는 7차례에 걸쳐서 원정을 했고요. 콜럼버스는 4차에 걸쳐서 원정을 했어요. 저는 중국의 어떤 도시에 가면 정화의 원정을 보여주는 박물관이 있다고 해요. 저는 거기를 가보지는 못하고 그냥 들었지만, 그 곳에는 정화의 원정과 콜럼버스의 원정을 비교해서 그 당시의 배를 비율로 줄여서 보여주는데 정화의 원정에 쓰인 배가 훨씬 크고 훨씬 많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정화는 7차에 걸친 원정을 통해서 300척의 함선을 이끌고 선원들의 규모도 28,000명이 넘었다고 해요. 콜럼버스는 물론 처음 출발은 3척의 배였지만 마지막에 제일 많았던 때도 17척의 배가 다였고요. 120명의 선원이었거나 가장 많았을 때도 1,500명의 선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규모로 보면 정화의 원정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콜럼버스의 원정은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 이후에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이끄는 중요한 사건이 됐는데 정화의 원정은 그냥 역사 속에 묻혀요. 주인공이 누구냐, 콜럼버스는 이탈리아 사람이었고요. 정화라는 사람은 중국 명나라의 사람이지만 중동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그들(중동계)을 색목인으로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환관이 됐죠. 비단과 도자기 등을 대량으로 (중국에서) 아프리카까지 가져갔고 아프리카에서는 기린이라든지, 사자라든지 이런 진귀한 동물들과 아라비아의 낙타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국으로 가지고 와요.

그런데 계속 되풀이해서 묻지만, 정화의 원정이 이렇게 규모가 컸으면서도 역사를 바꿀 만큼 중요한 사건이 안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인류를 변화시킨 중요한 발명품들 예를 들면 화약이라든지, 총이라든지 또는 금속 활자 인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발명은 (거의 다) 중국에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중국은 발명해서 잠깐 쓰고 끝나요. 예를 들면 화약이 발명되었다. 그러면 명나라가 원나라를 습격(정복)할 때 화약을 썼다 그러죠. 그러고는 일단 명나라가 (건립)되면 더 이상 개발이 안 되고 그냥 끝나요. 그런데 그 화약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점점 개량되고 혁신이 되는 거예요. 총도 중국에서 먼저 발명됐는데 거리가 어느 정도(까지) 그래서 한 번 쓰고 딱 끝나요. 그런데 그 총이 유럽으로 건너가서는 점점 총알이 나가는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죠.

그럼 유럽에서는 그렇게 개량과 혁신이 이루어졌는데 중국에서는 그냥 발명만 하고 개량과 혁신이 안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것도 제 생각이예요. 학자마다 다르고 저는 역사학자가 아니라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당시) 중국은 너무 대제국이어서 그냥 아시아 역사하면 중국 그리고 주변에 변방국밖에 없었어요. 서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중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예를 들어 중국의 황제가, 즉 영락제가 죽은 이후에 홍희제가 더 이상 우리 바닷길 갈 거 없다, 다른 나라에서 볼 거 하나도 없다, no하면 (다) 끝나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바다로 나가는 배들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돛대가 두 개 이상인 배를 만들지 못하게 해요. 항해 시대가 끝난 거죠. 근데 유럽은 (세력이)비슷비슷한 여러 왕국이 있었어요.

만약에 콜럼버스가 영락제 같은 그런 대항제한테 가서 한 번 no하면 끝나는 시대였다면 콜럼버스로 신대륙을 발견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탈리아 왕이 no하면 독일 왕한테 가고, 독일 왕이 no하면 프랑스에 가고, 프랑스가 no하니까 스페인에 가서 결국은 따냈잖아요. 이런 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은) 비슷비슷한 여러 왕국이 서로 경쟁하고 전쟁하면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중국은 아시아에서는, 당시에 동양에서는 중국이 이미 너무 크고 다른 나라들과 파워, 게임이 잘 안되어.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되므로 어떤 발명은 먼저 있었을 수 있었으나 개량과 혁신이 뒤따르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식민주의는 유럽에 의해서 당하는 거죠. 유럽에 의한 식민지를 당하게 됐죠. 그래서 아시아와 여러 항구들이 개항하도록 압박을 받았는데 예를 들면 중국의 마카오는 포르투갈에 의해서, 마닐라의 항구는 스페인에 의해서 아편전쟁 여러분들 (이름) 인터넷으로 찾아보세요. 영국이 중국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물건을 가져갔는데 영국 물건이 중국에서 팔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역)적자가 나니까 아편을 판 거죠. 그래서 그 아편전쟁 이후 중국의 홍콩이 영국에 귀속이 되죠, 그래서 유럽의 여러 식민 국가들이 아시아의 여러 지역을 차지하게 돼요. 예를 들면 포르투갈이 마카오를 토는 티모르를, 영국이 홍콩을, 인도, 말레이시아 (그 당시 말레이시아에는 싱가포르, 브루나이가 있었죠.)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미얀마 등 많은 나라를 식민지화했구요. 프랑스는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등을 식민지 했죠.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를 식민지 했고 아까 말씀드린 스페인이 필리핀을 식민지화했다가 1898년 스페인 함대와 미국 함대가 싸워서 미국이 이겼죠.

그래서 1898년 이후에는 필리핀을 미국이 식민 지배하게 되죠. 뒤늦게 일본도 유럽을 배워서 1895년부터 대만을 식민지화했고요. 한국을 1910년부터 식민지화했고요. 중국의 (모든 지역을) 다 하지는 못했지만, 중일전쟁에서 이겨서 만주 지역을 1931년부터 식민지화했죠. 유럽인이 신대륙으로 이주하거나 또는 노예들이 강제 이민을 당했다면 식민주의 시대의 아시아인들은 부자유계약노동자로 끌려가게 돼요. 또는 가게 돼요. 이거는 반강제라고 해도 돼요.

부자유계약노동자란 뭐냐면 indentured workers인데 여러분들 쿨리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보통 중국 사람들이 아주 힘든 일, 고역에 처했다. 고역, 고역 이게 이제 쿨리라는 (중국)말의 기원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부자유계약노동자는 당시 중국이나 일본에서 또는 한국 사람도 하와이의 사탕수수밭으로 갔는데, 그런데 처음 5년간 근데 갈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주는 중개자가 배편이라든지 또는 생활비를 미리 주어 (이름) 당겨서 쓰고, 5년은 무조건 노예처럼 일하고 그런데 5년간 일해주면 자유를 얻는 거죠. 그래서 노예하고 자발적 이민자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즉 5년간은 노예처럼, 5년 후에는 그 계약에서 풀려서 자유노동자가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부자유계약노동자라고 하고, 아시아인들이 (그렇게) 일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중국인은 쿨리로 이런 부자유계약노동자로 (많이) 미국이나 호주로 가게 돼요.

그러자 (이민유입국에서는) 당시 아시아인 이주 금지 법안, 즉 Exclusion Act라고 불리우는 이러한 배제법안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20세기 초반이 되면 드디어 전통적 이민 국가에서 이민 들어오는 것을 막는 거, 그런 것들이 생겨서 아시아 사람들이 외부로의 이민은 많이 줄어들었고요. 아시아 내부에서의 이동은 계속되었죠. 중국 사람들이 여전히 동남아시아 쪽으로 많이 나가고 그런 이동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전후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끝나고 아시아 국가들이 즉 식민지였던 상태였던 국가들은 독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독립 이후에 이민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전통 이민국으로의 이민이 있고, 선발 이민 국가로의 이민이 있고, 중동 지역으로의 계약 노동 이민이 있고 후발 이민국으로의 이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는 전통 이민 국가라든지, 선발 이민 국가, 중동 지역으로의 이민을 한번 살펴볼까요?

전통 이민국으로의 이민은 아시아 사람들이 주로 1960년대 이후에 많이 가는데요. 중요한 질문은 왜 60년대 이후에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아시아 사람들이 이민을 가게 됐느냐는 거죠. 예를 들면 왜 (하필) 1960년대냐, 예를 들면 왜 (하필) 1960년대라고 생각하세요? (그 대답은) 캐나다는 1962년 또는 1976년에, 미국은 1965년, 호주는 1966년 또는 1973년에 아시아 사람들의 이민을 막는 야까 얘기한 Exclusion Act를 폐기하게 돼요. 그런데 왜 하필 60년대 또는 70년대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전 지구적으로 1960년대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이를 “1960s” 그래서 “60년대의 대사건”이라고 하고요.

독일에서는 68운동이라고 부르는 사건이기도 해요. 이는 이 당시에 인권운동이 굉장히 활발해져서 어떤 종족을 또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은 안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생겼겠죠. 그런데 그 배경으로는 60년대가 경제적 호황기이기 때문에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서 (배제정책) 폐지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해석하셔도 돼요. 그래서 아시아의 이민자들은 대부분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전통적 이민 국가로 이민을 갔다면 그 당시 80년대 말까지는 냉전 시기였기 때문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사람들은 소련이라든지 동독으로 (즉 냉전 시기이므로) 사회주의 국가 내에서의 이민 또는 자본주의 국가 내에서 이민 이렇게 나누어지겠죠.

아시아 지역에서 북미, 오세아니아로의 이주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전에 제가 얘기한 우리(수업의) 중요한 참고 도서로서 스티븐 카슬 얘기를 했었죠. 2013년 그 책에 의하면 아시아 사람들이 미국, 캐나다, 호주 등으로 이민을 매우 많이 가게 됐는데 그 이유는 어떤 사람이 먼저 이민을 가면 그다음 사람들이 가족 재결합 조항으로 미국과 호주 등으로 이런 국가들이 미리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대규모의 연쇄 이동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고요. 이민자의 출신국이 미국과 호주 이런 데서 점점 다양해졌는데 (특히) 1970년대, 80년대면 또 베트남 전쟁관련 하여 베트남과 인도차이나 난민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런데 (이후) 많은 이민 유입국들은 즉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모두 숙련이민자, 사업이민자, 고급 기술이민자 이민을 선호하게 되죠. 선발 이민 국가는 유럽으로 가는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유럽으로는 1960년대에 초청 노동자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당시) 영국, 프랑스, 독일에는 초청 노동자 제도도 있었는데 아시아 사람들은 초청 노동자로 가기보다는 유럽의 국가들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식민지였던 제국으로 '식민노동자'로 갔죠. 그러므로 아무런 연고가 없이 guest worker로 가는 사람들을 초청 노동자라고 한다면 과거의 역사적으로 식민지 경험이 있어서 가는 사람들은 식민 노동자로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피식민국가에서 식민국가로 가는 것, 예를 들면 홍콩과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으니까 영어를 어느 정도 알 거 아니에요, 식민지 기간 동안(배워서) 그래서 홍콩인과 인도인은 (주로) 영국으로, 베트남 사람들은 프랑스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네덜란드로 (이민)가는 것, 그리고 필리핀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가는 것 이런 거는 다 식민 노동자 이동(이민)이라고 부르는 거죠. 서유럽에서 식민 노동자와 초청 노동자의 지위가 처음에는 guest worker보다는 식민 노동자는 거의 준 시민에 가깝게 대우가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식민노동자와 초청 노동자의 지위가 (비슷해졌습니다.) 초청 노동자의 열악한 지위는 높아지고 식민 노동자의 좋았던 지위는 낮아지고 해서 결국은 다 (똑같은)이민 노동자로 지위가 낮아졌다고 스티븐 카슬 교수는 그 책에서 설명하고 계세요.

이제 중동으로의 계약 노동 이민이 있는데요. 1973년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는 중동에 대규모 건설 붐이 일어.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그쪽으로 가게 돼요. 나중에는 규모가 축소됐지만 다양한, (즉 건설부분 말고 다양한)건설 부분 말고 다양한 직종으로의 이주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므로 1973년 석유 위기 이후로 급속히 확대되고 점점 부유해진 중동의 산유국들은 처음에는 이슬람 종교를 믿는 인도라든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런 데서 먼저 노동자를 데려가다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종교와 상관없이 필리핀, 태국, 한국에서도 노동자를 데려가요. 그래서 아시아의 많은 지역으로부터 이민자를 데려가죠.

85년 이후부터는 중동의 건설 부분이 일시적으로 (건설)붐이 꺼지면서 또는 (이미)건설할 걸 얼추 다 한 거죠. 그래서 계약 노동자가 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대신 서비스 산업 쪽으로 이민이 더 많아지게 돼요. 어떤 서비스 업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맞아요. 가사 서비스업 또는 간병 서비스업(입니다.) 그러므로 중동으로 가는 아시아 여성 이민자가 크게 증가하게 되죠. 그런데 중동 지역 이민 노동자의 문제는 인권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Hollifield 같은 유명한 이민 학자는 중동 지역을 이민 국가, 즉 이민 유입국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렇게 (이민국가로)분류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민국가가 되려면 그 나라가 해외 이민자를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그 해외 이민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인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사회가 민주적으로 인권을 잘 (존중) 유지해 줄 때만 이민국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나 아직도 중동 지역의 이민 노동자들은 여권이 압류되거나, 또는 취업비자를 매매한다거나, 가족을 전혀 데려올 수 없다거나, 숙소를 격리한다든지 그런 (인권관련) 어려움이 많아서, 중동의 이민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강의 소개 및 이민의 개념과 역사

1-6 요약 및 정리

한국 사회와 이민 1주 차 수업은 강의 소개 및 이민의 개념과 역사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오늘 수업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 수업의 목표는 한국 사회와 이민이라는 본 과목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고, 이 과목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내용에 대해) 기초 수업이었습니다.

첫 시간에는 과목소개와 목표를 다루었는데 본 과목의 목표는 한국사회로 들어오는 이민과 이민 정책 변화를 통해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거였습니다. (즉 본 과목은)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의 세 가지 흐름인 노동 이민, 동포의 귀환 이민, 결혼 이민에 초점을 맞춰서 각각의 역사, 현황 그리고 추이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노동 이민, 동포 이민, 결혼 이민이라는 세 유형의 이민을 향후 글로벌 관점에서 비교하고자 합니다. 이때 글로벌 관점이란, 다시 서양의 관점과 동아시아적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유럽 등 서양과 일본과 대만 등 동아시아와 한국의 이민 현상을 앞으로 우리는 비교할 것인데 이는 한국 이민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이민이란 무엇인가, 즉 이민의 개념을 다루었습니다. 이주의 기준은 특정 시점, 특정 장소에서 어떤 경계, 즉 지역적 경계를 넘어서 거주지를 바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경계를 넘지 않은 이동은 우리 그냥 통상 이동 또는 이사라고 부르죠. 한국어에서 이주라는 용어와 이민이라는 용어를 수업에서 구분하였습니다. 이주라는 한국어 용어가 훨씬 더 큰 개념이어서 이주라는 용어는 국내 이주와 국제 이주를 다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국내 이주, internal migration과 국제 이주인 international migration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이때 국제 이주를 우리는 이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한국어에서의 이주와 이민의 차이는 이주가 훨씬 큰 개념이고, 이민은 이주 안에 들어가는 국제이주만을 지칭하는 개념입니다.

이민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체류 기간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었죠. 그래서 이민으로 간주되는 최소한의 체류 기간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UN에서는 그동안 1년 이상인 경우를 장기 이민이라고 하고, 3개월에서 1년 미만은 단기 이민이라고 구분하면서도 통상 우리가 이민이라고 했을 때는 1년 이상 거주 국가를 바꾼 경우를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OECD 쪽에서 국가 간의 통계를 비교하다 보니까 국가들마다 체류 기간을 너무나 다르게 기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당시의 통계를 가지고 국제 비교를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OECD는 약 2006년경부터 국제 비교가 가능하도록 이민 통계를 표준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OECD의 고민은 장기 이민자 통계에서 이것들을 다 표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였습시다.) 그래서 나라마다 즉 어떤 나라는 유학생 통계를 넣기도 하므로, (향후 이민통계에는) 유학생 통계는 제외하기로 하고 장기 이민자의 기준을 체류기간이 아니라, 체류 권리로 잡도록 OECD는 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이민자의 유형과 단계를 다루었는데, 이민 또는 이민자의 유형은 원인에 따라서도 나누었고 동기에 따라서도 나눴죠. 그런데 이런 유형 구분에 문제점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점이 뭐였죠? (그 대답은) 원인으로 나누었을 때의 강제 이민, 자발적 이민은 그래도 괜찮은데 동기로 나누었을 때 경제적 이민, 정치적 이민, 종교적 이민, 사회적 이민, 문화적 이민이라는 구분이 어떤 하나의 동기로만 이동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즉 경제적인 목적으로 이민을 가면서도 사회적인 이유나 문화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종교적인 이유로 이민을 가면서도 또 경제적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의 동기가 단 하나가 아니라 점점 모호해지고 점점 더 복합적으로 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민의 유형을 하다 보니까 용어로 외국인, 내국인, 이민자, 국민이라는 개념을 구분했구요. 그런 개념의 구분과 더불어서 '영주권자'와 '귀화자'라는 용어, 그다음에 우리나라 내에서 이민자냐, 국민이냐, 영주권자라는 용어를 해외에 있는 (이민자의) 경우로 살펴봤을 때에는 해외한인이라는 용어도 있을 거고 우리나라 안에서의 있는 '영주권자'에 해당하는 용어를 (해외에서는) 한국 국적을 가진 미국내 영주권자를 의미하는 용어인 'ethnizen'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의 귀화자는 미국이라는 해외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한국계인데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므로 외국적 동포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민의 최근 변화는 유형별과 단계별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어서 단기 이민이나, 장기 이민이냐라는 구분이 있기는 하지만 단기 이민자가 장기 이민자로 변하기도 하므로 그 구분 자체가 그렇게 분명하지는 않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변화가) 유입국과 송출국 그리고 이민자에게 미치는 그 영향은 오늘날에는 초국가주의가 대두하고 있죠. 그다음으로 디아스포라의 의미도 변화했다는 것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전 지구적 이민의 역사를 다루었죠. 호모사피엔스의 이주로부터 이주가 이민으로 바뀐 시기, 즉 국경이 언제 생겼느냐. 또는 국가라는 개념은 언제부터 생겼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유럽에서 이야기하는 근대와 아시아, 중국 또는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근대의 시기가 같지 않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전 지구적 이민의 변화는 호모사피엔스의 대륙 간 이주, 18, 19세기 신대륙으로의 이민. 그다음 오늘날 제3세계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오늘날의 이민까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저는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지구적 이민에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인데요. 그것에 대해 수업을 하면서 콜럼버스가 당시 이미 알려졌던 육로, 즉 동쪽으로 가는 대신 서쪽으로 간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수업했죠.

다섯 번째 시간에는 아시아 지역의 이민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유럽의 근대와 아시아의 근대가 달랐다, 즉 유럽의 근대는 프랑스 혁명부터 이야기하는데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후 식민주의, 제국주의를 거치면서 아시아로 유럽 사람들이 오게 되죠. 그래서 아시아는 오랜 기간 동안 고대와 중세에 머물렀는데 서양의 배들이 아시아로 오면서, 즉 아시아의 항구에 대한, 개항 압박과 요구를 하면서 아시아의 근대는 서양의 식민주의에 의해 강요된 근대였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한편, 콜럼버스의 원정보다 훨씬 빠르게, 거의 80년이나 전에 정화의 원정이 있었는데 정화의 원정은 세계사를 바꿀 정도의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안 된 이유도 살펴보았죠. 그래서 (여러분께) 나중에 시간들이 있으시면 정화의 원정과 콜럼버스의 원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비교해 보시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후 식민주의와 제국주의가 확대되었는데요. 아시아의 여러 지역들이 식민지가 되었고요. 그다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야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독립해서 아시아 국가의 사람들이 전통 이민 국가 또는 선발 이민 국가 그리고 중동으로 계약 이민을 나갔음도 살펴보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까지 아시아 지역의 이민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변화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현상은 언제부터 왜 나타났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다음 주 수업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Lecture

Lecture introduction and the concept and history of migration

1-1 Course introduction and objectives

Hello, everyone. This is Professor Hye-Kyung Lee, who is in charge of the 'Korean Society and Migration' course.

In this today's lecture of the first week, I will introduce the course 'Korean Society and Migration' and introduce the concept and history of migration. I have been active in various committees such as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Ministry of Justice,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n the meantime, I have been doing a number of studies on migration on topics such as globalization and migration in Korea, migration policy, social integration policy, feminization of migration, caregiver migration and gender, and return migration of Koreans from China.

I would like to tell you the goal of today's lecture. This week, the learning goal of the lecture is an introduction to this lecture, Korean Society and Migration, followed by a basic lecture for orientation to guide the purpose of this course and understand this lecture, Korean Society and Migration. Specifically, you will learn about the concept related to Migration. And I would like to show the overall background of Korean society and migration by looking at the types and stages, the history of global migration, the history of migration in Asia, and how migration has changed in Asia.

The keywords of this week's lecture are migration, types and stages of migration, global history of migration, history of immigration in Asia, and changes in immigration in Asia.

The table of contents for this week's lecture is organized into six parts.

This is the first session. I will tell you about the course introduction and objectives. The goal of this course 'Korean Society and Migration' is to understand the changes in Korean society through migration and migration policy changes introducing Korean society.

I divided migration into Korea into three major streams. The first is the labor migration of Southeast Asians, the second is the return migration of compatriots represented by the compatriots from China, and the third is the marriage migration of Southeast Asian women. Focusing on these three flows of migration, I would like to examine the history, current status, and trend of each. I would like to compare these three types of migration from a global perspective, rather than focusing only on Korea, on these three types of migration: labor migration, compatriot migration, and marriage migration.

The global perspective I'm talking about can be divided into a Western perspective and an Eastern perspective again. The Western perspective refers to the West represented by Europe or the Americas. And in the East, Asia is so broad that the 'Asia' we talk about in my classes mainly focuses on East Asia or Northeast Asia, such as Japan and Taiwan.

Therefore, by comparing the migration phenomena of the West, such as Europe, and East Asia, such as Japan and Taiwan, and Korea, I would like to examine the similarities of Korean migration, that is, what is universal, and what are the differences or specificities that are very different from other countries. Then, let me talk about the material for the course.

Although we do not have a textbook for the full 10-week course, at least two books are helpful starting materials.

The first book is "Immigration Policy Theory," which was published in 2016 by professor Hyekyung Lee, myself, with Jinyoung Lee, Donghun Seol, Gisun Jung, Kyuyong Lee, Injin Yoon, Hyunmi Kim, Geonsu Han. The second book is "The Age of Migration," written by Stephen Castle and Mark J. Miller and translated by the Korean International Migration Studies Association (KIMSA) in 2013. Professor Stephen Castle's book "The Age of Migration" is now in its sixth edition. At the time of translation at the Korean Immigration Society, we translated the 4th edition. If you are interested, please also check out the latest 6th edition. In addition to these two textbooks, references and materials related to classes every week will be provided through subtitles.

If you listen to my classes, you will find statistical data from time to time. So, in case there are some statistics on migrants, at that time, I would like to tell you first to distinguish whether it is a flow statistic or a stock statistic.

Therefore, migration statistics can be basically divided into flow statistics and stock statistics. The word '유량' means flow. So the word 'flow statistics' means statistics at a specific point in time and at a specific place. Therefore, it is a statistic showing the amount of inflow and outflow of how much came in and out. For example, if the number of foreigners who came to Korea through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this year in 2022 is about 60,000, this would be the flow statistics.

Then there are stock statistics as well. In English, '저량 통계' is stock statistics. The word 'stock' means that data is piled up or it is cumulative. Therefore, it refers to the statistics of stocks at a specific point in time and in a specific place.

For example, someone says that the number of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in 2022 exceeded 2 million. Of course, in 2019 it was about 2.5 million. However, due to the influence of the COVID19, it has decreased slightly, and as of 2022, when talking about more than 2 million people, you can understand that this is stock statistics. When saying that the number of migrants around the world in 2020 is 280 million, you can understand that this is not a '유량', that is, a flow statistic, but a '저량', stock statistic. It is also very easy to look up statistics related to these migrations.

If you want to look up international statistics, you can go to the United Nations site. So, if you go to the UN homepage and look there, there are various guides. If you click 'International Migration', you can see various statistics related to international migration. So I went to the site and found that the number of immigrants around the world in 2020 is about 280 million.

You can also find statistics about Korea very easily. It is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you can just go to Google or Naver and type in KOSIS. Then, a site called KOSIS National Statistics Portal will appear. If you go there, you will see various information about domestic statistics and international statistics. Then you can go into domestic statistics and search by subject. Or, if you go to Domestic Statistics and enter by agency, the statistic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re linked like this. If you click 'the Ministry of Justice' among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you can find immigration-related statistics. Or if you click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you can find statistics related to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if you click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you can find statistics on the size or current status of marriage migrants or multicultural families.

Korea's KOSIS, their National Statistics Portal, also has international statistics. So, instead of domestic statistics, if you click the 'international statistics' this time, you will also see several topics pop up. Among them, if you click on the 'statistics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if you go into it, various things such as the OECD will come up. But among them, if you click on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detailed statistics on international migration from different countries will pop up. Please feel free to look for international statistics or migration statistics related to Korea in the same way as this issue.

Lecture introduction and the concept and history of migration

1-2 What is migration?

Let me start the second session. The title of the second session is 'What is migration?'

First, let's think about the concept of migration. Arrows will come out from below. Among them, which arrow do you think migration is? When saying 'migration' in English, it can be translated both as '이주(yijoo)' and '이민(yimin)' in Korean. But for the time being, I will use the word '이주(yijoo)' here.

You can see several arrows right now. A very long arrow means a long distance. Even if the distance is far, you will see an arrow that does not cross the line within that single cell. Some arrows are very short in length, that is, even if the distance is short, there seems to be an arrow that crosses the boundary line and crosses the line. Then, is the long arrow a migration? Or is the short but crossed arrow a migration?

The correct answer is that regardless of the length of the line, even if the line is short, migration means crossing the boundary. Therefore, the criterion of '이주', or migration, is that it crosses regional boundaries at a specific time and place. That's why we call migration to change one's residence beyond the border. A move that does not cross a boundary, that is, a move that does not cross a line, is simply called '이동' or '이사(move)'.

According to the definition of the Korean Census, the movement within the same city or county is 'movement'. And the movement across the administrative boundaries of a city or county is called '이주(migration)'. However, in Korea, if you cross the boundary of Seoul and go to Gyeonggi-do, it is migration, but that migration is domestic migration. Then, in order to become international migration, you should cross the border of a country. So, the UN calls the case of changing the country of residence as migration.

So in English, there is only one word as 'migration', but in Korean, sometimes it is called as '이주(yijoo)' and there are some other cases when it is called as '이민(yimin)'. Therefore, we need to distinguish between the concept of '이주(yijoo)' and '이민(yimin)' here.

So '이주(migration)' here is a term that encompasses both domestic migration and international migration. However, when we say '이민(migration)', we do not talk about domestic migration, but only international migration. Therefore, the word '국내 이주(Guknae yijoo)' in Korean is internal migration in English. And In Korean, '국제 이주(gukje yijoo)', or '이민(yimin)', would be international migration. So, did you feel the difference between the words '이주(yijoo)' and '이민(yimin)' in Korean? Right. '이주' is a much bigger concept. So, the term migration includes both domestic migration and international migration. And within migration, immigration is international migration, and only international migration is what we call '이민'. Again, we use the word in-migration by adding 'in' in front of the English word 'migration' or the word 'out-migration by adding 'out' in front of the word 'migration'. So, in the case of domestic movement, in-migration means moving in, and out-migration means moving out.

Suppose a person from Gyeonggi-do moved to Seoul. Then it is in-migration. In the past, we had to report to Gyeonggi-do for moving out, and report to Seoul for moving in. However, these days, the world has become more comfortable. Everything can be done on the Internet, so if you report only one place, moving in/out is just solved. Internationally, in-migration, immigration, followed by out-migration, emigration. So, in Korean, the words '전입/전출(moving in/out)' are mainly used when moving within the country. In international movement, the term 'import/export' is mainly used.

Now I'm going to talk about the flow of migration, the 'migration stream.' As for migration stream, picture the two places in your head now. There is Origin. place of origin, where to start. Then there must be a destination.

Now that we are going to talk about immigration, let's think about going from Korea to the United States. Then, think of origin country as Korea and destination country as US. Then let's assume that 200 people went from A to B, that is, from Korea to the US, and 50 people came from the US to Korea. 총이주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s 'gross migration' or 'total migration' in English.

Then, how much is the amount of the gross migration? That's right. Anyway, 200 people left and 50 people came in, but the total number of people who moved was 250 people. Therefore, the gross migration is 250. So how much will net migration be? '순이주' can be translated as 'net migration' in English. We use the expression net a lot. Net income, what is that? It's an income that you actually receive, deducting taxes or something like that from the total income. Likewise, net migration shows 'how much did they come in finally?'

But at this time, 200 people went to the US and 50 people came to Korea from the US. Subtracting the gap, 150 people came in for one side and 150 people left out for the other. For one side 150 people have come in, so we have to think about whose position it is.

What would happen if we were in Korea's position? -150 for South Korea, that is, 150 people went out. On the other hand, if we were in the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if we were in the position of B, we would think that we got +150, 150 people. So, depending on whether it's A or B, whether it's out or in, in other words, whether it is an export or an import may be different.

In the flow of global migration, it is domestic migration when moving within one country. International migration, for example, some people go from Gyeonggi-do to Seoul. But overall, the phenomenon in many countries is that a lot of people go from rural to urban. So, the movement from the countryside to the city is sometimes referred to as a concept called urbanization. We can see a trend in international migration as well. The most common flow is Least Developed Country (LDC) So, in the past, we used to call it '후진국(developing country)', but the tone is not good. So, from developing countries to '선진국(MDC(More Developed Country))'. There must be a lot of flow from LDC to MDC. However, if you search UN data or something like this, you will see expressions such as South-North migration and South-South migration.

So, you might be wondering what South-North migration is and what South-South migration is. Imagine a globe. Imagine a round globe. Based on the equator of the globe, the south side is mainly the Least Developed Country. And based on the equator, the north side is mainly the More Developed Country. Therefore, you can understand what we call north-south migration as migration from an underdeveloped or developing country to a developed country. Likewise, you can think of south-south migration as a lot of migration between developing countries.

So, if you look for it on the UN site I showed you earlier, it shows migration very well with a map or something. The amount of South-North migration is the largest, but surprisingly, recently South-South migration is also very high, almost the same as South-North migration. The reason is that migration from the south to the north is not so free, that is, there are a lot of cases that prevent entering by developed countries. Therefore, even if refugees move, not all African refugees or Asian refugees can go to Europe, so they flee to neighboring countries in Africa.

So, you can understand that South-South migration has recently been very high, almost at the same level as South-North migration. Of course, there are some North-North migrations within developed countries and some North-South migrations from developed countries to developing countries. Still, as a global trend, you can check on the UN site that the most common is South-North migration and South-South migration.

I will tell you about the length of stay, which is the standard. Do you think there is a minimum length of stay to be considered an migration? Surely yes. Then, how many years or months do you think is the minimum length of stay that can be considered as an migration? Think about it. The UN has already defined it.

The United Nations is an organization that talks a lot about migration from a very early age, explains concepts, and collects statistics. In the UN, it is based on more than one year. So, of course, more than one year is called long-term migration. Then, if it is more than 3 months and less than 1 year, it is called short-term immigration. Basically, the UN considers that migration is a case of changing the country of normal residence for more than one year, that is, the minimum period of stay considered as migration is one year. However, the reality is that each country has a very different length of stay that is considered migration. For example, there are countries that see it as one year, like the concept of the United Nations.

For example, many countries in Europe do this, but countries like Sweden, Finland, and France are based on one year. However, even in Europe, Germany pays statistics as migration if you stay in Germany for more than a week with a resident visa. Therefore, in France, you need to be an migrant for more than one year, but in Germany, you are an migrant even if you have a resident visa for a week or more. It would be wondering how to compare the two equally.

If you look into Asia, 3 months is the minimum period of stay in Korea and Japan. So if you want to stay in Korea for more than 3 months, you need to register as an alien at the immigration office related to the Ministry of Justice. So there is a standard of 3 months. So now the problem arises. Each country has a very different length of stay, which is considered migration. There has been thoughts about how to do this for a long time. However, from around 2006, these concerns became more serious. So, some efforts are being made at the OECD. Please think about why this period is from 2006. At the time, countries in Europe tried to compare statistics, but the length of stay was so different that it was almost impossible to compare migration statistics across countries. So, the OECD thinks it is necessary to standardize migration statistics so that international comparisons are possible.

Also, for example, the length of stay is not the only problem. In some countries, for example, the UK's immigration statistics include all international students or working holidays, and are called immigrants. However, in statistics from Germany and France, foreign students and working holidays are excluded from the list of immigrants. Therefore, it is very difficult to directly compare British statistics with German or French statistics. So, the OECD tried to standardize the statistics of immigrants. So, defining just 'staying more than a year' or using the concept of 'the length of stay' like the UN wouldn't work anymore. So let's define immigrants by right of residence, let's make a concept. Then, subtract international students and working holidays from all immigrant statistics. This standardization effort has been made.

So before we move on to the next one, why 2006? What do you students think? 2006 is the time when the European Union, one Europe, is in earnest. So, until then, in the case of Italy, they published immigration statistics in Italian and announced them on their country's homepage, but their country's statistics were mainly used by their own people.

However, since 2006, when movement within the EU became very free, I interpret that the seriousness of the need to standardize the statistics of various countries within Europe, within the EU, such as Britain, France, Germany, Italy and Spain, has surfaced. So, the OECD does not use words like long-term immigration or short-term immigration, which is a concept related to the length of stay at the UN. That is why permanent migration or semi-permanent migration and temporary migration are distinguished. So '영주 이민' is a permanent migration, whereas '일시 이민' is a temporary migration. So, instead of dividing migrants by the period of stay, they insist on dividing whether this person is a permanent migrant, or a temporary migrant with the right to stay that they received from the time they entered.

Therefore, the concept of permanent immigration defined by the OECD includes permanent immigration or quasi-permanent immigration. Entering through the immigration track, or entering with a permanent residence permit from the beginning, or a temporary residence permit that can be renewed continuously EU citizens can move freely within the EU. So, those EU citizens, those who can move freely within the EU, are called permanent immigrants.

So, taking the example of permanent residents or semi-permanent immigrants in the OECD concept, Professional and employment immigrants can also accompany their families. That is, professional, employment immigrants and their families, people who migrate to reunite or create a new family, or humanitarian immigration. What is humanitarian immigration? They are refugee applicants or persons granted permission in a refugee application, such persons and their accompanying family members Other compatriots immigrating or their returning after retirement can be considered permanent residence tracks. The temporary migrants that the OECD defines include international students, trainees, people on working holidays, seasonal workers, and expatriates. Expatriates are people who work by going back and forth between companies. A person who goes as an exchange professor for a short time. They usually go for six months or a year and then comes back. So, those who have a fixed period or other temporary workers, but immigrants who cannot be renewed or can be renewed only under limited conditions, have been defined as temporary migrants. So if you look at the definition of immigrants, The concept of the UN refers to a person who has changed their usual country of residence, or a person who has changed their country of residence for more than one year, whereas migrants in the OECD are the foreign population, that is, foreigners.

where is their nationality? Korean nationality or foreign nationality? Additionally, the overseas-born population. Were they born in Korea or abroad? Then, people born abroad are also included as migrants. Then, the word migration background population is used a lot. As for the migrant background population, someone was born, for example, in the United States. But his/her parents immigrated. So, those who have parents with an migrant background So when we talk about the migrant background population, Everyone, have you ever heard of 1st-generation migrants, 1.5-year-old migrants, and 2nd-generation migrants? What is the 1st-generation migrants? It means that person migrated after he/she became an adult.

Then you would know about the 2nd-generation migrants. Their parents immigrated to the US. So he/she was born in the US. Then the person is the 2nd-generation migrants. So what is 1.5 years of immigration? Why is there a decimal point? A person who immigrated as a minor and not an adult. One of my favorite singers is Jung-hyun Park. she's the one who sings very powerful. When she was 6 or 7 years old, her entire family immigrated to the US with her father. In that case, if she 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at a young age, she is called 1.5 years old. So, instead of only the 1st-generation migrants, we can call all the 1.5th-generation migrants or the 2nd-generation migrants the migrant background population. Therefore, the concept of immigration in the OECD is, they are classified as the foreign population if the nationality I just mentioned is foreign. Foreign-born population if born abroad. Then the migration background. The sum of them can be called as migrants. Therefore, the OECD's concept of immigrants is very broader than the UN's concept. So, when you look at any data, you should keep in mind that the concept is different depending on whether it is said to be an migrant based on UN standards or an migrant based on OECD statistics.

Lecture introduction and the concept and history of migration

1-3 Types and Stages of migration

This is the third session of Korean Society and Migration.

The third session is about the type and stage of migrants or the type and stage of migration. Types of migrants can be divided based on causes and motives. If you divide it based on the cause, you can divide it into forced migration and voluntary migration. What examples come to mind when you think of forced or voluntary migration? Think about it.

When divided based on motivation, it can be divided into economic migration, political migration, religious migration, social migration, and cultural migration. Let's also think about what we think the problem is when we divide it into this type. When divided by cause, who comes to mind when you think of forced migration? Slaves come to mind. There are people who were captured as slaves in Africa and taken to the United States or Central and South America. Today, when we say forced migration, we also talk about people who are forced to migrate, that is, war refugees.

Then, voluntary migration is the very opposite concept of forced migration, and it means that they voluntarily migrated because they wanted to. Therefore, even in the same 19th century, Europeans voluntarily 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on a large scale, whereas Africans were forcibly brought to the United States as slaves.

When divided by the case of motive, economic immigration is, of course, migrating to the United States to earn a lot of money. Political immigration is when people flee political oppression. Religious immigration is a case where there is no religious freedom in the country, so there are cases of immigration to freely believe in the religion one believes in, like cases that the person is a Christian in an Islamic country or an Islamic religion in a Christian country. If someone goes for their child's education, we call it social immigration. Recently, some migrate to Korea because they like K-POP. We call such cases cultural migration.

By the way, what do you think is the problem when dividing economic migration, political migration, social migration, and cultural migration, etc. in this way? you're right. There is not just one motive for migration such as economic motive. Children's education is important, religious freedom is also important, and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many things are complex. So it's not just one reason. So, defining that 'this person is an economic migrant, not a social migrant.' is impossible. So the problem is that the boundaries are very ambiguous.

Types of immigration can be divided according to the duration of immigration. So, if you migrate only during a certain season, it is called a seasonal migrant. Then, usually shorter than 1 year or shorter than 5 years is called short-term migration. Long-term migration is called 'permanent migration' when it comes to permanent migration or entering the permanent track. Then, in terms of the motive of migration, it is said that it is increasingly ambiguous whether this is economic migration, cultural migration, or religious migration. The period of migration is very short or a specific season, but is this also ambiguous? Yes, the term of migration is also ambiguous. When they entered as a short-term migrant, but there are cases of their being long-term migrants. Or, there are cases where they came in as a long-term migrant but then go back again and become a short-term migrant.

Fourth, the types of immigrants can be divided into whether they are subjects of immigrant or not. That is, if the father gets a job and migrates, the father is the subject of the migration. Therefore, it is the main migration. In this case, the father's spouse and children are people who follow, so in English they are called 'tide movers.'

However, in connection with the concept of who is the subject of such migration, the concept of selectivity of migration comes up again. For example, if we say someone migrated to the US from Korea, do all people migrate randomly? If everyone migrates randomly, we can say that there is no selectivity of migration. There is no selectivity. But in fact, there is a certain degree of selectivity in migration.

For example, supposing someone migrated to the US from Korea, in the past, men usually went first. Therefore, there is selectivity of gender, male rather than female. Age also has selectivity. When migrating, mainly young people, people of working age will go first. So the old man or the child will follow later. What do you think of hierarchy?

Because it is a matter of changing borders, in other words, people migrate from Korea to US, it is difficult for very poor people to migrate from Korea to the US. So usually the middle class has migrated first, the lower class will go later, and the upper class won't have to. Therefore, there is also selectivity of migration by class to some extent. However, the selectivity of migration in the past has been changing as it comes to today. What has changed is that in the past, mainly men migrated, but recently, cases where women migrated first are increasing. In the past, mainly young people, that is, the working-age has migrated to work, but recently there comes out even a saying 'retirement migration.' So, the elderly are migrating to use their pension more efficiently. There are also some changes in the hierarchy. (Overall, the selectivity of immigration is diversifying.)

Among these various changes, especially we call it feminization of migration that men do not migrate first, but women migrate first on their own. Migration is also classified according to the legal right to stay. This can be classified as legal immigrants or illegal immigrants. By the way, there is no problem with legal migrants, but there is a problem with the word 'illegal migrants.' That is, if someone is called 'illegal migrant', we might think "'illegal'? Did he/she do a murder?" The word illegal like this is that the term is too strong, as if the person greatly violated the law. So, recently, there has been an argument not to use the term 'illegal migrant'. In other words, the term illegal migrants was used in the past, but more recently, they argue to use 'Undocumented migrants' and '미등록 이민자(mideungrok yiminja)' in Korean rather than illegal migrants. Or irregular migrants or Non-compliant migrants. In this way, the terms used to refer to undocumented migrants are becoming more diverse.

Even in the use of terms like this, being sensitive can be seen as a good phenomenon. Among the concepts related to immigration, the concept of being a foreigner or a native, or a migrant or a citizen, is not as simple as a foreigner, a Korean, an immigrant, or a citizen. Recently, there is a word called a permanent resident. And sometimes they become a naturalized citizen by taking the naturalization test after they have obtained permanent residency to some extent. Then, shall we think about the case of Korea? In Korea, there are Koreans with Korean nationality. Then that person is a local. And there is a Vietnamese immigrant around us who does not have Korean nationality. But in the meantime, a Vietnamese and Chinese got a permanent residency in Korea. Then the person is a permanent resident. However, if they later passed the naturalization test and became naturalized Koreans, they are now Korean citizens. Therefore, permanent resident, and then the naturalized person. The step goes on like this.

Then now, for example, suppose Koreans who went to the US, there are overseas Koreans in the US, that is, there are Koreans in America. At this time, the concept of overseas Koreans is a combination of both Koreans living abroad and Koreans with foreign nationality. Overseas Koreans are those who have gone to the United States but have Korean nationality. And a foreign nationality means a nationality of the United States. That is, they're referred to as Korean-American nationals. And there are just as cases that are Chinese-permanent residents and Vietnamese-permanent residents in Korea, there are also cases in which Korean citizens went to the United States and received permanent residency. It is not US citizenship. We call these people Ethnizen.

Therefore, '영주권자.' In other words, in English, the term paired with the concept of Denizen is Ethnizen. That is, Ethnizen is a person who has the nationality of Korea abroad but has permanent residency in that country. There are several classifications depending on the stage of immigration. In most countries, and also the Korean census, ask for birthplace, place of residence 5 years ago, place of residence 1 year ago, and current place of residence.

In many countries, when they do the census, they ask where you were born, They survey place of residence 5 years ago, place of residence 1 year ago, and current place of residence. The reason they ask this is to figure out the stage of migration. For example, let's say we were in Korea, Japan, or the United States. There is a person who was born in Korea. He was in Korea 5 years ago, he was in Korea 1 year ago, and if he is still in Korea. This person is a lifetime non-immigrant, that is, a person who has never immigrated. But someone was born and live in Korea, went to the US a year ago (for example), and if he/she is still in the US, then the person has only moved from Korea to the US once in his/her lifetime. Therefore, in this case, it is called primary migration. At this time, it does not matter whether the person went to the US 1 year ago or 5 years ago, and if the person went only once, we call it a 'primary immigrant'.

For example, if someone lived in Korea, then to Japan, and then to the US, since they moved twice, they are called 'secondary migrants'. However, if a Korean went to the US, lived in the US for a few years, or 10, or maybe 20 years, and then returned to Korea, If the person come back after retiring, then it is a retirement migrant. However, if the person is not yet of retirement age and have returned to Korea, it is called a return migrant. Many Koreans migrated to Australia for business and found the business opportunity in Korea better than the business opportunity in Australia, so there are many people who migrated and returned. In such cases, we call return migration.

In addition, some people let their wives and children in Australia, and the Korean husband goes back and forth between Korea and Australia. Or, the whole family may travel back and forth between Korea and Australia. Like this, going back and forth between the two countries like this is called circular migration. However, if we want to call it stage migration if it is the 2nd and 3rd migration, (Steps are required.) For example, this is a concept more commonly used in domestic migration. but after living in a very remote village, in a very remote place, someone came out to the town. Then from the town the person moved to a slightly bigger city. Then after living the bigger city, the person (later) came to Seoul because he felt it is worth living in a big city, then he/she move to a bigger city. This case is called step migration.

Now, in order to become a step migration in international migration, (for example), a Korean first migrated to New Zealand. However, there are not many business opportunities in New Zealand, because of the small population. So, if he/she eventually move to Australia. That case, that is, going to increasingly complex or larger countries, is called step-migration. As a concept related to (step migration), there is a word called chain migration. So what is chain migration? What is Chain? It's a round ring. That is, round rings are connected by rings and rings. Therefore, if someone who is in line with him is there and goes there, it is called chain migration.

For example, if a Korean goes to the US, where do they go in the US? Where they would go? Chicago? Atlanta? Or LA? If many of my relatives are in Atlanta now, in that case I would go where my relatives live. If someone has a relative and wants to get some help or information from that relative when settling down for the first time, we call it a chain migration when he/she goes to the place where his/her relative lives. Therefore, when Koreans or many people migrate to foreign countries, many of those are step or chain migration.

There are recent (several) changes related to migration. The distinction between types or stages is becoming increasingly blurred. For example, the distinction between short-term and long-term migration has become blurred. For example, Germany has many migrants from Türkiye. The reason why there are many Turkish migrants in Germany is that many Turkish migrants came from the 1960s to 1973 when Germany used the Guest Worker Program. However, Germany has discontinued the Guest Worker Program since 1973. So, from 1973, a policy was implemented to encourage Turkish people who came as guest workers to return to Turkey. As a result, some people went back.

However, after 1973, Many people stayed in Germany because there were not many jobs available. So let's just say they stayed in Germany. As they passed through the 80s and 90s, they had already lived in Germany more than 10 or 20 years, so it doesn't make sense to continue to live apart from their families, does it? Since Germany is a human rights country, a German court at the time ruled that if they paid taxes in Germany and have been legally residing in Germany for such a long time (Turks), those had the right to invite their family. In other words, the court allowed their family reunification. Therefore, all of their family or children in Turkey could come to Germany. So, a Turkish immigrant community is formed in Germany. So one of the largest groups of migrants in Germany right now is Turkish migrants.

If so, it started as a short-term migration, but eventually became a long-term migration or permanent migration. Therefore, this is a good example of blurring the distinction between short-term and long-term migration. Therefore, the reason why the distinction between primary migration and secondary migration, or short-term and long-term migration has become ambiguous is because circular migration has recently increased. So what is '순환 이민'? It's a circular migration in English. That is, migration goes around and around. But why does this phenomenon of migrants go to a certain place and come and go instead of continuing to stay in that place?

In the past, (how old is the old days at this time? Let's compare at least the 60's, 80's and today's 2000's?) In the past, when a Korean migrated to the US, they would sell their house. As if they would never come back to Korea, they part from their family or relatives and went to the US.

But today, in 2020 or 2010, if a Korean goes to the US or Australia, Suppose the person arrived in the US. Or just arrived in Australia. Or just arrived in Australia. Not to mention the 80's or 60's. Shall we think about the cost of air travel between Korea and the US in the 80s and 2000s? When I went to study in the US, it usually took 6 or 7 years to get a Ph.D. in sociology until the end of our studies in the US. It was unthinkable to visit Korea for a short time during those 6-7 years. Why? At that time, the cost of a round-trip flight between Korea and the US was very high for a Korean's income level.

I was in the US in the 80's. How long have you been using your smartphone? When did you start using the smartphone that you are holding tightly in your hand? When I was studying in the US in the 80s, of course there were no smartphones. There was no internet back then. When studying at first, I sent a letter to my parents. There was no email, of course. So, I wrote a letter to my mother. It took a week to go, and another week for my mother to see it, write a reply to the letter, and come to me. It took for a very long time. However, in the 2000s, there are cases where our children now study in the US. Many people say that if they have children in the US, they come in every vacation. Why? They don't think that the cost of air travel between Korea and the US is so prohibitively expensive compared to the current income of Koreans. Additionally, there are many low-cost aircraft. These days, my children go back and forth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search of very cheap low-cost airlines on the Internet. In the past, people who went to the US mainly wrote letters, but there were also international calls. However, the price was very expensive, so when I called my parents while studying in the US, the only thing they said upon answering was, The phone bill is expensive, hang up quickly. How is the international call now? You just use it for free. Can I just make calls for free? We can even make video calls on the screen for free. Due to such changes in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cheapness, and globalization, people in the US can continue to watch Korean news. They can continue video calling with their family in Korea. They are in the US, but they are familiar with the situation in Korea. So they can come and go. Therefore, the reason why the distinction has become ambiguous is the influence of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Furthermore, let's think again about how this affects the receiving country, the sending country, and the migrants.

I mentioned that the distinction between short-term and long-term migration is becoming increasingly blurred these days. What are the implications of this for countries of origin, countries of origin and migrants? (The answer is) the rise of ultranationalism and (postnationalism). In social science, the word transnationalism and postnationalism is distinguished. '초국가주의' is 'transnationalism' in English. And '탈국가주의' is 'postnationalism' in English. Then, post-nationalism means that it transcends the state, and transnationalism means going over both legs with the prefix 'trans-'. Therefore, you can see the state of crossing both legs between the receiving country, the state of straddling bo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an be regarded as transnationalism. The post-nationalism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means that neither Korea nor the US has any relationship. Therefore, within the EU, Germans can go to France to work, and even go to England to work, Since people can move freely (in the EU), the concept of post-nationalism is possible, however, in most countries except for the EU, the situation has not yet gone to the point of post-nationalism. That means there are more transnationalist immigrants straddling both the US and the UK or the US and Korea.

If you look at it from a more realistic perspective, the concept of diaspora itself has a very different feel. When it comes to diaspora in the past when the distinction between short-term and long-term migration was clear, In the past, Jews are a representative example. Jews were expelled from Germany or from Spain in the past, so they went to Russia in the past. Then they would never be able to return to Spain or their hometown where they lived. Therefore, Diaspora (in the past) was a sad existence. But have you heard that today's diaspora, (for example) China's development, and the reason China was able to develop so quickly was because Southeast Asian Chinese built a lot of factories in coastal cities in China and invested a lot in them? That is, the Diaspora, the overseas Chinese, are the heroes who led China's economic development. In this way, the meaning (itself) of the diaspora has changed from the diaspora in the past, that is, a sad existence, to a very important (positive) existence in the country today.

Lecture introduction and the concept and history of migration

1-4 History of Global Immigration

This is the fourth session of Korean Society and Migration. In the fourth session, I want to deal with the history of global migration.

When did migration begin? The answer is with the beginning of mankind. There must be several YouTube sites pops up here right now. What do you think after watching some YouTube videos on this site? These YouTube videos show the migration of homo sapiens. According to these Youtube videos, they started from the east of Africa and moved around the African continent. A very long time ago, when (Earth's) sea level dropped so much that the land route from Africa to the Middle East opened slightly, a group of Homo sapiens went out from Africa to the Middle East. So, through the Middle East, one group continued to migrate toward Asia, and when it opened up to present-day Indonesia, the sea level was very low, so they continued overland and on rafts to Australia. Another group of Homo sapiens continued to move upward (to the northeast) from the Asian side (when sea level was very low) and crossed overland into the American continent. They are said to have become Native Americans and descended to South America along the western coast of North America. After all, what are the important facts that these YouTube videos show? The origin of mankind is one root.

Therefore, the yellow, black, white, etc. races we think of today. I don't really like the term race, Race and ethnicity itself were differentiated very late (in history). Therefore, this shows the wrong fact that the origin of mankind is one root, and if we forget this fact itself and think that there is superiority or inferiority between races or races. I would like to introduce you to a book. It's "The Global Prehistory of human migration." This book was edited by Dr. Peter Bellwood in 2015. Originally, the start of this book was to publish based on the book [The Encyclopedia of Human Migration] edited by Dr. Immanuel Ness, who sent an email to various scholars around the world and asked them to participate. At the request of Dr. Immanuel Ness, I remember participating by writing a few tips related to Korea.

So the encyclopedia is listed as "The Global Prehistory of human migration" Therefore, for those who want to see the global history of migration, I recommend this 2015 edition of it. This is a case that happened in 1991. A hiker who was climbing in the Alps came across an old remains. So the person reported it to the police, and the police doubting if it was a case of murder or a missing person, so they sent the remains to a government agency that inspects them in Korean terms.

However, these remains are dated to around 3300~3150 BC, it turns out that they were people almost 5000 years ago from now. Its remains are now preserved in the Archaeological Museum of Bolzano, Italy. However, through biological and archaeological analysis of these remains, as well as tools and seeds, these remains are also displayed together with the results of analyzing where people in the Paleolithic Age migrated to in the Alps region. Thus, it turned out that this person died while crossing the mountain range while traveling through various regions of the Alps at the time, but was buried in a glacier and was preserved for 5,000 years. Then it was discovered in 1991 as a result of global warming. In other words, things about migration from the past are being revealed through archaeology and (remains) related data analysis. Now the second question is, when do you think '이주' changed to '이민'? '이주' changed to '이민', what does it mean? '이주' is a term that includes both domestic migration and international migration. And '이민' is crossing borders. So, to paraphrase this question, it's a question of when did borders or countries come into being?

When did countries or borders originate? In the West, the beginning of the modern state is seen as the American Revolution or the French Revolution. I'm saying 'in the West' at this time. This word is very important. In other words, the West and the East are very different in terms of the concept of modernity. Then, the word '근대' means modern in English.

But when I talk in Korean, I think '근대(geundae)' is a little before '현대(hyundae)'. But here, you can think both '근대' and '현대' as 'modern'. In the West, the concept of the modern state or modernity is the American Revolution, the event that started in 1775 and gained independence from Britain in 1783, so in the late 18th century. The French Revolution was in 1789 so it can also be seen as the late 18th century. Socially, this is the point where the caste system collapsed and was replaced by a hierarchy system.

The most representative is the French Revolution. The French Revolution was the time when the monarchy was over and the republic has started. Economically, the point was at which the feudal system collapsed and capitalism was born. Of course, if you look at England, it's the 17th century, if you go to mainland Europe, it's the 18th century, and in Germany it is the 19th century, so the timing of the birth of capitalism may vary depending on the country. When considering that the earliest England was the 17th century. Philosophically and culturally, some also talk about the Renaissance or Reformation. Some argue that the most representative example is the time of Luther's Reformation in the 16th century. As I told you already, are the modern times in Europe and Asia, that is, is Chinese or Korean modern times the same or different? In the West, these periods are well divided. Of course, it must be because the West made this classification first. In other words, the ancient-Greek and Roman era, the Middle Ages-the era of manors, and the modern-after the French Revolution, like this, these are clearly distinguished.

But in Asia, antiquity is clear. But since when do we consider Asia to be modern? This is a little ambiguous. (Later) Let's think about it again. The change in global migration is, first and foremost, intercontinental migration. This is, intercontinental migration out of Africa to the Middle East to Asia and Europe. Then migration to the New World, i.e. the migration of Europeans on an enormous scale to the United States, Australia, New Zealand or South America. Then the recent migration of Third World people to the First World, such as United States, Australia, New Zealand, or Europe. (Global immigration) can be divided into three major categories.

Intercontinental migration is a bit difficult for us to use the word migration because at that time, there were no countries yet. Migration between continents is an ancient event. In other words, coming out of Africa and going to Asia or Australia, or coming out of Africa and going to Eurasia or Europe. Therefore, the most important event in intercontinental migration is the 'out of Africa' event. The fact that people were able to "leave the African continent" for some reason is an important event in itself.

Migration to the new continent is, after the discovery of the new continent, colonialism and imperialism arose, Europeans migrated in large quantities, and slaves also migrated in large quantities. More recently, migration of Third World people to developed countries. The phenomenon of Africans going to Europe or Asians going to the United States after World War II or after the 1960s is called North-South immigration.

But I told you that the most important event in intercontinental migration earlier was 'Out of Africa.'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important historical event that has influenced the 'change of migration' in the history of global migration? Of course, each person may think differently, but I think Columbus's discovery of the New World is the biggest event that changed the history of immigration. Have you all heard of the name Columbus? In what year was Columbus' discovery of the New World? 1492, that is, the event at the end of the 15th century. Then, why did Columbus go west?

Wait, what country is Columbus from? That's right, he was Italian. But since he received support from Spain (not from Italy), he must have started from Spain. Where did he head for? West. What is located to the west of Spain? It means that he crossed the Atlantic Ocean. Everyone, do you know that the person Columbus really liked and the book he really liked was

Marco Polo's "Oriental Travels"? Marco Polo's "the Travels of Marco Polo". Marco Polo was a man of the 13th to early 14th centuries. He lived from 1254 to 1324. What kind of book is Marco Polo's "Episodes to the East"? Where did Marco Polo start with his father and uncle, who is father's brother? (Marco Polo) was from Venice, Italy. He started his journey from today's Venice and went to China's Yuan Dynasty. So, after living in the Yuan Dynasty of China for nearly 20 years, he returned to Venice.

Which way did Marco Polo's party take at that time? From Italy to the east, where did he go from Italy? There was an overland route that crossed today's Middle East and Central Asia and went east over India to the Yuan Dynasty of China. The road still exists today. But why did Columbus give up the east route even though there was the overland route that he rode on horseback and camel, and went west by ship across the Atlantic Ocean?

What's your answer to this? Has anyone got (correct) answers?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is the correct answer? The Ottoman Empire, where does the Ottoman Empire collapse? They destroyed the Eastern Roman Empire. What was the capital of the Eastern Roman Empire at the time? Constantinople. When Constantinople was captured by the Ottoman Empire, the name of Constantinople disappeared. What is the name of today's city of Constantinople? Istanbul. Istanbul is a city in which country? It's in Türkiye. Turkey also recently changed its name, because they hate the word Turkey. We have to respect that.

Then Constantinople or Istanbul was occupied by the Ottoman Empire. So what does it mean that the Islamic Empire took Constantinople? It means that the way the countries in the Mediterranean such as Italy or some other European countries took goods from China or India was blocked by the Ottoman Empire. That is, the road is blocked. Nothing comes in that way. The Columbus we just talked about is a merchant. Columbus visited the kings here and there almost 40 years (in fact, 39 years to be correct) after the fall of Constantinople. And said "The eastern road is blocked, but I can make the western road, I can find it, please support me." It is said that he went to various kings saying, If you give me a ship and people, I will go west and go to China (of course the original destination was India), the original destination, and bring things like spices." Since he was Italian, he must have visited the King of Italy first. The king of Italy must have said "No" because he looked so hopeless! What did they think at that time, in the 15th century? At that time, they thought that "you can go by land, but not by sea."

That is, it was the time that "If you go far into the sea, it will become a cliff and you will eventually fall to your death." Therefore, Columbus was the one who believed that the earth was round and that there would be roads by sea. So the king of Italy said no, the king of Germany said no, the king of France said no, and the king of Spain also said no at first. However, after visiting several times, the Queen of Spain agrees.

So they decided to support ship and the crew to Columbus, and agreed with him to share the goods brought from India 50/50. Where did Columbus land in 1492? He arrived in the Bahamas Island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uba. When he arrived, Columbus thought, "This is an island of India." So he came to call the natives found near there or in Cuba or south- after his several expedition, in what is today Central or South America, Indians. Because Columbus' party thought it was India. The people we call South American Native Americans today were called Indians by them.

Anyway, I think the most important historical event that influenced the change of global migration was Columbus's discovery of the New World. It will be very interesting if you compare the route Marco Polo took and the route Columbus took to the New World.

Therefore, if you look for YouTube, movies, videos like Youtube clips or movies related to Columbus's discovery of the new continent, or movies and videos related to Marco Polo, you will find various information about the discovery of the new continent or this oriental and western land route and sea route. If you look at this map, it shows the route of Marco Polo's party well. They started in Venice, Italy, and went through the Middle East and Central Asia to China's Yuan Dynasty. At that time, (Marco Polo and his party) stayed in Beijing, China's Yuan Dynasty, for a very long time.

There are also documents written that Marco Polo was so loved by the emperor of the Yuan Dynasty that he even went to Myanmar for field research. So, starting from Beijing in the Yuan Dynasty, they (Marco Polo and his party) even went to today's Myanmar. And they came back to Beijing. When they returned after being in the Yuan Dynasty of China for nearly 20 years, they came back from Myanmar to Beijing, the Yuan Dynasty of China, then to Hangzhou, then through the sea route of China to Southeast Asia and below India, and then to the Middle East again to Constantinople and then to Venice. The reason why I say that Columbus' discovery of the New World is the most important in the global history of migration is because the impact of Columbus' discovery of the New World is so great.

The first big impact is that after the fact that Columbus discovered the New World, imperialism and colonialism begin. Who did I say was the one who supported a ship and crew to Columbus? I said it was the Queen of Spain. It was Queen Isabella of Spain. Everyone, search the Internet for Queen Isabella. Queen Isabella is a very famous queen in Spain. Since Spain invested to the Columbus' expedition in the new continent after Columbus' discovery of the New World, it was possible to bring all the resources such as silver from South American mines to Spain, thus opening the era of Spain. In other words, it is the beginning of 'Spanish Imperialism'. Later, the Netherlands and England also jumped in, and eventually Spain lost in the fight between England and Spain. After then, the era of British imperialism opens. In addition to such imperialism or colonialism, European migration to the New World will also be opened.

So, everyone, when we learned in our middle and high schools in the past, In 1620, that is, in the 17th century, the Puritans of New England, England are said to have migrated to America on the Mayflower.' Some 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from European countries such as England, Germany, Italy, and Poland, some went to Brazil and Argentina in South America, and many migrated to Australia and New Zealand. This is also due to the growing population of Europe at that time. As capitalism began with imperialism as so many resources went to Europe from South America, production greatly increased, things like that (industrial revolution) happen when Europe suddenly becomes too prosperous.

So, going through the 18th and 19th centuries, the era of large-scale migration was opened against the backdrop of colonialism and the industrial revolution. There is a scholar who showed statistics about the increase in global migration after the discovery of the New World. If you look at pages 264-267 of a book by Yaukey, it says that 45 million went from Europe to North America from the 16th century to the end of the 19th century. It is slightly smaller than the (current) population of Korea. It is said that about 20 million people immigrated from Europe to South America and Central America, and it became the beginning of a community that currently has about 50 million people. And it is said that 17 million people have migrated (from Europe) to Australia. Between the 16th and 19th centuries, the number of slaves brought to America from Africa is said to be over 15 million.

At that time, there was population movement within Asia as well, Overseas from China, about 10 million Chinese immigrated to Southeast Asia. It is said that about 4 million overseas Indians went out from India to Sri Lanka and Malaysia. So, finally, the era of migration from underdeveloped countries to developed countries will be opened again. This is, people moved to Europe after World War II, particularly during the global boom of the 1960s, or to construction sites in the Middle East in the 1970s and 80s, migrants who went to traditional migration countries such as the US, Canada and Australia after 1965, then after 1985, changes within the Asian region can be seen.

Let me introduce you to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films related to migration. There is a movie called 'The Immigrants.' The movie was produced in 2013 and released in Korea in 2015. If you watch this movie, you can see what the situation was like for Europeans to migrate to the United States at the time. As described above we examined the history of global migration, starting from Homo sapiens' out of Africa, to Columbus's discovery of the new continent and migration to the new continent.

Lecture introduction and the concept and history of migration

1-5 Immigration History in Asia

This is the fifth session of Korean Society and Migration.

During this session, we will take a look at the history of migration in Asia. I once asked whether European modern times and Asian modern times were the same or not. I told you the period in Europe is clearly classified. There is ancient times, and since when was the Middle Ages, at least the modern times were the period when modern states began after the French Revolution. And the important event that opened the beginning of these modern states was Columbus' discovery of the New World. I also mentioned colonialism and imperialism (afterwards).

But in Asia, China and the countries around it stayed there for a long time in antiquity and the Middle Ages. So, '근대(modern)' in Asia can be said to be forced modern. Or I guess we should call it forced opening the history of Asian migration or the history of migration in Asia doesn't have much difference (with Western) in ancient times, so looking only from the Middle Ages, we'll briefly look at two events.

The first of two events is the time of the Mongol Empire in the early 13th century. When it comes to the Mongol Empire, in 1206, when the 13th century was just beginning, do you remember Genghis Khan? So, Genghis Khan unified various tribes, created a unified empire and threatened China's Jin dynasty. Genghis Khan died in 1227, and between 1227 and 1241, Genghis Khan's sons destroyed the Jin dynasty and advanced to the Baltic Sea on the Swedish and Finnish side. So, Genghis Khan and his children invaded and occupied over the Ukraine, southern Russia, Poland and Hungary, in other words, Eastern Europe. So the Mongol Empire and the Roman Empire are both empires. (The Mongol Empire) is an empire that occupied the largest territory among the empires that existed so far. Later, it also destroyed the Jin Dynasty of China, and finally established the Yuan Dynasty.

So, the Mongol Empire's expedition to Europe is very important event. Genghis Khan of Mongolia had a great impact on European history by moving westward beyond Central Asia. And he conquered the Jin Dynasty and established the Yuan Dynasty. At that time, Korea was in the Goryeo era, and Goryeo was also invaded. During the Goryeo Dynasty, the capital of Goryeo was Gaegyeong. However, the capital (of Goryeo) was moved from Gaegyeong to Ganghwa-do. However, since the period from 1232 to 1270 when the capital was moved from Gaegyeong to Ganghwa-do, there was a period when Gaegyeong was not able to be used as the capital for nearly 40 years.

Apart from the Mongol Empire, the second important event that corresponds to the Middle Ages in Asia is the expedition of Zheng He in China in the 15th century. Zheng He's expeditions were from 1405 to 1433, so he made about seven great expeditions in the first half of the 15th century. So, this was during the Ming Dynasty. After the fall of the Yuan Dynasty, the Ming Dynasty was founded. During the reign of Emperor Yongle of the Ming Dynasty, the eunuch Zheng He led three expeditions across the South China Sea, across the Indian Ocean, and to India. He went to the Middle East in the Persian Gulf in the 4th expedition. Then, in the 5th and 6th expeditions, they go all the way to present-day Africa. That's why they went to the coasts of Somalia and Kenya in Africa and even the inland of Africa. So they wiped out the pirates who were at sea at the time. (With this expedition) neighboring countries, (for example) Southeast Asian countries, India, and far-away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were forced to pay tribute to the Ming Dynasty.

So, look at the map and take a look at Zheng He's expedition route. (If you see this), they went the expedition quite far, through Nanjing, Hangzhou, Vietnam, Indonesia and many other countries in Southeast Asia, to Mogadishu and Malindi in Africa today.

By the way, the important question we need to think about is that Zheng He's expedition is also a great expedition. However, Zheng He's expedition was not a major historical event that would change world history like Columbus' expedition. Why do you think so? In other words, if you compare Zheng He's expedition with Columbus, Zheng He's expedition is much larger. For example, Zheng He's expedition was an event 70 or 80 years earlier than Columbus' expedition. It was about 80 years earlier, but Zheng He went on an expedition seven times. Columbus made four expeditions. It is said that in a city in China there is a museum showing Zheng He's expedition. I haven't been there and I just heard about it, but there is a comparison between Zheng He's expedition and Columbus's expedition, showing the ships at that time reduced reduced model, and the ships used in Zheng He's expedition were much larger and much more numerous.

For example, Zheng He led 300 ships through 7 expeditions and the number of crew members exceeded 28,000. Columbus, of course, initially started with 3 ships, but at the end, when the number of ships at peak, he had 17 ships were at most. He had 120 sailors, or 1,500 at its peak. So, in terms of scale, it is incomparable to Zheng He's expedition. However, Columbus's expedition discovered the new continent and later became an important event leading to imperialism and colonialism, but Zheng He's expedition is simply buried in history. Who was the main character? Columbus was Italian. Jeong-hwa is from the Ming Dynasty in China, but is of Middle Eastern descent. That's why they(middle-eastern) were called 'Saekmokin' at the time. And he became a eunuch at that time. So, silk, pottery, etc. were brought to Africa (from China) in large quantities, and from Africa, such rare animals as giraffes and lions, Arabian camels, were brought to China.

But, I ask again and again, what do you think is the reason why Zheng He's expedition, despite being so large, did not become an important event that would change history? In fact, if you think about it, (almost) all the important inventions that have changed mankind, such as gunpowder, guns, or metal type printing, all started in China. But China invents and uses it just for a while. For example, gunpowder was invented. Then, when the Ming Dynasty raided(conquered) the Yuan Dynasty, they used gunpowder. Then, once the Ming Dynasty is established, development was just ended. However, the gunpowder went to Europe, where it was gradually improved and innovated. A gun capable of a certain range was first developed in China, but it was only used once. However, when the gun went to Europe, its range was gradually increased.

So why is it that in Europe there has been so much improvement and innovation, but in China there is only invention and no improvement or innovation? This is my opinion too. Each scholar is different, and I am not a historian, so I may be wrong, In my opinion, China was such a great empire (at that time) that when it comes to Asian history, there were only China and neighboring countries. It means that there was no competition between them.

Therefore, because China was so big, for example, when the emperor of China, that is, after the death of Emperor Yongle, Emperor Hong Hui said "there's no need to go out to the seas", "there is nothing to see in other countries", "no" and everything's over. After that, they burned all the ships going out to sea. And they didn't allow ships with more than two masts to be built. The age of sailing is over. But in Europe, there were many kingdoms that were similar in power.

If Columbus had lived in an era when everything could be banned by the Yongle Emperor saying 'no' Columbus would not have been able to discover the New World. By the way, as I said before, if the king of Italy said no, he went to the king of Germany, if the king of Germany said no, he went to France, and if France said no, he went to Spain and won in the end. This was possible at there. Therefore, (in Europe), many similar kingdoms competed and made wars each other so that they could innovate. On the other hand, in Asia, in the East at that time, China was already too big and other countries could not compete with China, so I think that some inventions could have been made first, but improvements and innovations did not follow.

So colonialism in Asia is being suffered by Europe. It was colonized by Europe. So Asia and many ports were forced to open. For example, Macau in China was opened by Portugal, and the port of Manila was opened by Spain. Opium War, everyone, look it up on the Internet. Britain took a lot of goods from China, but British goods were not sold in China. So they sold opium because they were in the red. After the Opium War, China's Hong Kong was vested in Britain. So, many European colonies took over many parts of Asia. For example, Portugal has Macau and Timor, and Britain has Hong Kong, India and Malaysia. (At that time, Malaysia had Singapore and Brunei.) Britain colonized many countries, including Bangladesh, Sri Lanka, Pakistan, and Myanmar. France colonized Cambodia, Vietnam and Laos. The Dutch colonized Indonesia. As I mentioned before, Spain colonized the Philippines, and in 1898, a Spanish fleet and an American fleet fought and the US won.

After 1898, the Philippines was colonized by the United States. Belatedly, Japan also learned from Europe and colonized Taiwan in 1895. And they colonized Korea in 1910. Although they did not colonize all of China, they won the Sino-Japanese War and colonized Manchuria in 1931. If Europeans migrated to the New World or slaves were forcibly migrated, Asians in the era of colonialism were taken as unfree contract workers. Or they went there. You could say this semi-compulsory.

Unfree contract workers are 'indentured workers,' have you heard of kuli(苦力)? Usually, Chinese people were subjected to very hard work, toil. It is said that this is the origin of the Chinese word kuli. So, unfree contract workers are, at that time, people from China, Japan, and even Koreans went to the sugarcane fields in Hawaii. But they had no money to go. I mean, the intermediary paid shipping and living expenses in advance, the workers worked like slaves for 5 years and gained freedom after 5 years. So, people who are in between being slaves and voluntary immigrants, (in other words, working as slaves for 5 years and then being released from the contract to become free workers), we call them indentured workers, and it is believed that Asians (specifically) worked in such a way. So, (many) Chinese went to the US or Australia as coolies, as unfree contract workers.

Then (in the host country), such an exclusion bill, called the Exclusion Act, was created at the time to ban Asian migration. In the early 20th century, there were finally things that prevented migration from traditional migration countries, and Asian migration to the outside world decreased significantly. But movement within Asia continued. Many Chinese people still went to Southeast Asia, and there were many such movements. After World War II, Asian countries that were colonies became independent. So after independence, migration takes place. So, there is migration to traditional migration countries, migration to former migration country, contract labor migration to the Middle East, and migration to latter migration country. Shall we take a look at traditional migration countries, former migration country, or migration to the Middle East?

Migration to traditional migration countries was mostly done by Asians after the 1960s. An important question is why did Asians migrate to the United States, Canada, Australia, and New Zealand after the 1960s? Why do you think that I'm taking an example of 1960s? (The answer is that) Canada in 1962 or 1976, the United States in 1965, and Australia in 1966 or 1973, the Exclusion Act, which prevented immigration of Asians, was repealed. But "why was it in the 60s or 70s" is very important. Globally,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in the 1960s, it is called 難民 and therefore "the great event of the 60s".

It is also an event called the 68 movement in Germany. It was, at that time, the human rights movement was very active, and they might have thought that it was not okay to discriminate against certain races or types of people. However, as a background, you can interpret that the 1960s was an economic boom, so manpower was sorely lacking that they had to abolish (the exclusion policy). So, if most Asian immigrants immigrated to traditional immigration countries such as the US, Canada, Australia, and New Zealand, At that time, until the end of the 1980s, it was the Cold War era, so Vietnam and people in these areas moved to the Soviet Union or East Germany. So, since it was during the Cold War, it would be divided into migration within socialist countries or migration within capitalist countries.

The common characteristics of migration from Asia to North America and Oceania are, earlier I mentioned Stephen Castle as a very important reference book of my lecture. According to the book in 2013, a million and one Asians 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Canada, Australia, etc. The reason for this is the fact that when someone migrates first, the second person has an unexpectedly large-scale chain movement to the United States, Australia, or countries like that as a family reunification clause. The country of origin of migrants has become increasingly diverse in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Especially), In the 1970s and 1980s, a lot of refugees from Vietnam and Indochina came in regarding the Vietnam War or something like that.

However, (after that), many receiving countries, that is, the United States, Canada, Australia, and New Zealand, all prefer skilled migrants, business migrants, and advanced skilled migrants. Former migration country are referring to going to Europe. In Europe, there was a guest worker system in the 1960s. So, there were also guest worker systems in England, France, and Germany (at that time). Rather than working as guest workers, Asians went colonial empire as colonial workers because many countries in Asia were colonized by European countries. Therefore, if people who go to work as guest workers without any connection are called guest workers, those who go because of historical colonial experience in the past are called colonial workers.

That is, going from a colonizer countries to a colony countries. For example, Hong Kong and India were British colonies, so they must have learned English during the colonial period. So Hong Kongers and Indians' (mainly) going to England, Vietnamese going to France, Indonesians migrating to the Netherlands, Filipinos migrating to the US, etc. are all called colonialist movement(migration). In Western Europe, the status of colonial workers was initially better than that of guest workers. The colonial workers were treated almost like quasi-citizens rather than guest workers. However, the status of colonial workers and guest workers has become (similar). The poor status of guest workers gradually improved, and the good status of colonial workers deteriorated, and eventually all of them were reduced as same migrant workers, Professor Stephen Castle explains in the book.

Now there is indentured labor migration to the Middle East. From 1973 to the mid-1980s, there was a massive construction boom in the Middle East. Therefore many workers went there. Later, the scale was reduced, but migration to various occupations (other than the construction sector) increased. So, since the oil crisis in 1973, the oil producing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which have rapidly become wealthy, initially took workers from India, Pakistan, and Bangladesh, which believe in Islam, and then took workers from the Philippines, Thailand, and Korea regardless of religion because that was not enough. So they took migrants from a lot of parts of Asia.

After 1985, the construction boom in the Middle East temporarily diminished, or they built almost everything they wanted to. So there's a lot less contract workers can go to, and there are more immigration towards the service industry instead. What kind of service industry do you think it was? Right. Those are domestic service or nursing service. That's why the number of Asian female migrants going to the Middle East increased significantly. However, the issue of migrant workers in the Middle East is a highly concerning human rights matter. So, famous migration scholar like Hollifield do not call or classify the Middle East as a country of migration, that is, receiving country.

The reason is that in order to become an migration country, the country has to accept foreign migrants. Moreover, the society democratically maintains (respect on) human rights for the overseas migrant to a certain extent, it can be called as migration country. But migrant workers in the Middle East still face many difficulties, such as having their passports confiscated, buying and selling work visas, not being able to bring their families at all, and isolating their lodgings. The reality is that there are many critical views on migration in the Middle East in that point.

Lecture introduction and the concept and history of migration

1-6 Summary and Conclusion

The first week of Korean Society and Migration class was about the lecture introduction and the concept and history of migration.

Now, for the last session, let's summarize the contents of today's lecture. The goal of the first week lecture was a brief introduction to this subject, Korean society and migration, and a basic class to understand this subject.

In the first session, I dealt with the introduction and objectives of the lecture.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was to understand the changes in Korean society through migration to Korean society and migration policy changes. (In other words, in this course) I reviewed the history, current status, and trends of each, focusing on the three streams of migration entering Korea: labor migration, return migration, and marriage migration. In the future, I will compare the three types of migration from a global perspective: labor migration, compatriots migration, and marriage migration. At this time, the global perspective can be divided into a Western perspective and an East Asian perspective. In the future, I will compare the migration phenomenon of the West, such as Europe, and East Asia, such as Japan and Taiwan, and Korea. The purpose is to understand the universality and specificity of Korean migration.

In the second session, I covered what immigration is, the concept of immigration. I told you that the criterion of migration is to change one's residence beyond a certain boundary at a certain point in time, in a certain place, that is, a regional boundary. At this time, the movement that does not cross the boundary is simply called a normal movement or moving. The Korean terms '이주(yijoo)' and '이민(yimin)' were also differentiated in class. Since the Korean term '이주(yijoo)' is a much larger concept, the term '이주' is a term that encompasses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migration. So, it can be divided into domestic migration, internal migration, and international migration. At this time, we call international migration as '이민'. So, the difference between '이주(yijoo)' and '이민(yimin)' in Korean is that '이주(yijoo)' is a much bigger concept, and '이민' is a concept that refers only to international migration that goes into '이주'.

It was a very important point to have a standard period of stay in migration. So I asked if there is a minimum period of stay that is considered immigration. In the meantime, the UN has classified long-term migration for more than one year and short-term migration for 3 months to less than 1 year. Usually, when we say immigration, it meant changing the country of residence for more than one year. However, when comparing statistics between countries on the OECD side, each country has very different standards for the length of stay. So, feeling that it was very difficult to make international comparisons with the statistics of that time, the OECD worked on standardizing migration statistics to enable international comparisons from around 2006.

At that time, the OECD's concern was how to standardize all of these in long-term migration statistics. So, some countries include international student statistics, so they decided to exclude all international student statistics (in the future migration statistics). And the OECD has made the standard of long-term migrants not the length of stay, but the right to stay.

In the third session, I dealt with the types and stages of migrants, and the types of migration or migrants were divided according to their causes as well as their motives. However, I mentioned that there are problems with this type of classification. What was the problem? (The answer was that) When divided by cause, forced migration and voluntary migration were still okay. However, we cannot define a migration as there is just one motive among economic migration, political migration, religious migration, social migration, and cultural migration.

That is, there may be social or cultural reasons for migrating for economic reasons, or economic reasons for migrating religiously. So the motives for migration are not just one, but increasingly ambiguous and increasingly complex, We've studied about that. Studying the types of migration, I also sorted out the concept of a foreigner, a native, a migrant, or a citizen. In addition to the distinction of such concepts, the word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 or '귀화자(naturalized person)'. Then, in Korea, the words '이민자(immigrant)', '국민(people)', or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 are, there may exist overseas Koreans on the point of view of other countries. And the Korean word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 corresponds to the word 'ethnizen' in English, meaning a permanent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ith Korean nationality.

So, I said that naturalized people in Korea are of Korean descent if they are in an overseas country, such as the United States, but they are called foreign nationals because they have US nationality. In the recent changes in migration, the classification by type or by stage is becoming more and more ambiguous. There is a distinction between short-term migration and long-term migration, but I also said that the distinction is not so clear because short-term migrants may change to long-term migrants. As a result, the effect (of this change) on receiving country, sending country and migrants. Increasingly, ultranationalism is on the rise these days. Next, we also looked at the change in the meaning of diaspora.

In the fourth session, I covered the history of global migration. From the migration of homo sapiens, I talked to you about when migration changed to migration, in other words, when did the border come into being or from when the concept of nation has been made. So, I also talked that modern times in Europe differs from modern times in Asia, China or Korea. Changes in global migration include intercontinental migration of Homo sapiens a very long time ago. Migration to the New Continent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Then today's migration from the third world to the developed countries. It can be classified as three of them. Among these, I think the most important event was Columbus' discovery of the New World. The most important event that influenced global migration was Columbus' discovery of the New World. Giving the lecture about it, I also told you why Columbus went west at that time instead of going east, which was already known overland.

In the fifth session, we looked at the history of migration in Asia. European modernity and Asian modernity were different. In other words, European modernity started with the French Revolution. After the discovery of the New World by Columbus, Europeans came to Asia through colonialism and imperialism. So Asia stayed in the ancient and medieval for a long period of time. Then as Western ships came to Asia, that is, as demanding opening of ports, the modern of Asia was a forced modern by Western colonialism. On the other hand, much earlier than Columbus's expedition, there was an expedition of Zheng He almost 80 years ago. We also looked at why Zheng He's expedition did not become an important historical event that would change world history. So, (everyone), if you have time later, I also told you to compare Zheng He's expedition and Columbus's expedition in a little more detail.

After the discovery of the New World by Columbus, colonialism and imperialism expanded. Many parts of Asia were colonized. Then, after World War II, many countries in Asia became independent, and people from Asian countries migrated to traditional or former migration countries and to the Middle East by contract. What is the most significant change in migration in Asia from World War II to modern times? I want you to think about when and why this phenomenon appeared. This will be covered in next week's lecture. Thank you.

讲义

课程介绍及移民的概念和历史

1-1

课程介绍和目标

大家好。我是担任韩国社会和移民课程的李惠景教授。

今天第一周要介绍韩国社会和移民课程，也想讲关于移民的概念和历史。我曾担任过多个委员会的工作，包括妇女和家庭事务部、司法部、就业和劳工部以及国家统计局。一直以来，我的研究主题是全球化和韩国的移民现象、移民政策、社会统合政策、移民的女性化、照顾移民和性别问题、以及中国同胞的回归移民。

说一下今天这门课的目标。本周的学习目标是韩国社会和移民的介绍，然后介绍这门课的目标。这是一门基础课程，旨在了解韩国社会和移民这一主题。具体来说，你们会听到与移民有关的概念、类型和阶段、全球移民史、亚洲地区移民史，通过观察亚洲地区移民怎样变化，想展示一下韩国社会和移民的总体背景。

本周课程的关键词是移民、移民的类型和阶段和全球移民的历史、亚洲地区移民的历史和它们变化等等。

本周的课程目录由六个部分组成。

今天是第一节课。我来介绍一下课程和目标。这门课，韩国社会和移民课程的目标是通过改变进入韩国社会的移民和移民政策 来了解韩国社会的变化。

我把进入韩国的移民分为三个大趋势。第一是东南亚人的劳动移民，第二是以中国同胞为代表的同胞回归移民，第三是东南亚女性结婚移民。我们将聚焦于这三种移民趋势,了解各自的历史、现状和趋势等。把这三种类型的移民：劳工移民，同胞移民，婚姻移民 与其只关注韩国，不如从全球角度进行比较。

我所说的全球观点可以再次分为西方观点和东方观点。西方的观点是指以欧洲或美洲为代表的西方。东方，这个亚洲太广阔，我们在课堂上说的亚洲是 将焦点放在日本和台湾等东亚或东北亚。

因此，通过比较欧洲等西方国家和日本、台湾等东亚和韩国的移民现象，韩国移民与这些相似之处，即普遍性是什么，与其他国家有何不同或特殊之处。那么告诉你们上课资料。

虽然我们在整个10周的课程中没有教材,但至少有两本书是有帮助的基础资料。

第一本书是我李慧京、李真英、薛东勋、郑基善、李奎勇、尹仁真、金贤美、韩建洙教授 这是一本名为《移民政策论》的书，于2016年出版，由我们几个人共同撰写。第二本书由斯蒂芬·卡斯尔、马克·米勒出版，由韩国移民协会于2013年翻译，名为《移民时代》。当然 史蒂芬·卡斯尔教授的《移民时代》这本书已经出版到第六版了，在我们韩国移民协会翻译时，翻译了第四版。有兴趣的人，请看一下最近的第六版。除了这两本教材之外，每周课程参考的书和材料 会通过字幕来告诉大家的。

听我的课，会有一点统计的。如果出来一些关于移民者的统计，到时候大家要区分一下是流量统计还是低流量统计。

因此，移民者统计基本上可分为流量统计和低流量统计。流量就是'flow'的意思。就是'逝'的意思，说在特定时间和特定场所的'flow'统计。因此，这是一个统计数字，反映流入和流出人数的统计。例如，2022年今年以雇佣许可制进入韩国的外国人规模会是多少？大概有6万人的话，这应该是流量统计吧。

然后，还有低量统计。英语是stock统计。“Stock”这个词的意思是堆积或是累积，指在特定时间和特定地点的stock的统计。

例如，2022年滞留在韩国的外国人规模超过了200万人。当然，2019年是250万左右。但是受新冠疫情的影响减少了一点，2022年就是现在说超过200万人的话，大家可以理解为这是低量统计。2020年全世界移民者规模是2亿8千万的话，这也是flow，即不是流量统计，是stock，可以理解为是低量统计。查找与这些迁移相关的统计也很容易。

如果大家想找国际统计的话，可以进入UN网站。所以，当进入联合国的主页看，里边有很多指导，如果您点击“International Migration”，可以看到有关国际移民的各种统计。因此，我也进入该网站发现，2020年全球移民人数约为2.8亿。

关于韩国的统计数据也很容易找到。就是韩国统计厅，大家只要去谷歌或NAVER输入KOSIS就可以了。那么就会出现KOSIS国家统计门户网站。进入后，就会出现国内统计、国际统计等多种指导。那么进入国内统计，按主题也可以找到或者进入国内统计，然后按机构进入，中央行政机关的统计数据就会如此联系。那么在中央行政机关中点击法务部就可以找到出入境相关统计数据。点击雇佣劳动部，您可以找到与雇佣许可制相关的统计数据。点击女性家族部，可以找到结婚移民者或多文化家庭的规模或现状等的统计。

韩国的KOSIS国家统计门户网站上也有国际统计。所以不是国内统计,这次点击国际统计进如的话,又显示各种主题。其中,点击各国际组织的统计,再进入其中就会出现OECD等多种信息。但是其中点击'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的话,会出现各国国际移民的详细统计。希望大家用与相同的方法,尽情地寻找一下国际统计或与韩国相关的移民统计。

课程介绍及移民的概念和历史

1-2 移民是什么？

开始第二节课。第二节课的题目是移民是什么。

首先，我们思考一下移民的概念。箭头会从下面射出来。你想移民是哪个箭头？英语是migration，韩语是移住，也叫移民。但暂时在这里用移住这个词。

现在能看到很多箭头，箭头很长，说明距离很远。即使距离很远，在一个单元格中也会看到不越线的箭头。有些箭头很短，就是说，虽然距离很短，但也会有越过警戒线的箭头。那么长箭头是移住吗？还是短，但越过线的箭头是移住？

正确答案是，与线的长度无关，即使线短，越过界限的就是移住。因此，移住的标准是在特定时间点和特定地点跨越区域边界。因此，跨越界限改变居住地，我们称之为migration。不越界的移动，即不越线的移动，只是叫做移动或搬家。

根据韩国Census的定义，在同一城市或县内移动是移动。跨越市、县行政边界的移动称为移住。但是在韩国，如果你越过首尔的边界去京畿道，那就是移住，但这种移住是国内移住。那样的话，要成为国际移住，就必须跨越国家边界。所以联合国将变更通常居住国家的情况称为移民，即migration。

因此,英语中只有一个单词是"移民",但在韩语中有时被称为"移住",有时也被称为"移民"的情况。我们需要在这里区分"移住"和"移民"的概念。

因此,"移住"一词既包括国内移住,也包括国际移住。然而,当我们说"移民"时,我们不包括国内移民,而只包括国际移民。因此,韩语中的国内移住用英语是internal migration。在韩语中,国际移住,即移民,是international migration。那么,大家是否感觉到韩语中"移住"和"移民"之间的区别?没错。移住这个词是一个更大的概念。所以"移住"这个词包括国内移民、国际移民。移住中的移民就是国际移民,只有international migration才叫移民。再次我们在migration这个英语前面加上in,就是in-migration或者"migration"前面加上out,也用out-migration这个词。所以,如果是国内移动的话,in-migration就是迁入,out-migration是迁出。

假设京畿道的人搬到首尔去了。那就等于迁入了。以前在京畿道做迁出申报,去首尔市还做了迁入申报。现在世界变得更加舒适,在网上可以做所有事情。只要在一个地方申报,迁入/迁出都可以直接解决。国际上in-migration,移入,然后out-migration,移出。所以在韩语中,如果是国内移动的话,主要使用"迁入/迁出"这个词语。在国际移动中,主要使用"转入/移出"一词。

现在,我想谈谈移住的趋势,即migration stream。移住的潮流,现在在脑海中想象一下两个地方。有Origin。发源地,开始的地方。然后应该有目的地吧,destination。

现在我们要讨论移民,想象一下从韩国到美国?那么,想象一下origin country-韩国,destination country-美国。那么有200个人从A到B,即韩国到美国。但,假设有50个人从美国来到韩国。那么韩国和美国之间的总移住是gross migration或total migration。

那么, 总移住量是多少呢? 没错。不管怎样, 有200人出去, 50人进来, 但全体移动的人不是250人嘛。所以总移住的人口为250人。那么净移住是多少呢? 净移住是net migration。我们不是经常用net这个词嘛。Net income, 净收入那个是什么? 从总收入中扣除税款等等之后, 实际收到的收入就是。同样, 净移住出去了又进来了, 那进来了多少呢?

但这时候去美国的有200人, 从美国来韩国的有50人, 减去差值, 一侧有 150 人进入, 另一侧有 150 人离开。一方有150人进来, 所以我们要想想这是谁的立场。

如果是韩国的立场, 会怎么样呢? 如果站在韩国的立场上, -150人, 就是说150人出去了。如果站在美国的立场上, 站在B的立场上, +150人, 是150人进来了。所以, 取决于它是 A 还是 B, out 还是 in。也就是说, 是搬出还是搬入, 都可能有所不同。

从全世界移住的趋势来看, 一个国家内移动是国内移住。International Migration, 例如从京畿道去首尔。但是总的来说, 很多国家的这种现象都是从农村到城市的。因此, 从农村到城市的移动有时被称为城市化现象作为一个概念。在国际移住中也能看到趋势。最常见的趋势是LDC(Least Developed Country) 就是说, 以前我们习惯地称它为发展中国家, 但这语感不太好吧。因此, 从发展中国家到MDC (More Developed Country) 发达国家, 从发展中国家到发达国家的趋势应该很多吧。但是, 如果大家搜索UN数据, 你会看到南北移住、南南移住等表达方式。

那么大家会想到南北移住是什么, 南南移住是什么呢? 那就想象一下有地球仪吧。有圆圆的地球仪, 以地球仪的赤道为准, 南方主要以Least Developed Country居多。以赤道为准, 北方, 即North是More Developed Country, 有很多发达国家, 可以理解为南北移住是从不发达国家或发展中国家到发达国家的移住。那么, 你们可以将南南移住视为发展中国家之间的大量移民。

所以, 如果我之前展示给你们联合国网站上, 用地图之类的东西给大家看得很清楚。南北移住量最多。但令人惊讶的是, 最近南南移住也很多, 几乎和南北移住差不多。因为从南到北的移住没有那么自由, 也就是说, 发达国家阻止进入的也相当多, 因此要是难民要移动 也并不是所有的非洲或亚洲难民都能去欧洲, 所以他们逃难到非洲内的邻国。

所以, 你可以理解为最近南南移住非常多, 跟南北移居几乎相似。当然, 发达国家内也有一些北北移住。有一些从发达国家向发展中国家的北南移住, 尽管如此, 作为全球趋势, 最常见的还是南北移住和南南移住。大家可以在联合国网站上查看。

我们告诉你们标准的滞留时间。你认为有最低限度的停留时间可以看作移民吗? 当然是的。那么, 您认为可以视为移民的最短停留期间是几年或几个月? 大家想一想。联合国已经谈过了。

UN从很早开始就谈论了很多关于移民问题, 它是一个揭示概念, 收集统计数据的机构。联合国以1年以上为标准。所以1年以上被称为长期移民。然后3个月以上到1年以下的情况称为短期移民 联合国基本上认为, 移民是改变正常居住国超过一年的情况, 也就是说, 如果我们看联合国, 那么视为移民的最小滞留期限就是1年。但实际情况是, 每个国家被视为移民的滞留时间都不同。比如有些国家把它看成是一年, 就像联合国的概念一样。

例如, 欧洲许多国家都这样, 瑞典、芬兰、法国等国家以1年为基准。但是在欧洲, 比如说德国, 以居住签证在德国停留一周以上, 就会统计为移民。因此, 如果超过一年, 在法国就是移民者, 但是在德国, 如果居留签证超过一周就是移民者。怎么把这两个做一样的比较, 真让人烦恼。

如果把目光转向亚洲, 3个月是韩国和日本最短的停留时间。所以如果想在韩国停留3个月以上, 就需要到法务部所属出入境管理事务所办理外国人登记。所以有3个月的标准。那么现在问题就来了。每个国家视为移民的停留时间都太不一样了。很长一段时间以来, 一直在思考如何做到这一点。但是从2006年开始, 这些苦恼变得更加严重。所以OECD做出一些努力。大家想想这个时期为什么从2006年开始的。当时想比较欧洲国家的统计结果, 因为停留时间太不一样了, 国家之间几乎不能比较移民统计。因此, OECD认为有必要对移民统计进行标准化, 以便进行国际比较。

此外, 例如, 这不只是停留时间的问题。有些国家, 例如在英国, 移民统计 包括所有留学生或工作假期者, 并称为移民。但, 在德国和法国的统计中, 外国学生和工作假期被排除在移民名单之外。因此, 很难直接比较英国统计和德国或法国的统计。因此, OECD要将移民者的统计标准化。所以像联合国一样, 1年以上, 这样的停留时间不行。因此, 作为停留权利, define移民者吧, 制定概念吧。然后在所有移民者统计中除去留学生或打工度假。进行这种标准化的努力。

那么, 看下一个环节之前, 到底为什么是2006年呢? 大家怎么看呢? 从2006年开始, 欧洲开始正式努力成为欧盟, 那个时期就是2006年。因此, 在此之前, 意大利利用意大利语做出了移民统计数据, 虽然在自己国家的网站上公布了, 但主要利用者只是自己国家的人。

然而, 自从2006年欧盟内部流动变得非常自由以后, 在欧洲, 欧盟内的每个国家 英国、法国、德国、意大利和西班牙 需要对这些国家的统计数据标准化的严重性 已经显现出来了。我是这么想的。因此, UN所说的长期移民或者短期移民不用停留时间, OECD还是使用不同词语。这就是区分永久移民或半永久移民和临时移民的原因。因此, 永久移民是 permanent migration, 临时移民是 temporary migration。因此, 不要按停留期间区分移民者, 而是主张从那个人进来的时候获得的停留权利来 区分这个人是移民者、永久移民者、临时移民者。

所以，在OECD中，包括永久移民或准永久移民的概念就是 通过移民轨道进入的或者从一开始就获得永久居住权的情况， 或者可以连续更新的临时居留证的， 或者欧盟公民可以在欧盟内自由移动。所以说,那些拥有欧盟公民权的人，在欧盟内可以自由移动的人被称为永久移民。

因此，以OECD概念的永久或者准永久移民者为例 专业人士、就业移民者还可以带家人。即专业人士、工作移民及其他的家属 或者为团聚或组建新家庭而移民的人， 或者人道主义移民，人道主义移民是什么？难民申请者或难民申请被准的人，这些人及他们的家庭成员， 其他海外同胞移民或者退休归国同胞， 这种情况可以看做是永久轨道。OECD所说的temporary migrants或暂时，临时性移民者就是 留学生、实习生、打工度假者、季节性工人， 然后，还有派驻人员。 所以有在企业和企业之间来回工作的人。短期担任交换教授的人，他们通常去六个月或一年，然后回来。就是有固定期限的人或者其他临时劳动者 其他不能更新的临时劳动者或者也只能在有限的条件下更新的移民者 被定义为暂时移民者或临时移民者。所以如果你看看移民者的概念。联合国的概念是指改变通常居住国的人或者改变居住国 1年以上的人。而OECD说的移民者就是外国人口,即外国人。

国籍是哪。是韩国国籍的还是外国国籍的。此外，海外出生人口，在国内出生的,还是海外出生的。那么，在海外出生的人也会成为移民者。然后，还经常使用移住背景人口这个词。移住背景人口是指，举例来说，一个人出生在美国。但是父母移民过来的。就是有移民背景父母的人。所以当我们谈论移住背景人口时，大家听说过第1代移民者、第1.5代移民者、第2代移民，这样的话吧？什么是第一代移民呢？第一代移民就是在那个个人成年后移民的。

那么，大家应该知道了第二代移民者吧。如果父母移民到美国。所以出生在美国。那就是第二代移民者。那移第1.5代移民者是什么？为什么有小数点？不是成人，而是未成年的时候移民的人就是。我喜欢的歌手中有朴贞贤。歌唱得很有力的歌手。在他六七岁的时候，全家都跟着父亲移民到了美国。如果是那种情况，你很小的时候移民到美国，那就叫第1.5代移民者。所以，我们可以把第1代移民者、第1.5代移民者、第2代移民者称为移民背景人口。因此，OECD的移民概念是，刚才我说的国籍是外国人，外国人人口，是不是在国外出生的，海外出生人口，移住背景和移住背景人口的综和概念被称为移民者。因此，OECD的移民概念比联合国的概念更宽泛。Broad吧。所以，当你查看任何数据时，你应该记住，这个概念是不同的，这取决于它是根据联合国标准说的移民者 还是根据经合OECD统计数据说的移民者。

课程介绍及移民的概念和历史

1-3 移民（者）的类型和阶段

韩国社会和移民的第三节课。

第三时间:移民的类型和阶段或移民的类型和阶段。 移民的类型可以根据原因和动机来划分。 如果以原因为标准,可以分为强制移民和自发移民。 提到强制移民者或自发移民者, 您会想到什么例子? 请考虑一下。

根据动机划分, 也可以分为经济移民、政治移民、宗教移民、社会移民和文化移民。 我们试着想想, 我们分成这种类型时, 认为问题是什么。 按原因划分, 强制移民会想到谁? 想起了奴隶。 所以有人在非洲被俘为奴, 带到美国或中南美洲。 如今, 当我们说强迫移民时, 我们也谈论被迫移民的人, 即战争难民。

那么,自发移民是与强制移民完全相反的概念, 就是因为自己愿意而自发移民。 因此,即使是同样的19世纪, 欧洲人自发地大规模移民到美国,相比之下, 非洲人被强制当作奴隶带到美国。

如果以动机为标准划分, 经济移民, 当然是为了赚很多钱而移民到美国, 政治移民, 躲避政治镇压, 宗教移民, 那个国家没有宗教自由, 所以说在伊斯兰国家的基督教徒, 或者在基督教国家的伊斯兰宗教。 因此, 为了自由地相信自己所信仰的宗教,也有因为宗教而移民的情况。 为了子女的教育而去的情况我们称之为社会移民。 最近也有因为喜欢K-POP而移民到韩国的情况。 那种情况我们称之为文化移民。

但是经济移民, 政治移民, 社会移民, 文化移民, 这样划分的话 你觉得这样分的问题是什么? 没错。 我们不仅仅是一个经济移民, 还有经济动机。 但是子女的教育很重要,宗教自由也很重要,很多情况都很复杂。 所以理由不止一个。 因此, 只有一个原因, 这个人是经济移民, 而不是社会移民。 很难这样断开。 所以问题是界限非常模糊。

移民类型根据移民期间不同，只在特定季节移民的情况被称为季节移民。然后通常比1年短或比5年短的情况被称为短期移民。长期移民在涉及永久移民或进入永久轨道时被称为"永久移民"。但是,从移民动机来看,这是经济移民、文化移民还是宗教移民越来越模糊。移民的时间很短,或者是一个特定的季节,这也会变得模糊吗?是的,移民的期限也变得模糊了。虽然是短期移民,但也有长期移民的情况。或者长期移民进来后又回去成为短期移民的情况也有。

第四,移民的类型分为是不是移民的主体。就是说,爸爸找到工作后移民的话,爸爸就是移民的主体。因此,它是主要的移民。这样的情况下,父亲的配偶,还有父亲的子女们都是跟随的人,但是,父亲的配偶和子女是跟随的人,所以用英语被称为'tide movers.'

然而,关于谁是这种移民的主体这一概念,又出现了移民选择性概念。比如说从我国移民到美国,每个人都是随机移民吗?如果每个人都随机移民,可以说移民没有选择性。没有Selectivity。但事实上,移民有一定程度的选择性。

比如说,从韩国移民到美国,以前主要是男人先去。所以,这意味着有性别的selectivity,男性而不是女性。年龄也有selectivity。如果主要移居的话,年轻、能工作的年龄的人会先去。所以老人和孩子以后会跟着去的。你觉得阶层怎么样?

是跨越国境的问题,即因为从韩国移民到美国,所以非常贫困的人很难从韩国移居到美国。也就是说,中流阶层先移民的情况较多。下流阶层以后去移民,上流阶层没有必要去。所以阶层来看,移民有一定的选择性。但是,过去移民的选择性到了现在逐渐改变。怎么改变呢,以前主要是男性移民,最近女人先去移民的情况也越来越多。从年龄来看,以前主要是年轻人,即生产年龄人口为了工作而移民。甚至还出现了退休移民的说法。所以高龄者为了更有效地使用自己的年金而移民。在阶层上也会发生一些变化。(总体来看,移民的选择性越来越多样化。)

在这些变化中，不是男人先移民，而是女人主动先移民的情况，被称为“移民女性化”根据法律上的滞留权利，也可以区分移民。分为合法移民和非法移民。但是合法移民者没有问题，但非法移民者这一用语是有问题的。也就是说，如果叫“非法移民者”，这个人就是“非法的”，杀什么人了么？如此大的非法，即像严重违法法律一样，用语太强了。因此，最近有人主张不要使用“非法移民者”一词。也就是说，以前使用 Illegal migrants这个词，但越到最近，比起illegal migrants一词，用“Undocumented migrants”韩语称为“未登记移民者”或者irregular migrants, non-compliant migrants。像这样，指未登记移民者的用语越来越多样化。

在用语使用上，敏感（感性）是好的现象。与移民相关的概念中，外国人、本国人、移民者、国民的概念也不是像外国人、本国人、移民者、国民这样简单。最近还有永久居住权者的说法。而且获得一定程度的永久居住权后，通过入籍考试可以成为入籍者。那么，我们想一想我们的国家的情况吧。韩国有韩国国籍的韩国人。那个人就是国内人。周围有不拥有韩国国籍的越南移民者。是外国人吧。但是在此期间，越南人和中国人获得了韩国的永久居住权。那么是永久居住权者但是，如果他们以后通过入籍考试成为韩国入籍者，那么现在他们就是韩国国民了。因此，永久居住权者的下一个阶段是入籍者。

那么，韩国人去美国的情况，比如说在美国的海外韩国人，即有在美韩人。这时候，海外韩人就是把在外国民和外国同胞加起来的观念。在外国国民就是虽然去了美国，但拥有韩国国籍的人。外国同胞是意味着拥有美国国籍的同胞。就是韩裔美国国籍者。还有那之间有什么样的人呢，就像我们国家有中国人-永久居住权和越南人-永久居住权一样，韩国国民去美国领取永久居住权的事例，这不是美国市民权。把这些人们叫ethnizen。

因此, 永久居住权者, 即英语中与"Denizen"概念相配的用语是"Ethnizen"。即, 虽然是在海外的韩国的国籍, 但拥有该国永久居住权的是Ethnizen。根据移民的阶段, 有很多种区分。在大多数国家, 我国的普查中也会问出生地、5年前的居住地、1年前的居住地、现在的居住地等。

在很多国家进行普查时调查出生地、几年前的居住地、1年前的居住地、现在的居住地等。他们提出这个要求是为了弄清移民的阶段。如果我们在韩国, 日本和美国吧。在韩国出生的人, 5年前也在韩国, 1年前也在韩国, 如果现在也在韩国。这个人一辈子都是非移民, 即从来没移民过的情况。但是, 有的人在韩国出生并居住, 一年前去了美国, 现在还在美国的话, 一生中只有一次从韩国去了美国的。所以这种时候就叫第一次移民。这时候, 1年前去美国或者5年前去美国, 那个时间并不重要, 只去过一次的情况, 我们称之为"第一次移民"。

比如说在韩国, 然后去了日本, 然后去了美国, 因为换了两次地方, 所以称之为第二次移民。但是韩国人去了美国。所以在美国生活了几年、10年或20年之后, 再回到了韩国。如果退休后回来的话, 就是退休移民。但是, 还没有到退休的年龄回来的这种情况下, 就叫做回归移民。很多同胞去澳大利亚做生意, 比起在澳大利亚的事业机会, 在韩国的事业机会更好, 所以去移民后再回来的人也很多。那种情况我们称之为回归移民。

有些人说, 妻子和孩子们一直住在澳大利亚, 韩国丈夫在韩国和澳大利亚之间来回走动。或者整个家庭都往返于韩国和澳大利亚之间。像这样往返于两国时, 被称为循环移民(即Circular migration)。但是我们这样成为第2次和第3次移民的时候 如果要叫阶段移民的话 (需要阶段) 例如, 这是国内移居中更常用的概念。从非常远的村庄, 从非常远的地方出来后, 又去了稍微大一点的城镇。如果觉得在大城市也值得居住, (以后) 来到首尔的话, 就会逐渐走向更大的城市。这种情况叫做阶段性移民。

现在，国际移民要成为阶段性移民的话，比如说韩国人移民到新西兰了，但是在新西兰没有多少商机，因为人口少。所以最终还是搬到澳大利亚的话，这种情况，即向越来越复杂的国家或更大的国家的情况被称为阶段移民。（阶段移民）相关的概念有chain migration、连锁移民等。那么连锁移民是什么？Chain是什么？是圆环。圆环是环和环连接起来的。因此，那边有人（连接后）走的情况就是Chain migration。

比如说韩国人去美国的话，去美国的哪里呢？是去芝加哥，还是亚特兰大，还是洛杉矶？如果我的很多亲戚现在都在亚特兰大的话，那样的情况下我去亲戚们所在的地方。因为有亲戚，所以想从亲戚那里得到第一次定居时的帮助，或者为了得到信息而去亲戚所在的地方的情况被称为连锁移民。所以无论是不是韩国人，很多人移居到陌生的其他国家时，阶段性移民或连锁移民的情况比较多。

最近移民发生了很多变化。也就是说，类型或阶段的区分越来越模糊。例如，短期移民和长期移民的区分变得模糊了。比如说，在德国有很多来自土耳其的移民者。德国之所以有很多土耳其出身的移民者，是因为这些土耳其出身的移民者从德国使用Guestworker Program(邀请劳动者制度)的1960年代开始到1973年为止来了很多。但是，德国从1973年开始停止了Guest Worker Program。因此，从1973年开始，政府出台了鼓励来自guest worker的土耳其人返回土耳其的政策。结果，有些人回去了。

但是1973年以后因为没有多少工作岗位，所以留在德国的人也很多。这些留在德国的人经过1980年代和1990年代，已经在德国生活了10年、20年以上不能和家人一直分开生活吧？德国也是人权国家，当时德国的法院向德国缴纳税金，合法居住这么久的(土耳其人)有权邀请家人。即允许他们家庭团聚。因此，在土耳其的所有家人或子女可以来到德国。所以德国国内形成了土耳其裔移民者社区。因此，目前德国最大的移民群体之一是土耳其移民者。

那么,虽然开始是短期移民,但最终是长期移民或永久移民。因此,这是一个短期移民和长期移民的区分变得模糊的一个很好的例子。所以这样是第一次移民还是第二次移民或者短期还是长期, 这些之间的区别变得模糊不清的原因是因为最近循环移民有所增加。那么循环移民是什么呢? Circular migration,即移民循环往复。但是为什么移民到某个地方而不停留在那里, 为什么会出现这种转动的现象呢?

大家在以前,(这时候的过去是什么时候的过去? 比较一下60年代、80年代和今天的2000年代吧?) 以前韩国人移民美国的话, 房子也卖光了。像再也回不了韩国一样, 和家人分手, 或者和亲戚们分手后去了美国。

但是2020年的或者2010年的现代人从韩国去美国, 或者澳大利亚。如果到了美国。或者刚到澳大利亚。不用说80年代或60年代。让我们考虑一下80年代和2000年代韩国和美国之间的飞机价格吧。我去美国留学的时候呢, 在美国直到学习结束, 如果想获得社会学博士学位, 需要6年、7年的时间。在那6-7年里, 你打算短期访问韩国? 这是无法想象的事情。为什么呢? 当时我认为以韩国人的收入水平来看, 往返于韩国和美国之间的飞机价格非常高。

我80年代在美国，当时的通信也是，大家什么时候开始用智能手机的？大家手里握着的那个智能手机是从什么时候开始用的？我80年代在美国学习的时候当然没有智能手机。那时候连网络都没有。刚开始学习的时候给父母寄了信。当然也没有邮箱。所以给妈妈写信。去了一周，妈妈看完后回复那封信，来我这里还需要一周，很远。但是也有2000年代现在我们的孩子在美国学习的情况。很多人说，在美国有子女的情况下，每当放假时孩子们都会进来。为什么？比起现在韩国人的收入，往返于韩国和美国之间的飞机价格并不高。最近还出现了很多低价飞机。最近我们的孩子们在网上敲打着，用非常便宜的低价航空往返于韩国和美国。以前去美国的人也有信和国际电话。但是价格很贵，我在美国学习的时候给父母打电话，父母一收到“电话费就觉得贵，快挂吧。”您只说了这句话。现在我们的国际电话怎么样？就是免费用的嘛。只有电话是免费的吗？用画面进行视频通话几乎都是免费的。交通通信的变化，廉价化，还有全球性的全球化通过这些，在美国的朋友们可以一直看韩国新闻。可以继续和韩国的家人进行视频通话。虽然在美国，但是对韩国的情况很了解。所以可以来回走动。因此，区分变得如此模糊是因为受到交通和通信技术的影响。再进一步想想这对输入国、输出国和移民者有什么影响吧。

我提到过，如今短期和长期移民之间的区别越来越模糊。这样的现象对输入国、输出国和移民者产生的影响是什么呢？答案是超国家主义（脱离国家主义）的抬头。社会科学区分了超国家主义、脱离国家主义。超国家主义英语叫‘transnationalism’，脱离国家主义叫‘postnationalism’。这时的脱离国家主义就是超越了国家，因为超国家主义是trans，所以意味着脚踏两只船。因此，如果流入国、输出国，如果是韩国和美国，在韩国和美国双腿并举的状态可以看作是超国家主义。韩国和美国之间的脱离国家主义意味着韩国也没有关系，美国也没有关系。因此，在欧盟内部，德国人也可以去法国工作，也可以去英国工作，因为（在欧盟内部）可以自由移动，所以脱离国家主义的概念是可能的，但是除了欧盟以外的大部分国家还没有发展到脱离国家主义的概念。也就是说，在美国和英国或美国在韩国脚踏两只船的超国家主义移民者越来越多。

从更现实的角度来看，diaspora的概念本身也感觉非常不同。当谈到过去在短期和长期移民之间有明显区分的diaspora的话，以前，说起Diaspora，最具代表性的例子就是犹太人。在德国被驱逐出境。或者以前在西班牙犹太人被驱逐出境，所以以前去了俄罗斯。在这种情况下，他们再也不能回到自己生活的西班牙或故乡了。因此，以前的Diaspora是悲伤的存在。但是最近的diaspora，比如说中国的发展，中国能在那么短的时间内发展起来的原因是，您听说过东南亚华侨在中国沿海城市建厂、投资大吗？也就是说，华侨是带动中国经济发展的英雄。像这样，从过去的Diaspora，即悲伤的存在，今天，由于该国重要的积极存在，Diaspora的本身意义发生了变化。

课程介绍及移民的概念和历史

1-4

全球移民史

今天是韩国社会和移民的第四节课。第四节课要讲全球移民的历史。

移民是从什么时候开始的？答案就是伴随着人类的开始。现在这里应该有几个YouTube网站在显示。看完这几个YouTube视频后的感觉怎么样？这些YouTube视频展示着智人的移住。YouTube视频来看，他们从非洲东部出发，移动到非洲大陆，很久以前，因为地球的海平面非常低，所以从非洲到中东的路，即陆路稍微开放的时候，一群智人从非洲向中东移动了。所以经过中东，一群智人继续前往亚洲，开放了今天的印度尼西亚的时候，因为海平面非常低，所以一直走陆路，然后坐木筏到了澳大利亚。另一群智人在亚洲继续往东北去，海平面非常低的时候，通过陆路越到了美洲大陆。他们成为美洲原住民后，沿着西边的海岸往下去，最终到了南美。结果这些YouTube显示的重要事实是什么？人类的起源是一个根源。

所以，我们今天所想的黄种人，黑种人，白种人等，虽然我们不太喜欢人种这个词，历史上人种或者种族是很久以后才分化的。所以说，人类的起源是一个根源，但我们忘了这个fact 如果想人种或者种族有差异的话，这是一个很大的误解。我想给你们介绍一本书。它是“The Global Prehistory of human migration”。这本书是Peter Bellwood教授在2015年编辑的。这本书的出发点是Immanuel Ness教授向全世界学者发送电子邮件，让他们要求参与而编辑的以《The Encyclopedia of Human Migration》为基础出版的。Immanuel Ness教授拜托了文章，我记得写给他一些跟韩国有关的文章。

但是encyclopediai再列为"The Global Prehistory of human migration" 想看全球移民史的, 我推荐2015年版。这是1991年发生的一个案例。在阿尔卑斯地区登山的一位登山者发现了古老的遗骸。他就报警了。警察怀疑是杀人事件或者失踪事件 用韩国方式来, 把那个遗骸送到国家检查机关。

现在看, 这个遗骸是BC3300年或者3150年左右的。以现在来看, 这几乎就是5000年前的人了。现在那个遗骸保存在意大利波尔扎诺的考古博物馆里。但是,通过利用这些遗骸和周围的工具或者种子 通过对这些的生物学和考古学分析, 这些遗骸还展示了旧石器时代的人 移居到阿尔卑斯的哪个地区的分析结果。原来这个人当时在穿越阿尔卑斯山各个地区的途中, 越过山脉时死亡的。但埋在冰川中, 却保存了5000年。后来因地球变暖现象, 于1991年被发现的。即, 通过这样的考古学或者遗骸相关的资料来揭示着关于过去的移住历史。那么第二个问题, 你们想移住是什么时候变成移民的呢? 移住变成移民了, 是什么意思? 移居是包括国内移住、国际移住。移民就是越境。所以, 换句话说, 国境或者国家又是什么时候出现的呢? 跟这个也有关系。

国家或者国境是从什么时候出现的呢? 西方认为近代国家的开始是美国革命或法国革命。我现在说'在西方'。这个词很重要。就是说, 西方和东方, 它们俩的概念非常不同。首先近代这个词在英语里是modern。

但是用韩语说的话, 近代觉得近代比现代稍微早一点。在这里把近代和现代理解为'modern'就可以了。在西方, 近代国家或者近代的概念就是美国革命, 是始于1775年, 1783年从英国独立出来的事件, 就是在18世纪后期, 法国革命在1789年发生, 所以这也可以看作是18世纪后期。在社会上, 身份制度已经崩溃, 转变为阶级制度的时候。

最代表性的就是法国大革命。法国大革命是君主制结束、共和制开始的时期。在经济上，封建制度崩溃和资本主义诞生的时刻。然，英国是17世纪，欧洲本土是18世纪，德国是19世纪，根据国家的不同，资本主义的诞生时间也会有所不同。如果认为最快的英国是17世纪。在哲学和文化方面，也说摆脱以宗教为中心的思想，转变为以人为中心的文艺复兴时期或宗教改革时期。最代表性的是16世纪路德的宗教改革时期。刚才也说过，欧洲所有的近代和亚洲，即，中国或韩国的近代时期一样还是不一样？在西方，这种时期区分得不太明确。当然是因为西方先进行了这种分类。即，古代是在希腊罗马时代、在中世纪、在庄园时代、现代是，法国大革命以后，就这样明确地区分。

但在亚洲，古代，很明确。但是我们从什么时候开始将亚洲视为现代的呢？这个有点模糊。这个我们以后再看看吧。全球移民的变化最早的是洲际移住。这是从非洲到中东再到亚洲和欧洲就是洲际移住 然后是移民到新大陆，即大规模欧洲人 移民到美国、澳大利亚、新西兰或者南美。最近第三世界的人移民到发达国家，美国、澳大利亚、新西兰、欧洲等。全球移民大致可分为三种。

洲际移民，当时还没有出现国家，所以我们也不能用移民这个词。洲际移民是古代发生的事情。即从非洲到亚洲或者澳大利亚，或者非洲到欧亚大陆、即欧洲。因此，洲际移民中最重要的事件是out of Africa事件。因为某种契机"脱离了非洲大陆"本身就是重要的事件。

所谓移民到新大陆是陆新大陆发现后，兴起了殖民主义和帝国主义，欧洲人大量移民，奴隶也大量移民。最近，第三世界人民移民到发达国家。第二次世界大战后或1960年代以后非洲人去欧洲，亚洲人去美国的现象被称为南北移民。

刚才说的洲际移民中最重要的事件是out of Africa事件，你们认为此后全球移民的历史或全球移民中影响“移民变化”的最重要的历史事件是什么？当然，每个人的想法可能都不一样，我认为哥伦布发现新大陆是移民历史或者改变移民历史的最大事件。大家都听过哥伦布这个名字吧？哥伦布发现新大陆是几年的事？是1492年15世纪末的事件。那么，哥伦布为什么往西走了呢？

等等，哥伦布是哪个国家的？没错，是意大利人。但，不是意大利而得到西班牙的支援后，从西班牙出发了。去哪里？往西走。从西班牙往西走呢，是哪里？意思就是越过大西洋了。大家知道哥伦布非常喜欢的人和书是

马可波罗的《东方见闻录》吗？马可波罗的《东方见闻录》，马可波罗是13世纪~14世纪初期的人。他是从1254年到1324年的人。马可波罗的《东方见闻录》是什么书？马可波罗和他父亲和叔叔，即父亲的兄弟他们从哪里出发？马可波罗是意大利威尼斯人。从今天的威尼斯出发，到了中国元朝。在中国元朝生活了将近20年，之后又回到了威尼斯。

当时马可波罗和他的家人走的是哪条路？从意大利向东，从意大利去了哪里？穿越今日的中东和中亚 印度，到达中国的元朝。这条路今天仍然存在。但哥伦布为什么有骑马，骑骆驼的陆路，却放弃了往东的路。为什么坐船越过西大洋向西走了呢？

大家对这个问题的答案是什么？有猜对的人吗？你们觉得是什么？想到什么是正确答案呢？奥斯曼帝国，奥斯曼帝国打垮了哪里？打垮了东罗马。当时东罗马帝国的首都是哪里？君士坦丁堡。即君士坦丁堡被奥斯曼帝国占领后，君士坦丁堡的名字就消失了。今日君士坦丁堡的今日的城市名字是什么？是伊斯坦布尔，伊斯坦布尔现在是哪个国家？是土耳其。土耳其最近也改了名字，因为讨厌土耳其这个词。我们必须尊重这一点。

那么君士坦丁堡或伊斯坦布尔被奥斯曼帝国占领了。那伊斯兰帝国占据了君士坦丁堡是什么意思？地中海国家，所谓的意大利和欧洲之前从中国或印度获取货物的陆路被奥斯曼帝国堵住了。即道路被堵住了。东西进不去。我们刚才说的哥伦布是商人。哥伦布在君士坦丁堡沦陷后，差不多40年、准确来说是39年后，四处寻找国王，他去找几位国王并说：“东路不通，但我可以走西路，我可以找到它，请支持我，如果你给我一条船和人，我就往西走，去中国（原来的目的地是印度），把印度的香料之类的东西带回来。”他是意大利人，肯定是先去拜访意大利国王。意大利国王看起来太没希望了，应该说了No吧！在那个时期的15世纪，当时是怎么想的呢？你可以从陆路去，但不能从海路去。

即认为如果远赴大海，就会成为悬崖峭壁，最终会坠落而死的时期。因此哥伦布是第一个相信地球是圆的，海上会有道路的人。所以意大利国王说不行，德国国王也说不行，法国国王也说不行。西班牙国王起初也拒绝。然而，多次访问之后，西班牙女王就同意了。

所以他们决定给哥伦布支援船和船员也决定把从印度带来的东西分成50%和50%。在1492年哥伦布到达了哪里？到了美国和古巴之间的巴哈马群岛。当他到达时，就想：“这个地区是属于印度的岛屿。”因此，在其附近的原住民和古巴以及以后几次远征时发现的南方，即在今天的中美洲和南美洲发现的原住民，被称为印第安人。因为哥伦布认为那里是印度。我们今天称为南美洲原住民的人被他们称为印第安人。

反正我认为影响全世界移民变化的最重要的历史事件就是新大陆的发现。如果你们比较一下马可波罗路线和哥伦布到达新大陆的路线的话会非常有趣的。

所以找一些有关哥伦布发现新大陆的YouTube、电影或视频 有关马可波罗的电影或者视频看的话 可以了解有关新大陆发现和东方和西方的陆路和海路(海路)的各种信息。大家从这地图上看,明确地展示着马可波罗一行的旅行路线。意大利的威尼斯出发,经过中东,从中亚到了中国的元朝。当时在中国元朝的北京,(马可波罗一行)停留了很长时间。

也有文章说马可波罗深受元朝皇帝的喜爱 有记录说去缅甸进行了实地调查。(马可·波罗一行)从元朝的北京出发,前往今天的缅甸。再回到北京,在中国元朝待了将近20年回来威尼斯的时候,从缅甸到中国的元朝北京,再到杭州,用中国的海路到东南亚、印度下面,再到中东,经过君士坦丁堡到威尼斯。我之所以说哥伦布发现新大陆是移民全球历史上最重要的,是因为哥伦布发现新大陆的影响太大。

第一个影响是自从哥伦布发现新大陆之后 开始帝国主义和殖民主义。你说谁给哥伦布支援船和船员呢?是西班牙女王。是西班牙的伊莎贝拉女王。关于伊莎贝拉女王,请大家上网查一查。伊莎贝拉女王在西班牙历史上非常有名的女王。哥伦布发现新大陆后,因为西班牙对哥伦布远征投资,因此南美洲的银等矿产资源都可以运往西班牙,从此开启了"西班牙时代"。即"西班牙帝国主义"的开始。后来荷兰和英国也加入其中,最终,英国和西班牙的战斗中西班牙输了。那以后英国的帝国主义时代即将开启。除了这样的帝国主义或殖民主义,欧洲人的新大陆移民也将开放。

所以, 以前我们中学和高中学习的时候, 还说1620年, 即17世纪英国新英格兰的清教徒乘坐Mayflower移民到美国。从英国、德国、意大利、波兰等欧洲许多国家移民到美国, 也移民到南美的巴西、阿根廷, 大量移民到澳大利亚、新西兰等地。这是当时欧洲人口增加的原因。从南美洲开始, 随着很多资源流向欧洲, 随着帝国主义和资本主义开始, 生产大幅增加, 欧洲突然变得非常富裕, 发生产业革命等的那些事情。

因此, 经过18世纪、19世纪, 以殖民主义和产业革命为背景, 开启了大规模移民时代。有个学者显示了关于发现新大陆后全球移民增加的统计数据。看Yaukey写的书里264~267页的内容 据说从16世纪到19世纪末, 有4500万人从欧洲到北美去。这个规模比现在韩国的人口稍微小一些。据说, 从欧洲到南美洲和中美洲约有2000万人移民, 目前约有5000万人的社区已经开始了。有1700万人从欧洲移住到了澳大利亚。据说, 从16世纪到19世纪, 从非洲被带到美国的奴隶超过1500万人。

当时亚洲内部也有人口移动。从中国移民到海外, 约有1000万中国人移民到东南亚。约有400万人海外印度人从印度移民到斯里兰卡、马来西亚。所以, 最终, 从不发达国家移民到发达国家的时期也将再次开启。这是第二次世界大战后, 特别是60年代全球繁荣时期 去澳洲的人或者70年代和80年代去中东建筑现场的人, 都是1965年以后去美国、加拿大、澳大利亚等, 去传统移民国的移民者, 1985年以后, 亚洲地区内出现了变化。

给大家介绍一部关于移民的最具代表性的电影, The Immigrants, 有一部叫移民者的电影。是2013年制作, 2015年在韩国上映的电影。如果看这部电影, 可以看到欧洲人移民到美国的情况如何, 这是一部可以清楚地看到当时情况的电影。如上所述, 从homo sapiens的out of Africa开始, 回顾了哥伦布发现新大陆以及移住到新大陆的历史。

课程介绍及移民的概念和历史

1-5

亚洲地区移民史

是韩国社会和移民的第五节课。

在第五节课上我们将研究亚洲移民的历史。我曾问过欧洲的近代和亚洲的近代时期是否相同。欧洲时期非常明确。有古代，什么时候开始中世纪，至少近代是法国革命后近代国家开始的时期。我说过，开启近代国家开始的重要事件，哥伦布发现新大陆、还有，那以后的殖民主义、帝国主义。

但是长期以来亚洲，中国及其周边国家一直停留在古代和中世纪。所以可以说亚洲的近代(modern)是被强迫的近代，或者被迫开港。亚洲人的移住历史和亚洲地区的移民历史，就是古代与西方没有太大的差异，如果我们只观察中世纪，就简单地看一下两个事件。

两个事件中第一个是13世纪初蒙古帝国的时代。提到蒙古帝国，就会想到1206年，也就是13世纪刚开始的时候，记得成吉思汗吧？成吉思汗统一各部族，建立统一帝国，威胁中国金朝。成吉思汗于1227年去世，1227年至1241年间，成吉思汗的儿子们灭亡金朝，波罗的海在哪里？到瑞典，芬兰那里。就是说进攻到了波罗的海。因此，成吉思汗和他的孩子们越过乌克兰，侵略并占领到俄罗斯南部，然后是波兰、匈牙利，即今天的东欧。所以蒙古帝国，罗马帝国，都是帝国。罗马帝国是到现在为止占领土最广的帝国。后来，中国的金朝也灭亡了，终于建成了元朝。

所以蒙古帝国的欧洲远征是非常重要的事件。蒙古的成吉思汗越过中亚向西方移动,对欧洲历史产生了很大的影响。虽然征服金朝建立元朝, 当时韩国是高丽时代, 他们也入侵高丽。高丽时期, 首都是开京。将高丽首都从开京迁移到江华岛。但是从开京迁到江华岛的期间是从1232年到1270年, 几乎40年来一直没能把开京作为首都使用。

除了蒙古帝国, 亚洲中世纪的第二个重要事件是15世纪中国郑和远征。郑和远征是从1405年到1433年, 在15世纪前半期去了约7次的大远征。当时是明朝时期。元朝灭亡后建立的国家是明朝, 明朝永乐帝时期, 宦官郑和指挥, 越过南中国海, 越过印度洋, 经过三次远征到达印度。第四次远征时到了波斯湾中东。然后在第5次、第6次远征中, 到了现在的非洲。也到了非洲的索马里和肯尼亚的海岸和非洲大陆。所以当时扫荡了海盗。通过这远征, 让周围的国家、比如说东南亚国家、印度等遥远的中东国家向明朝献上朝贡。

所以请一边看地图, 一边看看郑和的远征路。可以看到, 经过南京、杭州、东南亚的越南、印度尼西亚等很多国家, 还到了非洲的摩加迪沙、马林迪的远征路。

但是我们要考虑的重要问题是, 郑和远征是巨大远征。但是郑和远征为什么不像哥伦布远征那样 成为改变世界历史的重大历史事件呢? 你们认为为什么呢? 也就是说, 如果将郑和远征和哥伦布远征进行比较, 郑和远征规模更大。例如, 郑和远征比哥伦布远征更早70年、80年。大约在80年前, 郑和进行了7次远征。哥伦布进行了4次远征。听说去中国的某个城市, 有展示郑和远征的博物馆。我没去过那里, 只是听了而已, 在那里比较了郑和远征和哥伦布远征, 把当时的船缩小, 郑和远征用的船更大, 更多。

例如,鄭和通过7次远征,率领300艘舰船, 船员规模也超过了28000人。 哥伦布当然刚开始是3艘船, 但最后最多的时候也是17艘船。 120名船员或最多的时候也是1500名船员。 所以从规模上看, 无法与鄭和远征相提并论。 但是哥伦布远征发现了新大陆, 之后成为了引领帝国主义、殖民主义的重要事件, 而郑和远征却被埋葬在历史之中。 主人公是谁, 哥伦布是意大利人, 鄭和这个人虽然是中国明朝人, 但却是中东裔人。 所以当时就叫他们(中东裔人)色牧人。 所以当时成为了宦官。 大量的丝绸和陶瓷等从中国带到了非洲。 在非洲、长颈鹿、狮子、这些珍贵的动物 和阿拉伯的骆驼等都带来中国。

我反复问你们, 郑和远征规模这么大, 却没有成为改变历史的重要事件, 你们觉得为什么呢? 事实上, 改变人类的很多重要发明品, 比如火药、枪、金属活字印刷术等, 这些发明几乎都是从中国开始的。 但是中国发明后暂时使用就不用了。 例如发明了火药。 那么明朝征服元朝的时候, 用火药。 一旦明朝建立, 就没有再开发, 就这样结束。 但是那个火药去欧洲后, 逐渐改良和革新。 枪也是中国最先发明的, 发射到一定的距离, 就不用了。 但是那把枪到欧洲后, 子弹射出的距离越来越远了。

那么, 在欧洲实现了如此的改良和革新, 在中国却只发明, 没有实现改良和革新的原因是什么呢? 这也是我的想法。 虽然每个学者的想法都不一样, 我也不是历史学家, 我的想法可能是错的, 但我认为当时中国是大帝国, 所以亚洲历史就是中国, 而且周围只有边防国家。 也就是说, 互不竞争。

因此, 因为中国太大了, 比如中国的皇帝, 即永乐帝死后, 洪熙帝就不要再走我们的海路了, 别的国家也没什么可看的, 一说no就完了。 从那以后, 把出海的船全部烧毁了。 而且不让建造桅杆两根以上的船。 就是航海时代结束的。 但是, 欧洲有势力差不多的很多王国。

如果哥伦布的时代是像永乐帝一样的大皇帝那样,就是只要一说no就结束的时代, 哥伦布也不会发现新大陆。刚才也说过, 如果意大利国王说no就去找德国国王, 德国国王说no就去找法国, 法国说no, 最后去西班牙争取到了。在欧洲可以这样的。因此, 在欧洲, 类似的许多王国相互竞争, 相互战争, 从而实现了革新。但在亚洲, 当时在东方, 中国已经太大, 与其他国家比不了, 就是我认为,因为不能竞争, 虽然可以先有发明,但是没有跟上改良和革新。

所以亚洲的殖民主义遭受欧洲的影响。被欧洲殖民了。因此, 亚洲和各个港口都受到了开港的压力 例如中国的澳门被葡萄牙、 马尼拉的港口被西班牙、大家上网查一下这个。英国从中国拿走了很多东西,但英国东西在中国卖不出去。就是出现贸易赤字, 所以才卖鸦片。所以鸦片战争以后, 中国的香港就归到英国。结果, 欧洲的很多殖民国家占据了亚洲的多个地区。例如,葡萄牙殖民澳门或帝汶, 英国殖民香港,印度、马来西亚、当时马来西亚有新加坡和文莱。英国还有殖民孟加拉国、斯里兰卡、巴基斯坦、缅甸等许多国家。法国殖民柬埔寨、越南、老挝等。荷兰殖民了印度尼西亚。刚才说过西班牙殖民菲律宾。不过1898年西班牙舰队和美国舰队战斗, 美国赢了。

所以1898年以后, 美国殖民了菲律宾。后来日本也学到了欧洲, 从1895年开始将台湾殖民地化。从1910年开始殖民韩国。虽然没能殖民中国全地区, 但战胜了中日战争, 从1931年开始将满洲地区殖民地化。如果欧洲人移住到新大陆或奴隶被强制移民, 殖民主义时代的亚洲人作为不自由签约劳动者就会被抓走或者不得不去。这个可以看作强制性的。

所谓不自由签约劳动者就是indentured workers,大家听说过'苦力'这个词吧? 一般中国人处于非常辛苦的情况下用苦力这个词。现在成了苦力这词的起源。所以不自由签约劳动者是, 当时在中国、日本或韩国人去了夏威夷的甘蔗田。但是刚开始的五年间没有钱去。所以送他们的中介人提前给船运或者生活费用, 把这个提前使用, 然后在5年间无条件地, 像奴隶一样工作,工作5年就能获得自由。所以,把处于奴隶和自发移民者之间的人, 也就是说,5年内像奴隶一样,5年后从合同中解放成为自由劳动者的那种, 我们称之为不自由合同劳动者,可以理解为亚洲人这样工作了就可以。所以中国人作为苦力、不自由签约劳动者的身份去美国或澳大利亚。

于是, 当时移民输入国禁止亚洲人移住的法案,即被称为Exclusion Act的这种排除法案。到了20世纪初期, 终于出现阻止从传统移民国家移民进入的那些, 因此亚洲人的外来移民大幅减少。亚洲内部的移动仍在继续。中国人仍然向东南亚移动,这样的移动增多。战后, 第二次世界大战后, 被亚洲国家殖民的国家独立了。因此, 独立后, 就开始发生移民。所以有传统移民国的移民, 有先发移民国的移民, 有合同劳动移民到中东地区的, 也有后发移民国的移民。但是, 我们来看一下传统移民国家、先发移民国家、或中东地区的移民吧。

亚洲人在1960年代以后移民到传统移民国。重要的问题是,为什么亚洲人在60年代以后 移民到美国、加拿大、澳大利亚、新西兰呢? 举个例子, 为什么偏偏是1960年代呢? 答案是, 加拿大在1962年或1976年、美国在1965年、澳大利亚在1966年或1973年, 废除了刚才所说的阻止亚洲人移民的Exclusion Act。但是为什么偏偏是60年代或70年代呢? 这个非常重要。从全球范围来看,1960年代的美国和加拿大将其称为"1960s",因此被称为"60年代的大事件"

在德国也被称为68运动。这是当时人权运动变得非常活跃,产生了不能歧视某种种族或某种类型的想法。但是可以解释为,因为60年代是经济繁荣期,由于人力非常不足,不得不废除政策。因此,亚洲的移民者大部分移民到美国、加拿大、澳大利亚、新西兰等传统移民国家,因为到80年代末为止是冷战时期,越南或这些地区的人移民到苏联或东德,即是冷战时期,所以可以分为社会主义国家内的移民和资本主义国家内的移民。

从亚洲地区移居到北美、大洋洲的共同特点是,之前我说过,斯蒂芬·卡斯尔是我们课程的重要参考书。根据2013年的那本书,很多亚洲人移民到美国、加拿大、澳大利亚等,其理由是,如果某人先去移民,下一个人作为家庭团聚条款,意外地大规模连锁移民到美国、澳大利亚等。美国和澳大利亚等移民者的出身国逐渐变得多样化,特别是1970年代、80年代,因为越南战争,越南和印度支那的难民也大量涌入。

但是以后很多移民输入国,即美国、加拿大、澳大利亚、新西兰都喜欢熟练移民者或事业移民者、高级技术移民者。先发移民国家是指去欧洲的情况。欧洲在1960年代不是有邀请劳动者制度嘛。当时英国、法国、德国也有邀请劳动者制度,但是亚洲人比起以邀请劳动者去,因为有很多被殖民的欧洲国家,所以以"殖民劳动者"去了殖民地帝国。因此,如果没有任何关系就去guest worker的人作为邀请劳动者,过去的历史上有过殖民地经验的人去的被称为殖民劳动者。

也就是说, 从被殖民国家到殖民国家, 比如香港和印度都是英国的殖民地, 所以一定程度上懂英语, 在殖民地期间内学习, 香港人和印度人主要去英国, 越南人去法国, 印度尼西亚人移民到荷兰, 菲律宾人移民到美国。这些都叫殖民劳动者移民。在西欧, 殖民劳动者和邀请劳动者的地位最初比guest worker好, 殖民劳动者对待几乎与市民差不多。斯蒂芬·卡斯尔教授在书中解释, 殖民劳动者和邀请劳动者的地位差不多了, 邀请劳动者的恶劣地位越来越高, 殖民劳动者的好地位降低, 最终都降低到同样的移民劳动者地位。

还有去中东的合同劳动移民。1973年至1980年代中期, 中东掀起了大规模建设热潮。所以很多劳动者去那边。虽然后来规模缩小了, 但是除了建设意外, 以多样职业移民也增加。因此, 1973年石油危机后迅速扩大, 逐渐富裕的中东产油国刚开始把信仰伊斯兰宗教的印度、巴基斯坦、孟加拉国等地方带走, 但这还不够, 所以不管宗教如何, 在菲律宾、泰国、韩国也带走工人。所以从亚洲很多地区带走移民者。

从85年以后, 随着建设热潮暂时熄灭, 就是已经把该建设的大概做完了。因此, 合同劳动者可以去的地方减少很多, 相反, 移民到服务行业的更多了。你们认为是什么样的服务行业? 没错。是家务劳动行业或护理服务行业。所以去中东的亚洲女性移民者大幅增加。但是在中东地区移民劳动者的人权问题非常严重。因此, 像Hollifield这样的著名移民学者不把中东地区称为移民国家、即移民输入国。不分到移民国家。

理由是, 如果想成为移民国家, 虽然那个国家会接纳海外移民者, 对于海外移民者, 那个社会好好维持一定程度上的人权的时候, 才会被称为移民国。但是, 现在中东地区的移民劳动者仍然被扣押护照、或买卖就业签证、完全不能带家人、隔离宿舍等人权有关的困难, 因此对中东的移民有很多批判的观点。

课程介绍及移民的概念和历史

1-6

摘要和总结

韩国社会和移民第一周的课程是讲座介绍及移民的概念和历史。

最后一节课呢，我们来整理一下学习的内容。一周课程的目标是对‘韩国社会和移民’这一本科目进行简要介绍，是为了理解该科目的基础课程。

第一节课讲的是科目介绍和目标，本课的目标是进入韩国社会的移民和通过进入韩国社会的移民和移民政策的变化，理解韩国社会的变化。即本科目是，将焦点放在进入韩国的移民的三个趋势---劳动移民、同胞的回归移民、结婚移民上，观察了各自的历史、现状和趋势等。今后要从全球角度比较，想从今后的全球角度进行比较。此时，全球观点可以分为西方观点和东亚观点。今后我们将比较欧洲等西方国家和日本、台湾等东亚和韩国的移民现象，这是为了掌握韩国移民的普遍性和特殊性。

第二节课讲述了什么是移民，即移民的概念。移住的标准是在某一时间点、某一地点、即某一区域边界内，改变居住地。这时没有越过界限的移动，我们通常都叫移动或搬家。用韩语，移住和移民这个词也在课堂上区分了。韩语“移住是更大的概念，因此“移住”这个词是包括国内移住和国际移住的词。所以可以分为移住国内、internal migration和 国际移住的international migration。此时，我们把国际移民叫移民。因此，在韩语中，‘移住’和‘移民’的差异呢，移住的概念更大，移民是指在移民内进入的国际移民的概念。

移民是否有标准的滞留时间是非常重要的核心。所以我问过有没有被视为移民的最小限度的滞留时间。联合国此前将1年以上的情況称为长期移民,将3个月到1年以下的情況分为短期移民,但通常我们提到移民时,会提到改变居住国家1年以上的情況。但是OECD方面比较了国家之间的统计结果,发现每个国家的滞留期间标准都完全不同。所以觉得用当时的统计来进行国际比较是非常困难的,OECD从2006年左右开始,为了能够进行国际比较,进行了移民统计标准化工作。

当时OECD的苦恼是,要想在长期移民者统计中把这些都标准化,应该怎么做。因此,每个国家,即有的国家都会把留学生统计纳入其中,因此今后移民统计中,将排除在外。OECD规定长期移民的标准不是滞留时间,而是滞留权利。

第三节课讲了移民者的类型和阶段,移民或移民者的类型根据原因划分,根据动机划分。但是我说过这种类型的区分也有问题。问题是什么来着?答案是,按原因划分的话,强制移民、自发移民还可以,从动机来看,经济移民、政治移民、宗教移民、社会移民、文化移民 也就是说,不会只以某种动机移动。

即,以经济目的移民的同时,也有社会原因或文化原因,也有宗教原因移民的,也可能是经济上的问题。所以移民的动机并不只有一个,而是越来越模糊、越来越复杂。我们学习了那个。在学习移民类型时,用术语区分了外国人、国内人、移民者、国民的概念。与这种概念的区分一起,‘永久居住权者’或‘归化者’这些词,还有在国内‘移民者’,‘国民’,‘永久居住权者’这些词,从在海外的移民者的情况来看,也有“海外韩国人”的用语,在韩国国内属于“永久居住权者”的用语在海外也被称为“ethnizen”,意思是拥有韩国国籍的美国国内永久居住权者。

所以说, 韩国国内的入籍者在美国是韩裔, 拥有美国国籍的人被称为外国同胞。在美国这个海外国家的是韩裔, 因为是拥有美国国籍的人。被称为外国同胞。最近移民的变化是不同类型和不同阶段的区分越来越模糊。虽然有短期移民还是长期移民的区分, 但是短期移民者也会变成长期移民者, 所以这个区分并不明显。其结果, 这样的变化对输入国、输出国和移民者的影响, 如今超国家主义正在抬头。接下来, 我们一起来看看Diaspora的意义也发生了变化。

第四节课讲了全球移民的历史。讲了从Homo Sapiens的移住到移民的时期, 即国境是什么时候出现的, 或者国家的概念是从什么时候开始的。所以也讲过欧洲谈论的近代和 亚洲、中国或韩国谈论的近代时期不同。全球移民的变化大致可以分为三种, homo sapiens的跨洲移民、18、19世纪的新大陆移民、当今从第三世界到发达国家的移民。我认为其中最重要的事件是哥伦布发现新大陆。影响全球移民的最重要事件就是哥伦布发现新大陆。在讲课过程中, 哥伦布通过当时的陆路, 即不是往东而是往西的原因。

第五节课我们回顾了亚洲地区的移民历史。欧洲的近代和亚洲的近代不同，即欧洲的近代从法国革命开始讲起，哥伦布发现新大陆后，经过殖民主义、帝国主义，欧洲人开始来到亚洲。因此，亚洲长期停留在古代和中世纪，后来，随着西方的船进来亚洲，即要求亚洲港口开放。我们还观察到，亚洲的近代是被西方的殖民主义所强迫的近代。另一方面，与哥伦布远征相比，郑和远征的步伐要快得多，大约80年前。我们了解了郑和远征没有成为改变世界史的重要历史事件的原因。所以，大家如果以后有时间的话，可以更详细地比较一下郑和的远征和哥伦布远征。

哥伦布发现新大陆后，殖民主义和帝国主义不断扩大。亚洲的很多地区都成了殖民地。其次，直到第二次世界大战以后，亚洲各国才独立，亚洲国家的人才签约移民到传统移民国家、首发移民国家或中东。第二次世界大战以后，亚洲地区移民到现代的最重大的变化是什么？希望大家能考虑一下这种现象是从什么时候开始出现的。下周的课上再讨论这个问题。谢谢。

기타학습요소

〈퀴즈〉

1. OECD가 분류하는 ‘일시(한시)적 이민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을 고르시오.

- ① 주재원
- ② 결혼이민자
- ③ 워킹홀리데이
- ④ 교환교수
- ⑤ 유학생

2. 다음 중 ‘미등록이민자’를 지칭하는 용어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 ① illegal migrants
- ② Irregular migrants
- ③ clandestine migrants
- ④ forced migrants
- ⑤ undocumented migrants

3. 다음 중 ‘이주의 여성화’를 대표하는 직업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 ① 의사
- ② 간호사
- ③ 간병인
- ④ 가사노동자
- ⑤ entertainers

4. 다음 중 ‘선발이민국가’가 아닌 나라를 고르시오.

- ① 영국
- ② 프랑스
- ③ 독일
- ④ 네덜란드
- ⑤ 이탈리아

〈퀴즈〉

5. 정화의 원정과 콜롬버스의 원정을 비교할 때 다음 중 사실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 ① 정화의 원정은 콜롬버스의 원정에 비해 시기적으로 더 이전이었다.
 - ② 정화의 원정은 콜롬버스의 원정에 비해 함대의 수가 더 많았다.
 - ③ 정화의 원정은 콜롬버스의 원정에 비해 참여한 선원의 수가 더 많았다.
 - ④ 정화의 원정은 콜롬버스의 원정에 비해 더 수 차(여러번)에 걸쳐 진행되었다.
 - ⑤ 정화의 원정은 콜롬버스의 원정에 비해 세계사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6. OECD의 장기이민자 기준은 무엇이며, 이는 UN의 기준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주관식)

〈참고영상〉

- ‘아시아 지역 이민의 역사’ 이야기를 시청해 보세요.(20:06)

https://youtu.be/T0_3k6ERAwW?si=DH9k8f9151p7KxDu

〈참고도서〉

- 다음의 참고도서를 읽어보세요.(592쪽)
- 스티븐 카슬, 마크 J. 밀러.(2013). 이주의 시대. 한국이민학회. 592쪽